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마음의 함양을 위하여

- 차세대를 육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위기 -

1. 미래를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 보자

가. "살아가는 힘"을 체득하여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함양하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이 풍요롭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고 세계의 평화에 공헌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계승해야 할 뛰어난 문화와 전통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성실성과 근면성, 서로 배려하며 협조하는 “화(和)의 정신”, 자연에 외경심을 느끼고 조화하려는 마음, 종교적 정서 등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중시되어 왔다. 이와 같은 우리 선인들의 노력, 전통과 문화에 긍지를 느끼면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갈 수 있는 일본인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21 세기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고도 정보사회의 실현을 통해 사회의 모습이 크게 변모하는 가운데, 지구환경 문제·에너지 문제·식량 문제 등 인류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대두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이 사실은 21 세기가 인류에게 있어서 심각한 위기의 시대임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인간환경의 개선에 노력하고 인류가 함께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한다” 꿈이 담긴 웅대한 과제를 부여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에 입각하여, 다음 대를 담당할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를 안고 창조적이고 활력에 가득찬 풍요로운 국가와 사회의 건설을 위해 준비하고, 지구 규모의 과제에 적극·과감하게 도전하여 세계 속에서 신뢰 받는 일본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힘”(자기 스스로 과제를 찾아내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 정의감과 윤리관 등 풍요로운 인간성, 건강과 체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정의감·윤리관과 사려 깊은 마음 등 풍요로운 인간성을 배양하자

청소년들이 익혀야 할 "살아가는 힘"의 핵이 되는 풍요로운 인간성은,

- 아름다움과 자연에 감동하는 마음 등의 유연한 감성
- 정의감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마음
-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 등의 기본적인 윤리관
-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사회공헌의 정신
- 자립심, 자기억제력, 책임감
- 타인과의 공생(共生)과 이질적인 것에 대한 관용

등의 감성과 마음이다.

이와 같은 감성과 마음이 청소년들에게 확고하게 함양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기성세대가 성인사회 전체, 가정, 지역사회, 학교의 현실을 재검토하여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하면서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 사회 전체의 모럴 저하를 되돌아 보자

청소년들이 풍요로운 인간성을 함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인사회 전체의 모럴의 저하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특히 다음과 같은 풍조가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사회 전체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개인의 이해득실을 우선시하는 것
- 타인에 대한 책임전가 등,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
- 물질·금전 등의 물질적인 가치와 쾌락을 우선시하는 것
- 꿈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노력, 특히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시하는 것
- 여유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편리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것

이와 같은 성인사회 전체의 모럴 저하를 배경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미래 개혁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지 않는 성인, 청소년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성인, 자녀지도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노력을 회피하는 성인, 청소년의 육성을 번거롭게 느끼는 성인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의 마음을 육성해야 할 성인사회가 이와 같이 "차세대를 육성하는 마음을 상실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오늘날, 마음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성인이 솔선해서 모럴의 저하를 시정하고, 보다 좋은 사회를 지향하는 일관된 노력과 용기를 실천해 감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자료 1: 일본·미국·중국 고교생의 규범의식

- 일본·미국·중국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부모나 교사에 대한 반항, 공감, 매춘 등을 "본인의 자유이므로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 "본인의 자유이므로 무방하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일 본	미 국	중 국
선생님께 반항하는 것	79.0	15.8	18.8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	84.7	16.1	14.7
사람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는 것	9.2	8.1	1.6
사람을 해쳐서 금품을 빼앗는 것	7.3	6.5	0.9
소액의 물품을 훔치는 것	10.5	13.2	1.8
각성제나 마약을 사용하는 것	11.4	19.6	1.2
학교를 빠지고 쉬는 것	65.2	21.5	9.5
매춘 등 성을 판매하는 것	25.3	-	2.5

주: 각국 모두 약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미국에서는 성에 관한 항목은 조사에서 제외

자료: "호출기 등 통신매체조사" 1996·일본청소년연구소

자료 2: 마음의 풍요로움과 물질의 풍요로움

- 전국의 20 세 이상 성인 약 1 만명을 대상으로 마음의 풍요로움과 물질의 풍요로움 중 어느쪽에 더 비중을 두는가를 질문한 결과, 마음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의 비율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생략)

자료 3: 교육과 관련된 문제로서 개선해야 할 것

- 전국의 전문가 등 약 1 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둘러싼 재문제 중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가”를 질문하고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을 하나만 선택하게 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가정의 행실지도가 불충분한 점을 지적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단위: %)

	비 율
가정의 행실지도가 불충분한 것	28.8
학(교) 력에 편중된 사회의 의식	22.8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악화	21.5
학교 및 교사의 지도력 저하	16.0
지역사회의 교육력의 저하	5.3
기 타(무응답)	3.6(1.9)

자료: “6 대개혁 전문가 앙케이트” 1997·총리부

자료 4: 현재의 청소년상

- 20 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오늘날의 청소년을 자신의 청소년기와 비교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놀이감각, 센스가 뛰어남,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유연성, 국제성 등의 면이 이전에 비해 좋아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는 볼런티어 활동 참가에도 적극적이다[자료 5].

(단위: %)

	뛰어나다	무어라 말할수 없다	걱정이 된다	무응답
인생을 즐기는 것·놀이감각	67.8	25.0	6.4	0.9
센스가 뛰어남·스마트함	64.6	30.4	4.7	0.3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두뇌의 유연성	50.6	43.8	4.6	1.0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	46.8	42.6	10.2	0.4
국제성	46.0	45.3	7.6	1.1
감성의 풍부성	28.8	55.4	14.7	1.0

주: 東京都内の 20 세 이상 주민 1,500 명을 대상으로 오늘날의 청소년이 자신의 청소년기에 비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자료: “청소년에 관한 여론조사” 1988・東京都

자료 5: 앞으로의 볼런티어 활동 참가 의지

(단위: %)

	비율
꼭 참가하고 싶다	17.8
참가하고 싶은 편이다	50.4
참가하고 싶지 않은 편이다	22.6
참가하고 싶지 않다	4.8
모르겠다·무응답	4.3

주: 전국의 16-29 세 인구 약 2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볼런티어 의식조사” 1997・NHK

라. 지금 해야 할 것을 하나하나 실행하자

청소년들의 "살아가는 힘"을 함양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수히 많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가정, 지역사회, 학교, 나아가서는 기업과 미디어, 그리고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가 각각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광범위한 제언을 수록하였다. 이 제언들은 일견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지 모르지만, 실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의지를 새롭게 하여 각각의 입장에서 지금 해야 할 것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야 한다.

이미 교육개혁에 관해서는 국민 각계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식개혁을 추구하는 등 사회적 확산을 위한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각 지역의 학교, 지방 공공단체와 국가에서도 다양한 의견교환과 학습의 장, 포럼과 심포지움 등의 기회가 자주 마련되고 있다. 우리는 비록 길은 멀지만 이와 같은 시도를 축적해 가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다시 한번 가정을 되돌아 보자

1) 가정의 모습을 되돌아 보자

서로 배려하는 밝고 원활한 가정을 만들자 - 청소년들이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다.

가정의 존재형태를 재검토함에 앞서 우선 청소년들의 생각에 눈을 돌려보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초등학생부터 고교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가족 모두가 즐겁게 지낸다"는 것을 첫번째로 들고 있다. 또한 자신의 가정에 바라는 바로서 이것을 지적한 청소년이 압도적으로 많다(자료 6).

가정에서의 인간관계는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청소년의 마음의 성장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서로 배려하는 밝고 원활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모든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망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우리 성인들이 진정으로 그와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는가를 의문시 하는 듯이 생각된다. 청소년들의 절실한 소망에 응답하고 그 마음을 풍요롭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 배려하는 밝고 원활한 가정을 만드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 1: 가정의 정신적 기능 - "컨테이너 가족"에서 "네트워크 가족"으로

가정이 지니는 기능은 생활보전 기능과 정신적 기능의 두가지로 대별된다. 오늘날에는 사회전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 등을 배경으로 생활보전 기능보다는 가족성원이 애정을 나누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정신적 기능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역할로서 "휴식, 안정을 얻는 장" "서로 돕고 의지하는 장" "가족이 서로 성장해 가는 장"과 같은 주로 정신적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들고 있다(자료 7). 또한 자녀를 가진 부모에 대해서 자녀의 의미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밝고

즐겁게 한다" "생활의 의욕이자 보람"을 거론하는 반면, "가정의 후계자" "노후의 지주"라는 응답은 매우 적어서 자녀라는 존재에 대해 정신적인 가치·정서적인 가치를 보다 강조하는 듯이 생각된다(자료 8).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의 정신적인 기능은 오히려 저하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컨테이너 가족"에서 "호텔가족"으로의 변용으로 파악하는 시각이 있다. 즉, "용기(컨테이너)"로서의 가정 속에서 함께 지내고 따뜻한 정서를 나누는 가족에서, 같은 집에 기거하면서도 생활시간이 달라서 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호텔의 숙박자 같은 관계의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인은 자신이 속하는 "장(場)"을 중요시하여 "계약"보다는 "연(緣)"을 우선시한다는 말을 듣는다. 이와 같은 가치관이 증가경향에는 있지만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낮은 이혼율로도 입증되듯이 미국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붕괴"와 같은 현상이 일반화되지 않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정의 유대를 "계약"으로 의식하지 않고 "인연"으로서 파악하는 가족관은 자칫하면 "가정이라는 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정이 통하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그릇된 관념을 낳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호텔가족화"라고도 할 수 있는 가정의 공동화(空洞化)를 직시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로서의 개인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가족 한사람 한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의식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마음을 주고받는 가족("네트워크 가족")의 존재방식을 모색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서로 배려하는 밝고 원활한 가정을 만든다는, 이제까지 자명시되어 온 목표를 성원들의 의식적인 네트워크 형성 노력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오늘날의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료 6: 청소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의 기능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초등 2	가족이 함께 즐겁게 지낸다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운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이 있다	자녀를 낳고 기른다
초등 4	가족이 함께 즐겁게 지낸다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운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있다	자녀를 낳고 기른다	생활에 필요한 돈이 있다
초등 6	가족이 함께 즐겁게 지낸다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운다	주위의 이웃이나 친구등과 사귄다	자녀를 낳고 기른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있다
중학 2	가족이 함께 즐겁게 지낸다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운다	주위의 이웃이나 친구등과 사귄다	자녀를 낳고 기른다	부부가 함께 지낸다
고등 2	가족이 함께 즐겁게 지낸다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운다	자녀를 낳고 기른다	잠자거나 쉬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지낸다

주: 1) "가정의 역할로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질문한 결과(복수응답)

2) 전국의 초·중·고교생 약 9,0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 "가정생활에 관한 조사" 1981·일본가정과교육학회

자료 7: 가정의 역할

(단위: %)

	응답결과
경제생활을 뒷받침하는 장	13.6
부부의 애정의 장	10.5
휴식, 안정을 얻는 장	54.1
서로 돕고 의지하는 장	48.4
자녀를 낳고 기르는 교육의 장	11.4
보호와 부양 등의 복지의 장	1.8
가족이 서로 성장하는 장	39.0

주: 전국 5 지역의 20-59 세 인구 약 3,7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복수응답)

자료: "국민생활선호도조사" 1994·경제기획청

자료 8: 자녀에 대한 가치관

(단위: %)

	비 율
가정을 밝고 즐겁게 한다	89.7
생활의 의욕이자 보람	76.3
부부의 고리	51.0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이	47.5
하늘이 점지해 준 것	28.7
집안의 후계자	14.4
노후의 지주	8.1
기 타	1.5

주: 전국의 1 살난 자녀를 둔 모친 약 4,0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복수응답)

자료: "인구동태사회경제면조사" 1988·후생성

부부가 일치협력하여 자녀를 기르자

자녀양육은 부부가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모친에게만 자녀양육의 책임이 떠맡겨지고 부친의 존재가 희박해 지는 등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자녀양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가정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부친 존재의 희박화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가장 커다란 문제의 하나로서 모친의 마음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제비교 조사를 보면, 일본의 부친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대상국 중 가장 적다(자료 9). 또한 부친이 담당하는 역할·노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자료 18). 한편 자녀양육에 관하여 불안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모친(자료 10)이 상당수에 달하는데, 그 주된 요인으로서 모친에 대한 부친의 물이해와 비협조를 들 수 있다.

특히 유소년기가 마음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면 모친의 육아불안은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 부모와의 접촉을 통해서 "자신이 애정 속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유아

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원래 모친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안전기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초조함과 불안감이 증폭되면 자녀 마음의 안정이 위협받게 되고 장래의 인간관계 형성과 인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부친이 이제까지의 일 일변도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가정 속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해 갈 것이 요망된다. 이 때 특히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부간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녀지도의 방침이 부모 사이에서 일관되지 않으면 아동은 혼란을 느끼고 그 성과도 거둘 수 없다. 부부가 상호이해와 애정을 토대로 함께 협력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녀양육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2: 육아불안의 양상 - 전업주부와 취업모친

육아불안의 배경을 보다 자세하게 검토해 보면 대체로 일하는 모친에 비해 전업(專業)주부가 육아불안이 높은 경우가 많다(자료 11). 전업주부는 자녀와 접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육아에 국한된 협소한 세계에 갇혀지내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역으로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전에 사회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여성은 가정 밖에서 자기실현을 추구하려는 의욕과 갈등하여 초조감과 불안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 육아와 가사 업무는 커다란 책임이 수반되는 한편,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담할 만한 상대도 없는 가운데 육아불안을 느끼는 전업주부에 대해서 남편은 충분한 이해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 요망된다.

가정 밖에서 일하는 모친은 자녀와 접촉하는 시간은 짧지만, 그 시간에 마음을 집중하여 자녀와 깊이 있게 접촉하고 지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육아와 가사를 양립시키는 문제, 자녀양육에 관한 상담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 등으로 고민하게 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남편은 남녀의 고정적인 역할분담에 구애받지 말고 가사·육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3: 심각화하는 아동학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의 문제가 점차 현재화하고 있다. 아동상담소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1996 년도에 4,000 건을 넘는 등 급증 추세에 있다 (자료 12). 가장 신뢰받아야 할 대상인 부모로부터의 학대는 자녀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게 되어 깊이 우려해야 할 문제이다. 아동학대의 문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발생되는데, 그 하나로서 부부관계가 불안정하여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자세가 결여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자료 9: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단위: 시간)

	부 친	모 친
일 본	3.32	7.44
한 국	3.62	8.40
태 국	6.00	8.06
미 국	4.88	7.57
영 국	4.75	7.52
스웨덴	3.64	6.49

주: 각국 모두 0-12 세의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부모 약 1,000 명에 대해서 평

일날 어느 정도 함께 지내고 있는가(수면시간은 제외)를 질문한 결과의 평균

자료: "가정교육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1994·문부성

자료 10: 육아불안의 유무

(단위: %)

	매 우 그렇다	다 소 그렇다	별 로 그렇지 않다	전 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자녀를 히스테릭 하게 꾸짖는다	19.5	59.2	19.0	2.3
자신이 좋은 모친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11.1	50.5	33.2	5.2
하고싶은 일을 할 수 없 어서 초조감을 느낀다	8.5	33.0	43.4	15.1
사회로부터 뒤쳐졌다	6.1	25.9	46.0	22.0
자녀가 생각대로 크지 않는다고 느낀다	4.7	33.7	49.9	11.7

주: 東京, 埼玉의 유치원아, 보육원아, 초등학교 1년생을 가진 모친 약 1,5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 "모친은 변화했는가" 1996·베넷세교육연구소

자료 11: 모친의 직업과 육아불안의 관계

(단위: %)

		육아불안의 정도		
		高 불안	中 불안	低 불안
모친의 직업	전업주부	23.9	55.8	20.3
	풀 타임	12.6	54.4	33.0
	파트 타임	14.6	66.1	19.3
	자영업	15.3	57.7	27.0

주: 1) "고불안" "중불안" "저불안"은 육아에 관해서 "때때로 자녀를 히스테릭하게 꾸짖는다" "자녀가 생각대로 크지 않는다" 등 5 항목의 응답결과를 점수화하여, 육아불안의 수준에 따라 3군으로 나눈 것

2) 東京, 千葉, 埼玉의 유치원아, 보육원아, 초등학교 1년생의 자녀를 둔 모친 약 1,5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 "모친은 변했는가" 1996·베넷세교육연구소

자료 12: 아동학대의 실태

(단위: 건)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건 수	1,101	1,171	1,372	1,611	1,961	2,722	4,102

주: 전국의 아동상담소에 학대를 호소한 상담처리 건수의 추이

자료: 후생성 조사

대화를 늘리고 가족의 유대를 심화시키자

부부간 혹은 부모-자녀간의 마음의 유대를 심화시키고, 가정이 정신적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청소년의 마음을 함양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간에 많은 대화가 행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인간관계에서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이 관습이 되어 왔다. 이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정 내에서의 대화의 중요성을 은폐하는 구실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가 자녀문제에 관해서 “자주 대화”한다는 가정의 비율이 미국이나 한국에 못미치고 있다(자료 13). 부모-자녀간에는 특히 부자(父子)간의 대화가 적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자녀의 대화의 빈도도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된다(자료 14). 이와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다른 외국에 비해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부모에게 상담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며(자료 15), 역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상담하는 경우도 드문 편이다(자료 16).

가족간의 대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가족 전원이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날을 정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을 확보하여 서로 그 날 있었던 일을 전해주고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 유익할 것이다. 특히 부친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자녀가 방에 틀어박혀 TV나 TV 게임에 몰두하지 않도록 규칙을 정하여 가능한 한 가족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삼스럽게 가족간에 대화를 나누고자 해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당혹감을 느끼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와 같은 가정에서는 예를 들면 아침인사를 나누거나 자녀에게 가사를 분담시키거나 함께 운동을 하거나 하여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료 13: 배우자와 자녀에 관해서 대화하는 빈도

(단위: %)

	일 본	미 국	한 국
자주 대화한다	50.5	66.2	68.5
가끔 대화한다	38.9	29.8	27.2

주: 0-15 세의 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각국 모두 약 1,000 명)

자료: "아동과 가정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1994/5·총무청

각 가정에서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시도를 통해 가족간의 대화의 양을 늘리고 그 내용을 심화시켜 가는 의식적인 노력을 할 것이 요망된다.

자료 14: 부모-자녀간의 대화의 빈도

(단위: %)

	자 주 대화한다	가 끔 대화한다	별로 대화 하지 않는다	거의 대화 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0-3 세	74.2	15.3	1.2	1.8	7.4
4-6 세	72.2	24.9	2.4	0.6	-
7-9 세	58.7	30.3	8.7	1.9	0.5
10-12 세	58.2	32.9	6.7	1.8	0.4
13-15 세	53.6	31.6	10.8	3.2	0.8

주: 0-15 세의 자녀를 가진 부모 약 1,0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 "아동과 가족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1994/5·총무청

자료 15: 청년의 고민과 걱정거리의 상담상대

(단위: %)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일 본	친구 51.9	모친 37.7	연인 21.1	부친 18.8	형제 17.7
미 국	모친 54.9	연인 39.2	친구 32.4	부친 30.1	형제 29.5
영 국	모친 53.5	연인 37.2	부친 27.9	형제 26.7	동료 26.6
프랑스	모친 53.8	친구 37.0	연인 35.4	형제 28.8	부친 22.5
한 국	친구 63.6	모친 29.6	형제 24.6	부친 13.4	선배 10.7

주: 1) 각국 모두 전국의 18-24 세의 청년 약 1,0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2) 선택지는 이외에도 “교사” “직장의 동료” 등 14 개이며, 복수응답 결과
 자료: “세계청년의식조사” 1993·총무청

자료 16: 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상담

(단위 : %)

	어머니는 무언가를 나와 상담한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나와 상담한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일 본	9.5	10.5	1.3	1.5
중 국	11.6	45.8	7.0	39.2
한 국	15.2	22.2	6.8	8.0
터어키	16.6	48.9	6.8	37.7
미 국	23.0	48.6	12.0	45.9

주: 각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각국 약 1,000 명)

자료: “청소년의 비행적 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등·1993/4·中里也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를 중요시하자

오늘날 청소년들의 식생활을 살펴보면, 먹거리는 풍부해졌지만 스낵 과자나 패스트 푸드 등에 과도하게 편중된 식사 내용과 아침 식사를 거르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편중된 식생활 등을 배경으로 하여 비만화 현상이 증가하는 등 장래에 생활습관으로 인한 발병의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

각 가정의 식사 관행도 변화하고 있다. 가족 성원 각자의 생활행동의 다양화에 따라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감소하여 아침식사를 혼자 하는 청소년이 증가함과 아울러, 청소년이 혼자서 저녁식사를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몸과 마음 모두 성장·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식(食)”은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과 사회성의 발달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부모가 정성껏 만든 식사 유소년기에 “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감, 신뢰감은 자존감, 정서적 안정감 등 마음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는 자기 가정의 식사 관행을 되돌아 보고, 유소년기부터 영양 밸런스를 고려한 식사를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예를 들면 가족 전원이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일주일 중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날을 정하거나 하여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기회를 확보하여 가족간에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관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녀와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예의나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익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며, 음식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려가며 일해 왔음을 이해시킴으로써 그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게 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이와 같이 식생활은 청소년의 마음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급식에 있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의 식사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습관을 함양하는 것” 등이 목표로 간주되고 있지만,

가정에서도 식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식사의 방식을 되돌아 보기 바란다.

과잉간섭을 하지 말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의 교육력(教育力)이 전반적으로 저하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과보호, 응석을 받아주는 부모의 증가”이다(자료 17). 청소년이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습관을 갖게 해야 한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자녀가 생각하기에 앞서 미리 개입해버리는 것은 주체성과 자주성의 함양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 청소년들 중에는 차근차근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도 있는 한편 신속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는 아이도 있듯이 각자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다. 부모는 자신의 페이스를 자녀에게 밀어붙이거나 다른 자녀와의 비교에 몰두하여 자녀에게 신속한 결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과잉간섭과 과보호는 놀이나 자연체험 활동, 모험적인 활동 등 청소년의 성장에 불가결한 중요한 기회를 제약하는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청소년의 주체성 확립과 마음의 성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들은 이와 같은 과잉간섭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자녀지도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부친의 부재와 모자간의 과도한 밀착관계는 과잉간섭을 조장하는 주된 요인의 하나로서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4: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갖는 의미와 과잉간섭의 문제

과잉간섭의 문제는 부모에게 있어서의 자녀의 의미가 변화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오늘날의 부모들 사이에서는 “신과 같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자로부터 아이를 점지받았다”는 생각이 희박해지고 “아이는 부모의 계획적인 결단에 의해서 탄생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는 간혹 부모의 생산물, 소유물처럼 간주되어 그들의 희망과 개성보다는 부모의 취미와 기호, 자기에착과 허영심이 우선시되게 된다. “좋은 학교 = 좋은 회사 = 행복한 인생”이라는, 이미 붕괴되어 가고 있는 도식을 완강하게 신봉하여 어린 시기부터 과도하게 지육(知育)에 편중된 교육에 몰두하고 자녀의 생활을 일일이 관리하고자 하는 부모의 모습에서 그와 같은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부모는 과잉간섭을 되돌아보고 의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 5: 과잉간섭의 문제와 청소년의 발달단계

과잉간섭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유아기에는 모자의 애착의 굴레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 그 뒤의 인간관계 형성의 원점이 되기 때문에, 많은 애정을 기울여서 따뜻하게 유아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응석받아주기나 과보호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그 뒤 유아기에서의 자립감의 달성, 소년기에서의 활동성과 적극적인 의욕의 형성, 청년기의 자발성의 획득과 같은 발달과제를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행동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중요한 기초적인 지도와 교육을 확실히 행하면서 서서히 간섭을 줄여가며 지켜보는 자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17: 가정의 교육력이 저하하고 있는 이유

(단위: %)

	응답결과
과보호, 응석을 받아주는 부모의 증가	64.9
행실지도나 교육에 무관심한 부모의 증가	35.0
외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의 의존	33.1
부모-자녀가 어울려 함께 행동하는 기회의 부족	32.2
교육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부모의 증가	30.4
교육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부모의 증가	28.3
부친의 존재감의 저하	27.4
직업을 가진 모친이나 가정 밖에서 활동하는 모친의 증가	25.8
교육의 명확한 방침을 갖지 못한 부모의 증가	24.9
부모 이외의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의 부족	20.6
자녀에게 다양한 체험을 시킬 수 있는 기회의 부족	20.3
가족 성원들의 개인주의화	18.8
서로 격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18.0
부모에 대한 자녀의 신뢰감의 저하	17.2
자녀가 일하는 부모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기회의 부족	14.2
교육에 관한 상담상대의 부족	13.3

주: 전국의 20 세 이상 인구 중 “최근 가정의 행실지도 등 교육하는 힘이 저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약 5,500 명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복수 응답)

자료: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여론조사” 1993·총리부

부친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부친의 존재가 점차 희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모친의 안색에만 신경을 쓰고 모친에게 “좋은 자녀”가 되려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청소년의 모습을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가정에서 부친의 모습이 후퇴하여 “친구와 같은 부친”상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선악의 규범 등에 관한 지도가 경시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부친의 가정교육 참여가 점차 진전되고는 있지만, 의연히 교육에 무관심한 부친, 혹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것을 회피하는 부친이 적지 않다.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부친의 자녀양육 분담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부친은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항목 이외에 “예의범절을 가르친다” “고민거리의 상담상대가 된다”는 등 거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자료 18).

각 가정에서는 부친·모친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자녀양육에 임할 것인가를 서로의 개성과 가족관을 토대로 하면서 모색하게 된다. 이 때 부친이 예의범절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공유하면서도 모친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녀양육에 임하여 과도하게 밀착되기 쉬운 모자관계를 수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 즉 부부가 복안적(複眼的)인 자녀양육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부친이 적절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친은 파트너로서 그것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자주 거론되는 말이지만, 모친이 자녀 앞에서 부친을 비방을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녀의 부친상을 왜곡시켜서 좋지 못한 결과를 낳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부모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와 같은 자세를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자료 18: 부친의 자녀양육 분담

- 각각의 역할에 관해서 “주로 부친이 하고 있다” “부친·모친 양자가 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모의 비율

(단위: %)

	일 본	미 국	영 국	한 국	태 국	스웨덴
식사시중을 든다	9.4	34.4	25.0	16.9	21.0	31.4
행실지도를 한다	51.6	67.8	64.5	43.3	45.5	75.9
공부를 가르친다	29.3	36.7	36.2	25.6	29.7	26.7
놀이상대가 된다	67.6	70.1	73.1	40.7	56.2	65.1
진로의 상담상대가 된다	24.2	38.1	32.4	22.6	24.0	30.3
고민거리의 상담상대가 된다	25.0	48.0	41.5	17.0	42.8	52.3
생활비를 부담한다	88.7	78.2	79.3	93.5	51.7	85.0

주: 0-12 세의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부모(각국 모두 약 1,000 명)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 “가정교육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1993·문부성

편부모 가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자

편부모 가정 부모들 중 다수는 직업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녀양육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아기의 자녀와 여유 있게 즐기거나 청소년기의 자녀와 여러가지 상담을 하려 해도 실제로는 좀처럼 그럴 여유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커다란 고민을 안고 있다.

편부모 가정이 된 사정은 각기 다양하지만, 어떤 경우든 자녀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자녀는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을 지켜보고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과거의 다양한 사정이나 경위에 집착하기 보다는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착실히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녀는 마음의 고통이나 고독감을 극복할 수 있다. 부모가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열심히 생활하고 자녀양육을 위해 전향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반드시 청소년

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

한편 부모는 고민을 가슴 속에 간직하지 말고 조부모나 친척을 비롯하여 가까운 우인·친지의 협력을 구하거나 지역사회 자녀지도 서클에 가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복지센터, 모자상담원, 아동상담소 등의 기관을 활용하는 등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인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서 자녀양육의 모든 것을 떠맡으려 하지 말고 열려 있는 자세로 자녀양육에 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6: 편부모 가정의 상황

편부모가정은 1993년에 약 100만 세대(모자가정 약 79만 세대, 부자가정 약 16만 세대)에 달하여 전 세대의 2% 남짓 정도로 추계된다. 편부모 가정이 된 이유의 대부분은 배우자와의 사별이 아니라 이혼 등의 생별에 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96년에 전후 최고(21만쌍, 인구 천명 대비 1.66)를 기록하는 등 상승경향에 있고, 선진제국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어, 편부모 가정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2) 나쁜 것은 나쁘다고 분명하게 가르치자

해서는 안되는 것과 잘못된 행동은 분명하게 고쳐주자

청소년들의 규범의식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중학생의 규범의식에 관한 한 조사에서도 예를 들면, “방치해둔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탄다” “자기방에서 담배를 피운다” “다른 사람의 우산을 무단으로 가지고 간다”는 등의 행위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청소년이 전체의 1/4 내지 1/3에 달하여 10년 전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체육화를 무단으로 사

용한다” “친구의 우승을 축하하여 술을 마신다”는 행동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중학생이 약 반수에 달한다(자료 19).

자료 19: 중학생의 규범의식

- “매우” + “상당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

(단위: %)

	1983	1995
방치해 둔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탄다	86.8	77.3
자기방에서 담배를 피운다	79.7	65.1
다른 사람의 우산을 무단으로 가져온다	82.3	74.4
심부름에 미니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간다	74.6	56.9
다른 사람의 체육관 신발을 무단으로 사용한다	76.3	54.0
가볍게 퍼머를 한다	63.7	47.6
친구의 우승을 축하하며 술을 마신다	59.9	50.8
수업시간에 만화를 본다	60.8	53.4
착용이 금지된 바지를 입고 등교한다	49.3	32.6
버스나 전차에서 아동요금을 내고 탄다	25.6	16.2
자전거에 두사람이 올라탄다	14.8	6.7

주: 東京, 神奈川, 埼玉의 중학 1-3 학년생 약 1,7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 “중학생은 변화했는가” 1995·베넷세 교육연구소

일본과 미국·중국의 고교생을 비교한 조사에서는 “학교를 무단결석하는 것”과 “매춘 등 성을 상품화하는 것” 등에 관해서 “본인의 자유이므로 무방하다”는 응답률이 일본이 가장 많고, 공갈, 강도, 절도, 마약 사용 등 범죄행위에 관해서도 일본의 고교생은 약 1 할 이상이 “본인의 자유이므로 무방하다”고 응답하였다(자료 20).

자료 20: 일본·미국·중국 고교생의 규범의식

- “본인의 자유이므로 무방하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

	일 본	미 국	중 국
교사에게 반항하는 것	79.0	15.8	18.8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	84.7	16.1	14.7
사람을 위협해서 금품을 빼앗는 것	9.2	8.1	1.6
사람을 해쳐서 금품을 빼앗는 것	7.3	6.5	0.9
고급 브랜드의 학용품등을 훔치는 것	8.8	9.7	2.7
소액의 물품을 훔치는 것	10.5	13.2	1.8
수업 중에 상대방 호출기에 메시지를 남기는 것	64.3	51.0	11.6
각성제나 마약을 사용하는 것	11.4	19.6	1.2
학교를 빼먹고 쉬는 것	65.2	21.5	9.5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룹에 패를 끼치는 것	13.9	10.1	7.8
매춘 등 성을 상품화하는 것	25.3	-	2.5
컴퓨터로 성적인 화면을 보는 것	70.1	-	6.1

주: 각국 모두 약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미국의 경우에는 성에 관한 항목은 조사에서 제외

자료: “호출기 등 통신매체조사” 1996·일본청소년연구소

청소년들의 규범의식 저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물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기하기 위해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문제의 배경에는 성인사회의 도덕성 전체의 저하라는 상황이 내재해 있다. 부정과 규칙위반을 허용하는 감싸기 풍조, 의무·책임을 망각하고 자유와 이기주의를 구분 못하는 풍조, 그리고 정직성·성실성·진지함 등의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는 가정의 행실지도에 이완을 가져와서 청소년의 규범의식 저하를

조장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비행원인의 가장 주된 것으로서 가정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에서의 행실지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자료 21).

가정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풍조에 물들지 않고,

- 부친·모친 자신이 우선 “자기만 괜찮으면 무방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규칙에 위반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등의 당연한 사실을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실천하여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 그리고 선악과 옳고그름의 구별을 분명히 하도록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지도해야 한다. 오늘날의 부모는 어떤 경우든 자녀를 감싸는 경향이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것과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는 정색을 하고 꾸중하는 등 확실하게 고쳐줘야 한다.
- 사춘기 이후 다른 사람에게 꾸중을 듣고 필요 이상으로 상심하거나 혹은 역으로 이성을 잃고 흥분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꾸중을 받고 자란 경험이 결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21: 비행의 원인

(단위: %)

	가 정	소년 자신	사회환경, 사회풍조	학 교	기 타
응답결과	46.7	25.4	18.6	2.0	7.3

주: 전국의 20 세 이상 인구 약 2,000 명에 대해서, 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가장 주된 원인을 질문한 결과

자료: “소년비행문제에 관한 여론조사” 1995·총리부

행실지도를 통해 청소년에게 정의감과 규범의식을 확고하게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평소에 따뜻한 애정의 유대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내면화의 작업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끈기 있게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성인은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녀에 대해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용기를 가지고 엄하게 꾸짖는 자세가 요구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만연하고 있으며 자립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배경에는 자신의 행동에 수반하는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기책임 의식의 결여”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다양한 인간의 덕성(德性)이 어떻게 획득되는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고교생은 미국에 비해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친이나 모친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매우 적은 편인데,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에서 그와 같은 경향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자료 22). 또한 행실지도의 측면에서 “5 살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항목의 응답결과를 검토해 보면, “예절을 갖추며 식사할 수 있다” “놀이하고 난 뒤에 뒷정리를 할 수 있다”와 같은 기본적인 행실에 대한 교육이 충분이 행해지지 않는 경향이 발견된다(자료 23).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책임감을 갖게 하는 등의 행실지도를 게을리 하고 자녀의 응석을 받아주는 부모가 적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행실지도는 우선 자신의 행동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위의 물건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등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정의 규칙을 만들어 가사를 분담시키는 것, 다양한 연령집단 속에서의 놀이와 여러 지역사회 활동을 체험하게 하는 등의 시도는 자녀에게 책임감을 갖게 하고 자립을 촉진시키는 데 불가결한 요소이다.

자료 22: 덕성의 획득에 영향을 준 사람

(단위: %)

	부친		모친		친구		없다	
	일본	미국	일본	미국	일본	미국	일본	미국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19.0	43.8	17.5	56.5	23.0	27.8	37.0	12.4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더라도 가능한 한 허용한다	15.1	33.6	22.6	62.1	25.8	24.6	37.1	10.3
싫은 일이더라도 꼭 참는다	18.9	51.0	27.6	55.9	18.4	33.7	37.9	5.9
자기 책임을 다한다	35.2	58.9	32.3	75.7	12.9	12.4	27.3	4.5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진다	15.2	32.9	30.9	54.1	18.5	12.8	37.6	23.5
타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인간이 된다	32.2	46.9	29.9	65.3	21.2	33.6	26.8	9.7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27.5	48.1	36.1	71.9	20.2	23.2	26.3	7.1
매사에 성실하게 임한다	27.8	39.3	25.3	67.6	12.2	21.3	35.3	10.6
밝고 명랑하게 생활한다	19.2	34.1	33.4	52.1	34.9	42.0	27.9	13.2
열심히 일한다	54.0	64.5	43.0	69.0	6.0	26.1	22.3	4.3
자신이 손해 보더라도 정당한 일을 한다	21.7	51.1	24.3	68.0	11.6	20.3	42.3	9.1
정직한 인간이 된다	32.3	62.3	38.6	80.3	16.1	31.4	31.5	6.6

주: 일본·미국의 고교생 각 1,0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 "덕성에 관한 조사" 1991·일본청소년연구소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한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복해서 자녀에게 지도하고 있는 가정도 적지 않다. 우선, 그와 같은 원

척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책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자료 23: 5 살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단위 : %)

	일 본	한 국	태 국	미 국	영 국	스웨덴
일상적인 인사를 할 수 있다	83.2	87.0	82.1	93.6	91.2	88.7
예절에 맞게 식사를 할 수 있다	72.0	73.5	93.0	95.0	92.8	91.2
몸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	65.0	55.5	81.3	90.2	89.4	80.5
놀고난 뒤의 뒷정돈을 할수있다	60.9	67.0	77.2	89.4	83.8	64.0

주: 0-12 세의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부모(각국 모두 약 1,000 명)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 "가정교육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1993·문부성

자기 자녀만 괜찮으면 모든 것이 무방하다는 생각을 버리자

성인들의 이기주의의 한 예로서 "자기 자녀만 괜찮으면 모든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개의치 않는 부모가 있다. 이와 같이 "자자주의(自子主義)"로 지칭될 수 있는 경향이 오늘날 가정에서의 행실지도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과잉간섭이나 과보호 등의 토양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부모의 태도와 자세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정의감과 사회규칙을 지키는 마음 등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의 매너를 무시하는 청소년, 친구가 이지매를 당해도 "자기와는 관계없다"고 방관하는 청소년의 배후에는 "自子主義"에 사로잡힌 부모의 모습이 존재하는 것이다. 부모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고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사춘기의 청소년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하자

사춘기는 청소년의 몸과 마음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재구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의 언동이 부모에게 당혹감을 주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이 경우 자칫하면 부모는 사춘기의 자녀를 미치 끓은 종기를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대하게 된다. 사춘기는 부모-자녀관계의 재구축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자녀를 “간섭은 않지만 지켜본다”는 부모의 자세는 사춘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현재 수수방관 상태로 방임하여 자녀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의 변화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과잉간섭에 몰두하여 자녀에게 “좋은 자녀”가 되기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자녀의 자립을 촉진하고 스스로의 책임을 자각케 하는 데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진지하게 반성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음주, 흡연, 절도 등과 같은 행동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경험율과 그 보호자의 인식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자료 24).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지 않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눈을 돌리고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인을 간과하고 있다.

“보통아이들”의 “돌발형” 비행을 예고하는 조짐을 간과하지 말자

최근의 소년비행의 특징의 하나로서 “보통아이들”의 “돌발형” 비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표면상 양전하게 보이는 청소년, 문제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성인이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돌발적으로” 교사에 대한 폭력이나 강도 등과 같은 비행을 저지르는 예가 적지 않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보통아이”여도 반드시 그에 앞서 심신의 문제를 호소하거나 사소한 것에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심하게 공격적이 되거나 하는 등 사인을 나타내게 된다. 문제는 그것을 부모가 간과하거나 혹은 발견하더라도 회피해 버린다는 것이다. 우려할 만한 사인을 발견

했을 경우 부모들은 차분하게 가정에서의 자녀지도 방식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 자녀와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 실마리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상담기관, 학교의 교사, 스쿨 카운셀러와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료 24: 불량행위에 관한 보호자의 인식과 자녀의 실태와의 차이

(단위: %)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보호자의 비율	원편 응답자 중에서 그 자녀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음 주	67.4	51.0
흡 연	88.4	17.0
유해약물	98.5	1.6
테레쿠라·투쇼트다이얼	92.0	13.0
블루세라 흡 이용	89.8	0.5
원조교제	95.2	0.4
절도행위	90.2	17.4

주: 전국의 중학 3년생 및 그 보호자(각각 약 1,7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 "청소년의 사회환경에 관한 앙케이트조사" 1997·일본 PTA 전국협의회

참고 7: 심각화하는 소년비행 - 전후 제 4 의 상승곡면

소년비행은 전후 세 차례의 피크가 있어서 세 번째의 피크였던 1983년 이래 감소경향에 있었지만, 근년에 다시금 양적·질적으로 심각화하고 있다. 1997년의 형법범 소년의 보도(補導) 인원은 약 15 만명에 달하여(전년대비 14% 증가) 소년인구 천명당 16명에 이르고 있다(자료 25). 소년비행의 내용을 보면, 강도 등의 흉악범과 공갈 등의 조폭범(자료 26), 약물남용, 성비행의 증가가 현저하다. 또한 비행의 주체로서 중·고교생이 증가하고 있고 "유흥비 마련"을 동기로 하는 비행의 증가, 매스미디어와 주위의 친구에 이끌리는 "모방"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소년비행의 심각화만이 아니라 범죄 피해를 입는 소년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97년에는 흉악범, 조폭범 등에 의한 피해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성범죄 피해(강간, 강제외설)가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할 만한 문제로서 사회전체 차원에서의 다양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자료 25: 형법범 소년의 보도인원 추이

(단위: 명)

	1993	1994	1995	1996	1997
보도인원	133,132	131,268	126,249	133,581	152,825
인 구 비	12.2	12.5	12.5	13.7	16.1

주: 인구비는 소년인구 1,000 명당 보도인원

자료: 경찰청 조사

자료 26: 흉악범·조폭범의 보도인원 추이

(단위: 명)

	1993	1994	1995	1996	1997
흉 악 범	1,144	1,382	1,291	1,496	2,263
강 도	713	911	856	1,068	1,675
조 폭 범	14,989	14,655	15,449	15,568	17,981
공 갈	4,674	5,406	5,658	5,712	6,361

자료: 경찰청 조사

주변의 작은 것부터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기르자

오늘날 지구온습화, 오존층의 파괴, 사막화 등의 다양한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과 더불어 대기오염, 소음문제, 수질오염, 쓰레기문제 등 도시·생활형 공해의 문제도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기르고 환경의 보전과 쾌적한 환경의 창조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힘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물건을 아껴 써서 쓰레기를 줄이고 바다나 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물과 전기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버릇을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게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신문의 기사나 학교에서 배운 것을 소재로 하여 환경보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가족간에 대화를 나누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상적인 작은 실천이 자녀에게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의 환경미화 활동 등에 참가하는 자세를 길러주며 지구규모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될 것이다.

3) 사려 깊은 청소년을 육성하자

조부모를 존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자

조부모는 오랜 인생경험을 통하여 자녀양육을 포함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지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조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조부모는 자녀에게 경험과 지혜를 가르치는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고령자로서 존경심을 가지고 사려깊게 대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자녀들이 조부모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조부모가 중요한 존재임을 자녀에게 잘 이해시켜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가 솔선해서 조부모를 소중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가 자신의 부모인 조부모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녀가 부모라는 존재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배려하는 마음은 널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심성이다. 일본·미국·중국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겠다”는 응답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자료 27). 우리 성인들은 자신이 부모를 모시는 방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결여된 사회의 모습을 청소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료 27: 고령 부모의 부양

(단위: %)

	일 본	미 국	중 국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겠다	15.8	46.4	66.2
100%는 아니지만 자신이 가능한 범위에서 부모님을 부양하겠다	75.2	38.3	32.8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부모 자신이 저축을 해서 살아가야 한다	2.2	2.2	0.4
공적 원조나 복지에 맡기겠다	1.3	0.8	0.1
잘 모르겠다	5.5	12.0	0.5
무응답	0.0	0.3	0.1

주: 각국 모두 전국의 고교생 약 1,0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 "일본·미국·중국 고교생의 효행에 관한 조사" 1995·일본청소년연구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배려하도록 하자

사회에는 몸이 약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창조적이고 활력 있는 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인간적인 동정심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사려깊은 마음은 어린 시절부터의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서 형성된다. 그러나, 지하철에서 고령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을 예로 들어보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전혀 하지 않는다" "하지 않을 때가 많다"가 7 할 정도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자료 28).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말을 거는 습관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부모 자신이 솔선해서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노인에게 자리를 양

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일상적인 실천으로부터 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표현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28: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다양한 체험

- “전혀 하지 않는다”.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응답률

(단위: %)

	1984	1995
자신의 하의 등을 세탁하거나 말리거나 하는 것	-	76.6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64.7	67.3
식료품 등을 사러 가는 것	50.6	64.5
집안 청소를 돕는 것	48.8	60.9
과일껍질을 벗기는 것(식칼이나 나이프로)	41.3	58.4
식사 준비나 식기 정돈을 돕는 것	46.0	49.8
이부자리나 침대 정리를 자신이 하는 것	36.2	49.4
다른 사람이 깨우지 않더라도 스스로 일어나는 것	41.9	45.8
이웃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	25.3	27.9
식사할 때 “잘 먹겠습니다”하고 인사하는 것	18.9	24.9
“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세요”하는 인사를 하는 것	27.5	24.3
식구에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외출하는 것	13.5	13.7

주: 1都5縣의 초등학교 4-6년생 및 중학 1,2년생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 “청소년의 자연체험·생활체험 등에 관한 조사연구” 1995·청소년교육활동 연구회

차별과 편견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자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성원 개개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정·공평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차별이나 편견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이지메에 가담하거나 타인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등의 언동을 할 경우 그와 같은 행동이 인간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문제는 성인 자신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시급하게 요청되는 문제이다. 청소년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부모의 언동을 잘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차별적인 의식은 그 언동을 통해서 자녀의 마음 속에서 재생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선 부모 자신이 편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명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생명의 중요성을 실감시켜주자

오늘날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청소년들이 조부모 등 근친자의 죽음을 목격하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죽음이라는 엄숙한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고 인간 생명의 유한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청소년들은 살인의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TV 게임 등을 통해 허구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죽음"에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어 생명의 중요성에 대한 감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의식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대자연 속에서 놀 수 있게 하거나 집 주위에서 동물이나 화초를 정성껏 기르는 등 다양한 생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이 곤충 등의 생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화초를 함부로 다루거나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부모는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생명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에게는 부모가 책을 읽어주자

청소년에게 독서는 상상력과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주어 풍요로운 감성과

정서, 그리고 사려깊은 마음을 함양하는 데 있어 중요한 활동이다. 독서의 즐거움을 알고 독서에 친숙해 지게 하는 데에는 유소년기의 체험이 중요하다.

우선 유소년기 시절부터 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것부터 시작하자. 부모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그림책에 접하여 함께 공감하는 것은 청소년의 감성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귀중한 경험이다. 독서에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책을 읽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식사시간, 낮잠시간 등과 동일하게 “독서시간”을 따로 정해서 책을 읽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녀가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은 부모 자신도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자녀의 마음의 성장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책의 선택은 자녀의 발달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적인 발달에만 신경을 써서 과도하게 어려운 책을 읽어주거나 글자를 일찍 깨우쳐 주려 하는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책을 기피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게 되기 때문에 삼가해야 한다.

4) 청소년의 개성을 존중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하자

유아기부터 청소년에게 평균치와 상대적인 순위를 매기는 것을 그만 두자

평균치와의 비교, 또는 편차치(偏差値) 등으로 나타나는 상대적인 순위에 사로잡혀 자녀의 개성을 중시하는 자세를 잃어버린 부모, 자녀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버린 부모가 많이 눈에 띈다. 시험의 편차치로 표현되는 척도가 가정에도 도입되어 이른바 “가정의 학교화”가 진행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유아기에 있어서도 신장과 체중 등의 신체면의 발달, 혹은 언어습득 등의 지적인 발달의 면에서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에 일희일비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지육(知育)에 편중된 조기교육으로 치달는 부모에게서 종종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성장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국제비교해 보면, 일본의 부모는 “만족”스럽다고 하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나라의 그것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자료 29). 그 원인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부모가 다른 자녀와의 비교에 몰두하거나 자신의 기대감을 우선시하여 오로지 그것을 평가의 척도로 하여 자녀의 개성을 경시해 버리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불만감은 자녀의 마음 그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교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국제비교해 보면, “공부 잘 하는 아이” “친구들로부터 인기 있는 아이” “정직한 아이” “친절한 아이” 등 모든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고 자신을 평가하는 응답률이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자료 30). 이와 같은 자기 비하감과 자존(自尊) 감정의 결여는 청소년의 개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평가한 데서 비롯된 결과로 생각된다.

부모는 우선 유아기부터 자녀의 평균치와 상대적인 순위에 몰두하지 말고 자녀의 개별적인 성장에 주목하여 그것을 중요시해야 한다. 형식적인 평등을 중시하는 획일적인 교육에서 개성 존중의 교육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교육개혁의 이념은 가정에서부터 그 실천이 시작되어야 한다.

자료 29: 자녀의 성장에 관한 만족감

- 자녀의 성장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일 본	한 국	태 국	미 국	영 국	스웨덴
0-3 세	68.7	78.7	68.5	93.1	92.7	94.4
4-6 세	53.7	61.1	67.0	88.5	89.1	89.2
7-9 세	47.3	57.8	69.4	82.8	78.1	84.6
10-12 세	36.3	52.9	74.1	84.5	83.3	82.7

주: 각국 모두 0-12 세의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부모 약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가정교육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1993·문부성

자료 30: 초등학교 5학년의 자기평가

-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동 경	서 울	북 경	밀워키	오클랜드	상파울로
공부 잘하는 아이	8.4	8.6	14.0	43.5	27.6	37.4
친구에게 인기있는 아이	9.8	11.2	31.6	35.4	28.9	32.0
정직한 아이	12.0	27.4	39.3	49.8	47.6	54.4
친절한 아이	12.3	26.4	41.0	59.1	46.6	50.6
일 잘 하는 아이	14.3	31.7	39.8	67.1	38.3	48.5
용기있는 아이	19.0	28.0	37.5	57.8	39.6	48.3
평 균	12.6	22.2	33.9	52.1	38.1	45.2

주: 각국 약 300-2,000 명의 초등학교 5년생(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청소년에게 있어서의 교사” 1995·베넷세교육연구소

청소년의 좋은 점을 칭찬하여 키워주자

자녀의 장점과 개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것을 찾아내어 적절하게 칭찬하는 것이 필요하다. 칭찬을 받음으로써 자녀는 즐거움을 느끼고 자존심과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어 활력 있게 자기 자신의 장점과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행실지도에 있어서는 “일곱을 칭찬하고 셋을 꾸짖어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부모들은 그것을 게을리 하고 있다. 부모는 보다 자주 자녀를 칭찬해 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진지하게” 칭찬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잘 관찰하고 자녀의 장점을 키워주어 훌륭한 인격 형성을 촉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자녀의 응석을 받아주거나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자녀를 칭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자녀에게 가정에서의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다. 가사를 돕는 자녀를 칭찬해 주어 “자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존

재이다" 라는 느낌(自己有用感)을 갖게 하는 것은 자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꾸짖는 방식에 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흔한 일이지만, 다른 아이와 비교하며 꾸짖는 것은 자녀의 자존심의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꾸짖어야 할 때는 꾸짖고 칭찬해야 할 때는 진지하게 칭찬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두고자 한다.

인간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앞으로의 사회에 관해서 청소년에게 얘기해 주고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들어보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6개국의 초동학생에게 "어떤 어른이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한 결과,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 "유명한 사람이 된다" "부자가 된다"는 등 모든 항목에 걸쳐서 일본의 청소년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상국 중 가장 낮다(자료 31). 이처럼 장래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고 꿈과 희망이 없다는 것은 그 실현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포기하거나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로 연결되기 쉽다. 단지 눈앞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경향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의 방식에 관한 청소년 의식조사에 따르면 "그날 그날을 즐겁게 보내고 싶다"라는 응답이 상위에 있고(자료 32), "지금보다는 장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데 동의하는 청소년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는 데(자료 33)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장래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 부모는 자기 자신의 경험과 보다 좋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하여 인간으로서의 삶의 방식에 관해서 자녀에게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급속한 사회변화의 한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과제에 직면해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 과제를 담당해야 하는가를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녀의 꿈과 희망에 귀를 기울이고 격려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나아가서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더불어 항상 “자신이 현재 어떤 인간이고 앞으로 어떤 인간이 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자료 31: 초등학교의 장래의 희망

-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동 경	서 울	북 경	밀워키	오클랜드	상파울로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	10.5	33.5	55.2	27.9	27.3	45.9
유명한 사람이 된다	11.8	39.1	26.1	19.7	25.2	20.6
부자가 된다	12.3	34.4	29.2	23.9	32.3	18.4
일을 통해 성공한다	20.6	60.2	51.3	52.7	48.5	44.0
좋은 부모가 된다	21.1	65.6	70.2	63.6	57.3	82.0
행복한 가정을 꾸민다	38.6	76.3	68.5	63.5	57.0	85.3
평 균	19.2	51.5	50.1	41.9	41.3	49.4

주: 각국 약 300-2,000 명의 초등학교 5년생(11세 이동)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청소년에게 있어서의 교사” 1995·베넷세교육연구소

자료 32: 청소년의 인생관(세상 사는 방식)

(단위: %)

	15-17 세	18-21 세
훌륭한 업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와 평가를 얻고 싶다	4.8	4.6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다	15.0	14.5
주위 사람과의 애정을 소중히 하면서 살고 싶다	23.4	31.4
사회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	9.2	7.5
자신의 취미를 중시하면서 살고 싶다	18.3	19.2
그날그날을 즐기며 살고 싶다	27.9	21.4

주: 전국의 15-17 세 인구 약 600 명, 18-21 세 인구 약 7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기본조사” 1995·총무청

자료 33: 장래를 위한 노력에 관한 가치관

- “현재보다도 장래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 대한 반응

(단위: %)

	일 본	중 국	한 국	터어키	미 국
매우 그렇다	18.7	55.7	48.3	54.4	25.2
대체로 그렇다	28.0	39.5	15.2	37.4	45.7

주: 각국 모두 약 1,000 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청소년의 비행적 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등 · 1993/4 · 中里也

5) 가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자

각 가정에서 생활의 규칙과 룰을 만들자

청소년은 가정의 규칙을 지킴으로써 기초적인 대인관계의 방식을 배우고 사회 규범의 중요성을 익히게 된다. 가정의 규칙으로는 예를 들면, 취침 시간, 문닫는 시간, TV 시청 시간, 인사 등과 같은 생활상의 규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도덕적인 규칙도 있다. 각 가정이 이와 같은 규칙을 분명하게 정해두면 행실지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그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원래 우리 일본인은 명확한 규칙을 내세우고 그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데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행실지도의 측면에서 가정에서 규칙을 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어떤 가정에서건 기본적으로 중요시해야 할 예의범절이 있지만, 어떤 측면에 특히 중점을 두는가는 가정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행실지도에 있어서 “우리집에서는 이렇게 한다” 라는 규칙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가 서로 상의하여 각 가정에 적합한 규칙과 룰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규칙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설명하여 자녀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우리가 이 장에서 다룬 다양한 제언들을 각 가정에서는 규칙을 만들 때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고려하기 바란다.

유아기부터 작은 일이라도 가사를 분담시켜 책임감과 자립심을 길러주자

편리함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회풍조 속에서 가정생활 영역에서도 가사의 기계화·합리화가 현저하게 진행되어 자녀에게 맡길 만한 일거리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학원과외 등으로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점차 여유가 사라지고 있다. 청소년이 가정에 있을 때에도 눈앞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봐야만 비로소 안심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배경으로 하여 자녀에게 가사를 분담시키는 데 무관심한 가정이 증가하여, 한 조사에 따르면 가사를 도운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자료 28).

가정에서 자녀에게 비록 작은 것이라도 일정한 가사를 분담하게 하는 것은 부모-자녀간의 대화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며, 자녀의 마음 속에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책임감과 자립심, 모두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자기유용감을 함양시킨다. 그리고 단순히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에도 눈을 돌려 스스로 그것을 담당하려 하는 전향적인 마음을 길려주게 된다.

부모는 자녀 성장에 있어서의 가사분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여 유아기부터 가사를 돕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때 비록 실수가 있더라도 부모가 즉시 도와 주지 않는 것,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했을 때에는 칭찬해 주는 것 등에 특히 배려해야 한다.

아침 인사부터 시작해서 예의를 몸에 익히도록 하자

예의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기 위해 몸에 익혀야 할 필수적인 것이다. 예의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 반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다.

대를 존중하고 중시하는 자세를 보여줌과 더불어, 친애의 정과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다. 대인관계를 넓히고 심화하는 첫걸음은 인사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평상시에 자주 인사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도 적지 않다(자료 28). 아침의 “안녕하세요”에서 시작하여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등 매일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인사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지도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언어가 점차 혼탁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손윗사람에게 올바른 경어를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부모 자신이 매일 자녀에게 인사를 통해 말을 거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서, 인사는 자녀와의 대화를 늘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특히 인사를 나눌 때의 자녀의 모습은 그 마음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식이 될 수 있다.

최근 지역사회 단위의 “인사하기 운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역의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인사해 주고 청소년들의 인사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해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바람직하다.

자녀에게 인내심을 길러주자 - 원하는 대로 물품을 사주게 되면 자녀의 마음의 왜곡시킨다

경제적인 부의 실현과 더불어 청소년을 둘러싼 물질적인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보면 대부분이 다양한 정보기기를 한두가지씩 갖고 있는 등 실로 풍요로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자료 34). 그러나 물질이 풍부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진 반면, 그것에 의해서 상실되어 버린 중요한 것들에 관해서 우리 일본인은 너무나 무감각하다.

안이한 태도로 원하는 대로 사주게 되면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상실하고 도리어 욕구를 무한히 확장시켜 그것을 제어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은 오늘날 거의 사어(死語)가 되어버린 느낌인데, 이것은 동시에 이 말의 배후에 있

날 거의 사어(死語)가 되어버린 느낌인데, 이것은 동시에 이 말의 배후에 있는 사물에 대한 외경심이 망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자녀를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언제나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라는 루소(1712-1778 프랑스 사상가)의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주위와의 비교에만 몰두하여 자녀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질과 고가의 물품을 사주어서는 안 된다. 심부름을 시켜서 자녀에게 적정한 수준의 용돈을 줌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돈을 사용하지 말고, 마음을 사용하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심화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34: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품

(단위: %)

	초등학교 (4-6년)	중학생	15-17세
1	자전거 94.6	책상 93.8	손목시계 92.3
2	책상 94.0	자전거 93.7	자전거 90.8
3	손목시계 75.9	손목시계 84.1	책상 90.1
4	TV 게임 71.5	카세트, 스테레오 75.6	카세트, 스테레오 87.0
5	전자계산기 52.7	TV 게임 66.3	자기 독방 78.6
6	형제와 쓰는 방 47.3	자기 독방 63.6	전자계산기 58.6
7	카세트, 스테레오 42.0	전자계산기 55.7	TV 게임 56.2
8	자기 독방 38.6	형제와 쓰는 방 32.0	자기전용 TV 36.2
9	피아노, 전자피아노 36.8	피아노, 전자피아노 31.8	피아노, 전자피아노 27.9
10	카메라 20.2	자기전용 TV 24.9	비디오테크 26.3

주: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생 각 약 1,000명, 15-17세 약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기본조사보고” 1995·총무청

가정내의 연중행사나 가족모임을 되돌아 보자

각 가정에서는 정월, 히나마츠리[역주: 3월 3일 여자아이의 명절에 지내는 행사], 다섯 명절[역주: 節句, 일본의 대표적인 다섯 명절, 특히 3월 3일과 단오(5월 5일)], 칠석 등 다양한 연중행사가 개최된다. 이를 계기로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가족 이외의 다양한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게 되어 지역사회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오랜 전부터 행해진 행사의 체험은 우리나라의 문화·전통에 친숙해지는 대단히 좋은 계기가 된다.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내의 행사가 어느 정도 관습으로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8할 이상의 가정에서 “선달 그믐에 메밀국수 먹기” “그믐날 대청소” “가족의 생일 축하연” “크리스마스 행사”가 실시되고 있고 성묘와 입춘 등의 행사도 지속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가정내 행사의 실시율의 관계를 보면 대체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강할수록 행사의 실시율이 높은 편이다. 이 조사결과(자료 35)는 가정내 행사가 가족과의 접촉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종교적인 정서를 함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가정내 연중행사가 지니는 의의는 매우 크다. 일본인의 종교관과 윤리관은 일상생활 그 자체와 깊이 결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정내 행사는, 예를 들면 새해 첫날 무병안녕을 기원하거나 가족이 함께 묘지를 참배하여 조상과 자신의 관계를 되돌아 봄으로써 인간의 힘을 초월한 대상에 대한 외경심을 심어주는 등 종교적인 정서를 함양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어 왔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효율성만을 추구하여 부모와 자녀 모두가 “여유”를 잃어가는 현대사회에서 가정내 행사는 점차 경시되고 있는 듯이 생각된다. 또한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예를 들면 축제 참여 등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즐거움과 가족의 일체감 등의 효용도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다양한 가정내 행사의 의미와 그 존재에 관해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 35: 가정내의 연중행사와 지역에 대한 애착심

- 가정 내 연중행사의 각 항목에 관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

(단위: %)

	전체의 실시비율 (평균)	千葉의 선호도			
		매 우 좋 다	대체로 좋 다	별 로 좋지않다	싫 다
경사가 있을 때 찹쌀떡밥을 먹는다	38.6	44.2	37.5	27.7	31.2
정월에 가족이 함께 절에 참배한다	48.3	53.3	47.5	43.3	32.9
입춘 전날에 콩을 뿌린다	69.9	75.8	69.3	59.8	54.8
종이로 인형처럼 장식한다	46.7	51.6	45.9	39.0	34.2
아동의 날에 창포물로 목욕을 한다	32.4	34.7	33.3	22.8	28.6
아동의 날에 대나무잎으로 싼 떡을 먹는다	46.5	48.5	48.3	36.5	35.5
국경일에 국가를 부른다	4.7	6.0	3.6	4.4	7.1
그믐에는 대청소를 한다	86.1	87.2	87.7	83.0	72.3
선달그믐에 메밀국수를 먹는다	86.7	88.0	86.1	86.4	74.0
가족의 생일을 축하한다	81.7	84.4	82.2	78.3	64.5
추분·추석에 성묘한다	70.5	76.2	69.5	61.6	59.7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거나 케이크를 먹는다	83.3	86.0	83.7	79.3	71.6
억새풀로 장식하고 달맞이를 한다	36.1	44.4	32.2	26.1	33.1

주: 1)千葉시내의 초·중·고교생 약 3,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2) “千葉의 선호도”란의 수치는千葉에 대해서 “매우 좋아한다” “대체로 좋아한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싫어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가정에 있어서의 연중행사의 실시비율

자료: “청소년:千葉애착심의 조사” 1997·千葉學연구회

한편 일본 고유의 전통적인 행사 못지 않게 예를 들면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는 홈 파티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힘을 자녀에게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된다.

이처럼 가정마다 제각기 새로운 행사를 만들어 가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자녀의 방이 닫혀있지 않도록 하자

가정의 규칙을 만듦에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으로서 자녀의 방 문제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4 할, 중학생이 되면 약 6 할이 자기방을 갖고 있다(자료 34).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부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방에 틀어박혀 지내면서 부모-자녀의 대화가 감소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부모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녀의 방이 범죄의 소굴이 되어 버리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 개개인에게 독방을 주게 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자녀에게 방을 언제, 어떻게 주는가에 관해서 부모가 그다지 배려하고 있지 않은 듯이 생각된다. 구미의 가정에서는 예를 들면 자녀방이 있더라도 자녀가 가능한 한 거실에 있도록 하고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자녀에게 방을 잠그지 못하도록 하거나 친구가 놀러와도 자기방에 가기 전에 반드시 부모에게 소회시키도록 하는 등 다양한 규칙을 정해 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부모가 자녀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방을 줄 때 그곳에 부모가 들어가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책무임을 먼저 자녀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청소년은 성장과 더불어 자신의 내면세계를 넓혀가고 다양한 "비밀"을 갖게 된다. 부모로서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기초하여 점차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태도를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이 방의 문제를 포함하여 자녀를 다루는 전제가 된다. 이와 같은 인식에 입각하여 각 가정은 자녀의 방 문제에 관한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참고 8: 자녀방과 가족의 배치

자녀방의 폐쇄성의 문제를 조장하는 요소의 하나로는 가족의 배치 문제를 들 수 있다. 자기방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실을 경유해야 하는 구미의 가족 구조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족은 모든 방이 복도에서 직접 현관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많아서 청소년이 고립되기 쉬운 환경을 갖추고 있다. 부모-자녀의 대화를 촉진하고 자녀방을 닫혀있기 않게 하기 위한 관점에서, 가족 회합의 장으로서 거실의 역할을 재인식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족의 형태변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제한 텔레비전이나 텔레비전 게임에 몰두하지 않도록 하자

청소년들이 자기 전용의 TV를 갖게 되면서 TV 시청은 청소년의 생활시간 속에서 커다란 비중을 점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의 평일 매스미디어 접촉시간은 평균 3시간 전후이며, TV 시청시간은 약 2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자료 36). 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과반수의 유아가 하루 2-4 시간을 TV 시청으로 보내고 있다(자료 37).

자료 36: 초·중·고교생의 매스미디어 접촉시간

(단위: 시간)

	평 균 시 간		
	초등생 (10 세 이상)	중학생	고교생
매스미디어 접촉	2:46	2:54	3:20
그 중 TV	2:16	2:03	2:07

주: 전국의 초·중·고교생, 각각 약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평일날)

자료: "NHK 국민생활시간조사" 1995·NHK

TV 게임과 비디오도 현재 대다수의 가정에 보급되어 많은 초·중·고교생이

이것을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다(자료 38, 39). 나이 어린 유아가 TV 게임을 즐기는 현상도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자료 37: 유아의 TV 시청

순 위	1 위	2 위	3 위	4 위	4 위
시 간	2 시간	3 시간	4 시간	1 시간	2 시간 30 분
비 율(%)	21	20	11	9	9

주: 1) 東京, 神奈川, 千葉, 埼玉의 1-6 세의 자녀가 있는 부모 약 3,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2) 하루당 시청시간을 질문하고 응답비율이 높은 순으로 나열한 것

자료: "유아의 생활 앙케이트 보고서" 1995·베넷세교육연구소

자료 38: 초등학교의 정보기기 소유상황

(단위: %)

	자기전용으로 갖고 있다	자기 것은 아니지만 집에 있다	집에 없다
1. TV 게임	51.7	39.6	8.7
2. 전자수첩	41.3	20.3	38.4
3. CD 카세트	34.2	61.5	4.3
4. TV	21.4	78.5	0.1
5. 비디오	13.1	85.3	1.6
6. 워드프로세서	8.9	50.8	40.3
7. 컴퓨터	3.7	32.4	63.9
8. 휴대전화	1.8	47.7	50.5
9. 호출기	1.3	22.4	76.3
10. 팩스	0.8	32.8	66.4

주: 東京, 神奈川, 千葉, 埼玉의 초등학교 5,6 년생 약 2,5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청소년과 미디어" 1997·베넷세교육연구소

자료 39: 중·고교생의 정보기기 소유·이용상황

(단위: %)

		소유 상황		이용 상황
		1996	1991	(1996)
중 학 생	비디오테크	91.8	73.8	57.7
	TV 게임기	81.9	70.8	51.0
	헤드폰 스테레오	66.7	53.1	35.4
	자동응답전화기	51.9	15.2	7.7
	워드프로세서	47.7	31.5	6.2
	휴대용 TV 게임기	42.9	29.0	14.4
	무선전화기	41.1	18.9	14.5
	휴대용 CD 플레이어	35.2	18.4	14.5
	전자수첩	33.8	-	9.9
	위성방송 수신장치	27.9	13.2	11.9
	휴대전화·PHS	26.0	4.5	0.5
	컴퓨터	24.8	18.7	6.2
	호출기	19.4	9.5	1.9
	케이블 TV	15.7	15.7	9.3
	팩시밀리	14.0	6.4	1.9
	아마추어 무선	3.1	-	0.3
고 교 생	비디오테크	94.3	78.0	61.1
	TV 게임기	80.0	62.2	51.2
	헤드폰 스테레오	71.6	57.5	36.2
	자동응답전화기	53.9	14.4	8.6
	워드프로세서	47.0	21.2	24.5
	휴대용 TV 게임기	46.2	33.1	7.7
	무선전화기	37.8	19.1	17.7
	휴대용 CD 플레이어	34.5	16.3	6.9
	전자수첩	33.1	8.4	22.7
	위성방송 수신장치	30.4	13.2	12.6
	휴대전화·PHS	27.0	18.8	7.0
	컴퓨터	24.1	-	6.1
	호출기	21.2	2.6	2.2
	케이블 TV	18.4	18.8	13.0
	팩시밀리	14.7	4.7	2.6
	아마추어 무선	3.2	-	0.3

- 주: 1) 전국의 중학생 약 1,000 명, 고교생 약 7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2) "소유상황"은 "자신의 집에 각 기종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이용상황"은 "각 기종에 대해서 평소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3) 1991 년 조사는 연령구분에 의한 것으로서 중학생, 고교생 모두 해당연령의 데이터를 이용

자료: "정보화사회와 청소년에 관한 조사" 1996·총무청

고도 정보사회에서는 청소년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많은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를 발신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과 성인간의 정보격차는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이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면 청소년의 지성과 감성을 자극하여 일상생활의 폭을 넓히고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 등을 통한 외국인과의 통신에 많은 청소년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자료 40).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보미디어에 대한 과도한 몰입은 청소년을 방안에 가두어 놓아 인간관계의 희박화, 직접체험의 부족,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악영향 등의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힘,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 등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여 공상과 현실의 혼동, 삶과 죽음에 관한 현실감각의 희박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 청소년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놀이와 자연체험 등의 직접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 참가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며, (2) 텔레비전이나 TV 게임 등에 자녀가 몰두하지 않도록 각 가정에서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습관화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가정에서의 규칙을 둘러싼 현실을 살펴 보면, 예를 들면 TV의 경우 시청 시간이나 시간대에 관해서 규칙을 정해 놓고 있는 가정은 절반에 못 미치고 "시청방식에 대한 지도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가정은 불과 2할 수준에 머물고 있다(자료 41).

부모는 텔레비전이나 TV 게임 등의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과연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전용기기를 주는 것이 적당한가의 여부를 재검토해

봐야 한다. 또한 왜 그런 규칙이 필요한가를 자녀에게 잘 설명하여 납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40: 인터넷 등을 통한 외국인과의 통신에 관한 의견

(단위: %)

	매 우 하고 싶다	대체로 하고 싶다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전혀 하고 싶지 않다	무응답
비 율	26.0	44.5	17.3	11.2	1.0

주: 전국의 초·중학생 약 2,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청소년의 정보통신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조사” 1997·총무청

폭력과 성에 관한 텔레비전·비디오 시청에 부모가 개입·관여하자

오늘날 폭력과 성에 관한 정보 등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유해정보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만연되고 있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유해정보를 비롯하여 잘못된 정보, 불필요한 정보 등에 매몰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힘을 길러주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동시에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에 관해서 어느 정도 부모가 주의를 기울이는가를 조사한 결과, “봐도 좋은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보게 한다”라는 부모는 3 할에 불과하고, “시청 시간량을 제한하고 있다”는 부친은 절반에 못 미치는 소수이다(자료 41). 유해성의 판단기준에 관해서도 일본의 부모는 외국에 비해 폭력적인 TV 프로그램 등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떠한 정보를 접하고 있는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유해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녀 스스로가 그와 같은 정보에 접촉하지 않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각 가정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부모가 구체적으로 자녀의 TV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시청 등에 개입하고 관여할 것
-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장면이나 노골적인 성적 묘사, 인권을 경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등은 부모의 판단에 따라 자녀가 볼 수 없도록 하고 그것을 가정의 규칙으로 삼을 것
- 청소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TV 프로그램이나 비디오를 자녀와 함께 시청하고 그 내용을 화제로 삼아 자녀와 대화를 나눌 것

TV 게임이나 PC, 인터넷 등에 관해서는 자녀가 자기방을 잠귀놓고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안이하게 전용기기를 사 주는 것은 특히 경계해야 한다.

자녀의 친구가 어떤 정보기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주거나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시청해 왔기 때문에 보는 것을 허락하는 등의 안이한 사고 방식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자료 41: 가정에서 TV 시청에 관한 결정

(단위: %)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봐도 좋은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보게 한다	27.1	70.1	2.7
봐도 좋은 시간대를 정해놓고 보게 한다	48.2	48.9	2.9
하루 중 볼 시간의 양을 제한하고 있다	44.6	52.5	2.8
TV에서 떨어져서 보도록 지도하고 있다	88.9	9.2	1.9
시청에 대하여 엄격하게 지도하는 편이다	23.6	73.4	3.0

주: 전국의 초·중학생 자녀를 가진 PTA 회원 약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자녀를 가진 부모가 TV에 기대하는 것" 1995·일본 PTA 전국협의회

6) 놀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자

"놀이"가 특히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단계에서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자

친구와의 놀이는 청소년의 마음의 성장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유소년기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하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감각을 활성화하여 운동을 하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상상하게 된다.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인내심 등의 덕목을 함양하게 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힘, 집단의 규칙을 지키는 마음, 인내심과 책임감, 적극적인 의욕과 자발성 등이 함양되어 소년기에 요구되는 건전한 발달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놀이 현실을 보면, 놀이의 기회 그 자체가 감소함과 더불어 옥외에서 함께 어울려 놀기보다는 옥내에서의 "고립형 놀이"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 그 양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 조사에서 초·중학생의 "자주 같이 노는 친구의 수"는 "2~3 명"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6명 이상"의 비율은 현저하게 저하하고 있어(자료 42)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어울리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자료 42: 자주 같이 노는 친구의 수

(단위: %)

	1 명	2~3 명	4~5 명	6 명 이상	모르겠다
1991	4.2	32.5	28.6	26.7	8.0
1986	3.5	27.2	28.4	32.4	8.5

주: 초등학교 5 학년에서 중학교 3 학년 학생 중 평소 같이 노는 친구가 "정해져 있다"고 응답한 학생에게 친구의 수를 질문한 결과

자료: "아동환경조사" 1991·후생성

또한 유아의 경우에도 장남감을 가지고 놀기보다는 텔레비전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모친에게 밀착해서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고 밖에서

노는 것을 싫어하는 등의 “놀지 못하는 아이”가 급증하고 있다. 이 문제는 동시에 “놀게 하지 않는 부모” “자녀와 잘 놀지 않는 부모”의 존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단계의 자녀를 가진 부모는 우선 이 시기의 놀이가 지닌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이를 경시하고 오직 공부만을 강요하는 등 자녀의 생활을 부모의 뜻대로 하면 자녀의 마음의 성장은 심하게 왜곡될 수 있다. 오늘날 지육(知育)에 편중된 조기교육에 몰두하는 부모의 급증과 더불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공부가 제일이고 놀이는 끝이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부모도 적지 않다. 지육 우선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녀가 어릴 때에는 친구와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놀게 하자

오늘날 청소년들은 자연 속에서의 놀이의 기회를 잃어 버리고 놀이의 양태도 옥외에서 옥내로 변화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노는 장소를 보면 자기 집 혹은 친구의 집에서 노는 경우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자료 43). 이와 같은 경향은 청소년의 심신의 성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들이 텔레비전만을 보거나 TV 게임 등 옥내에서의 놀이에 몰두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야외에서 노는 즐거움을 청소년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자연 속에서의 놀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자연 속에서 경이와 감동을 체험하고 풍요로운 감성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자연과 환경에 관해서 배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것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향토와 국토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되고 인간을 초월한 존재에 대한 외경심을 기르는 좋은 기회도 된다.

부모는 가능한 한 자녀를 자연 속에 데리고 나가 마음껏 놀게 하고 동·식물 등 자연과의 접촉을 촉진하고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자연과 친숙해 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활동에 어린 시절부터 가족단위로 참가하거나 때로는 부모의 손길에서 벗어나 청소년 혼자서 참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모 자신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와 같은 활동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불런티어로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43: 초등학생의 놀이장소

- 초등학생이 자주 노는 장소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남	1984	공원·그라운드·광장	학교운동장 (교정)	자신의 집	친구의 집·이웃집	자기집 뜰·집주변
	1988	공원·그라운드·광장	자신의 집	학교운동장 (교정)	친구의 집·이웃집	자기집 뜰·집주변
	1994	공원·그라운드·광장	학교운동장 (교정)	자신의 집	친구의 집·이웃집	자기집 뜰·집주변
여	1984	공원·그라운드·광장	자신의 집	학교운동장 (교정)	친구의 집·이웃집	자기집 뜰·집주변
	1988	자신의 집	공원·그라운드·광장	친구의 집·이웃집	학교운동장 (교정)	자기집 뜰·집주변
	1994	자신의 집	친구의 집·이웃집	공원·그라운드·광장	학교운동장 (교정)	자기집 뜰·집주변

주: 전국의 초등학생(4-6년생) 약 1,200 명을 대상으로 조사(복수응답)

자료: “초등학생의 생활과 문화조사” 1994·NHK

마음의 성장을 왜곡하는 지육(知育)에 편중된 조기교육을 재검토하자

오늘날 초·중학생의 학원과외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편 저연령화가 진행되고 있다(자료 44). 또한 그와 같은 지적(知的) 교육을 일찍부터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유아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도시의 유치원·보육소의 아동을 대상으로 행한 조사에서 학원에 다는 아동이 약 1 할, 통신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이 약 2 할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0 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자료 45). 이와 같은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에서는 상당히 어린 시기부터 知育에 힘을 쏟고 있는 부모가 적지 않다.

자료 44: 초·중학생의 학원과외율의 추이

(단위: %)

	1976	1985	1993
초등학교 1 학년	3.3	6.2	12.1
2 학년	4.8	10.1	14.1
3 학년	7.5	12.9	17.5
4 학년	11.9	15.4	23.6
5 학년	19.4	21.1	31.1
6 학년	26.6	29.6	41.7
초등학생 평균	12.0	16.5	23.6
중학교 1 학년	37.9	41.8	52.5
2 학년	38.7	44.5	59.1
3 학년	37.4	47.3	67.1
중학생 평균	38.0	44.5	59.5

주: 초·중학생이 있는 세대 63,000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1993 년 조사)

자료: "아동·학생의 학교외 학습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1976, 1985

"학습학원등에 관한 실태조사" 1993·문부성

지육에 편중된 교육을 위해서 유아의 놀이나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줄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유소년기부터 오직 공부만을 강요받은 아동이 초·중학생의 단계에는 이미 지쳐버려 자발적인 학습의욕을 상실해 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교육으로 인한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이다. 즉, 다른 아이들과의 상대적인 비교에 몰두하는 경향, 신속하게 성과를 얻기 위해 자녀를 몰아세우는 태도, 자신의 페이스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게 하기 보다는 정해

진 답을 성급하게 요구하는 경향, 생활 전체에 걸쳐서 과잉간섭하게 되는 경향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이른바 “조기교육적 분위기”는 자녀 마음의 풍요로운 성장을 현저하게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다.

자료 45: 유아의 학교외 교육의 상황

(단위: %)

	1997	1987
학교외 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전체)	27.2	4.3
학습학원에 다니고 있는 비율	10.8	2.7
통신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	18.2	1.6

주: 1) 東京, 名古屋의 유아가 있는 약 200 세대에 대한 조사

2) 복수응답이 가능했기 때문에, 학습학원, 통신교육 수강율의 합계는 전체 수강율과 일치하지 않음

자료: “아동의 교육비” 1997·東海은행

청소년의 생활에 시간과 여유를 주자

청소년의 놀이가 질·양적으로 모두 궁핍해진 것은 생활시간과 여유의 절대적인 결핍과 깊은 연관이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많은 아이들이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학교, 학원, 자택에서의 공부 등으로 시간에 쫓기고 있어 놀이의 시간은 줄어들고 그 내용도 실내에서의 고립형 놀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놀 수 있는 여유를 상실한 오늘날과 같은 상황은 청소년의 성장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다. 조사에 따르면, “밤에 잠을 못 이룬다” “쉽게 피곤해진다”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는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자료 46).

청소년은 여유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마음껏 놀이를 즐기고 자기 나름대로의 놀이방법을 고안해 내고 개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앞으로의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 풍요로운 인간성, 건강과 체력으로 이루어진 “살아가는 힘”이다. 그리고 학교나 기업도 “살아가는 힘”을 평가하고 중시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힘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청소년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놀이를 포함한 다양한 체험을 축적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어린 시절부터 시간에 쫓기고 오직 지식을 얻기 위해 하는 공부만으로는 “살아가는 힘”이 길러지지 않는다. 부모는 이와 같은 세상의 변화에 주목하여 용기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시간과 여유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 주 5 일제 실시로 인하여 얻어진 자유로운 시간이 청소년의 놀이 재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야 할 것이다.

자료 46: 청소년의 스트레스

- 각 항목에 관해서 “있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초등학생	중학생	고교생
밤에 잠을 못 이룬다	33.7	34.8	30.1
쉽게 피곤해진다	27.9	45.7	47.8
아침에 식욕이 없다	26.5	41.4	39.7
아무 이유없이 소리를 지르고 싶다	-	25.8	29.7
아무 이유없이 짜증이 난다	-	26.4	29.2

주: 1) 초등학생은 “자주 있다”, 중·고등학생은 “자주 있다” “가끔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합계

2) 전국의 초등학생(4~6 학년) 약 1,200 명, 중학생 약 1,700 명, 고등학생 1,4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초등학생의 생활과 문화” 1994

“중학생, 고교생의 생활과 의식” 1992·NHK 여론조사

7) 다양한 연령집단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자

지역사회의 볼런티어·스포츠·문화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지역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자

다양한 연령집단 속에서 청소년은 인간관계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 나이 어린 아이들은 규칙을 지키는 것과 인내심의 중요성 등을 체득한다. 나이가 든 청소년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집단을 리드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

지역사회 내의 볼런티어·스포츠·문화활동, 청소년단체 활동은 각각 사회공헌의 정신을 길러주거나 심신을 연마하고 정서를 풍요롭게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의 목표를 갖고 있고, 다양한 연령집단 속에서 청소년들이 배우고 익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축제나 마을 행사,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 대회, 환경미화나 방재활동, 도서관·공민관과 복지시설 행사, 외국인과의 교류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청소년들이 지역의 전통과 문화에 눈을 돌리고 지역의 자연과 사람들과의 연계관계를 실감하고 애착을 느끼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지역의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가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특별히 단체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약 3 할, 중학생은 약 8 할에 달한다(자료 47). 또한 지역의 행사 등에 관해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자료 48).

- 부모는 다양한 연령집단에서의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변 지역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자녀를 참가시켜야 한다.
- 지역의 활동은 지역주민의 볼런티어 활동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일부 부모들에게만 그와 같은 역할이 기대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 자신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가하여 자녀와 함께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인사하기 운동”이나 “작은 친절운동” 등 특징있는 시도가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협력할 것이 요망된다.

자료 47: 초·중학생의 단체가입 상황

(단위: %)

	초등학교 4-6년생	중학생
어린이회	51.1	7.7
스포츠관계 단체	25.7	5.2
문화관계 단체	1.6	1.0
청소년단체	1.9	1.3
그밖의 단체	0.8	0.5
특별히 가입한 단체가 없다	32.2	84.7
무응답	0.5	0.4

주: 전국의 초등학생, 중학생 각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기본조사보고” 1995·총무청

자료 48: 초·중학생의 지역활동 참가

(단위: %)

	초등학생 (4-6년생)	중 학생	15-17세
1	마을의 축제 66.6	마을의 축제 46.1	이중에는 없다 39.0
2	어린이회등의 운동회 61.2	모금 33.2	지역의 축제 28.9
3	모금 31.9	이중에는 없다 26.2	모금, 헌혈 25.8
4	공원등의 청소, 마 을의 파난훈련등 22.7	어린이회등의 운동 회, 크리스마스모임 18.9	노인·지체부자유자 에게 자리 양보 20.3
5	공민관·이동관등의 강좌 12.3	노인·지체부자유자 에게 자리 양보 11.4	지역의 레크리에이 션 대회등 7.2
6	이중에는없다 8.9	공원등의 청소, 마 을의 파난훈련등 10.6	지역의 청소, 방재 등의 활동 6.5
7	어린이회등에서 리더활동 8.6	외국인과의 교류 8.0	노인·지체부자유자 시설 방문 4.6
8	노인·지체부자유자 에게 자리양보 8.2	노인·지체부자유자 의 시설 방문 5.9	공민관·청년관 등의 강좌 2.9
9	외국인과의 교류 7.1	공민관·이동관 등의 강좌 4.5	국제교류에 관한 활동 2.4
10	노인·지체부자유자 시설 방문 3.4	어린이회등에서 리더활동 3.0	무응답 2.4
11	무응답 0.9	무응답 0.9	지역의 청소년 지도·보호 1.4

주: 전국의 초등학생·중학생 각 1,000 명, 15-17 세 인구 약 6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기본조사보고” 1995·총무청

3. 지역의 힘을 되살리자

가. 지역에서 자녀양육을 지원하자

모든 부모가 거치게 되는 모자보건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바람직한 자녀양육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는 기회를 지역에서 다양하게 고안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정교육을 지원하는 노력의 하나로서 각 지역에서 모든 부모가 통과해야 하는 모자보건의 기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그 좋은 예로서 우선 모자 보건수첩의 교부를 들 수 있다. 법률상 임신한 여성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고 수첩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다. 출생 후에는 1년 6개월된 아동의 건강진단, 3세 아동의 건강진단이 실시되고 있고 대상자의 9할 정도가 진료를 받는 등 사실상 대부분의 부모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행해지는 취학시 건강진단에도 대부분의 부모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들 기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 모자 보건수첩 교부시에는 양친(兩親) 학습에 대한 안내나 육아불안에 대한 대응 등 산전·산후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행하고 있는데, 보다 폭 넓게 유아기의 바람직한 지도방법에 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가정교육에 관한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소개하거나 참가를 촉구하는 것
- 1세 6개월 또는 3세 아동 등의 집단검진의 경우,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택하여 자녀 지도방법에 관해서 전문가의 강연을 듣거나 비디오나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부모들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주최하는 가정교육 학습을 개설하는 것, 가정교육상담 코너를 설치하는 것.

- 유아의 개별진단의 경우에는 비디오 등의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부모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수시로 지도방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모자 보건수첩의 교부시, 혹은 건강진단 시에 지방 공공단체가 가정에서의 지도방식이나 마음의 성장에 관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가정교육의 자료를 읽기 쉬운 간편한 책자(예를 들면 “부모-자녀수첩” “가정교육수첩” “자녀지도수첩” 등)로 작성하여 부모에게 제공하거나, 가정교육상담창구에 관하여 카드 등으로 안내하고 다양한 가정교육의 학습기회 참가를 호소하는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학급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취학시 건강진단에도 유아 건강진단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는 것

이들 활동에 있어서는 문부성과 후생성, 지자체 모자보건 담당부서와 교육위원회, 혹은 교육위원회 내의 관계부서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모자 보건수첩의 교부시에 부록본으로서 “父子수첩”을 함께 제공하는 등의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부친의 육아참가, 가정교육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부친의 적극적인 자녀양육 참가 필요성을 설명한 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참고 9: 모자보건사업과 가정교육사업의 협력

1997년에 개정 모자보건법이 시행되어 모자보건사업의 실시주체가 시정촌(市町村)으로 일원화된 것을 계기로 시정촌 교육위원회 등이 실시하는 가정교육사업과의 협력이 크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모자보건부서에서 실시하는 양친학급에서의 가정교육 자료 활용, 유아 건강진단에 병행하여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주최하는 가정교육 학급 개설, 교육위원회가 작성한 가정교육 전화상담의 안내 가이드를 모자 건강수첩의 부록본으로 첨부하는 등의 연구가 일부 행해지고 있지만, 모자보건 부서와 교육위원회가 보다 긴밀한 협

력관계하에 각종 사업을 폭 넓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4 시간 부모가 부담 없이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핵가족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녀양육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부모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지메나 부등교(不登校) 등의 문제로 고민을 안고 있는 부모도 적지 않다. 그와 같은 부모는 통상 배우자나 부모-형제·자매, 친구 등과 상담하는 일이 많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각 지방 공공단체에서는 공적인 기관이나 다양한 단체 등과 협력하여 상담체제를 충실히 구축할 것이 요망된다.

현재 학교나 스쿨 카운셀러, 유치원이나 보육소에 상담하는 경우는 별도로 하고, 유아기에는 보건센터, 보건소, 청소년기에는 교육센터, 경찰의 소년상담 창구, 아동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등이 각 지역의 주된 상담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민간기업이나 단체도 자녀양육 상담에 임하고 있다.

- 각 지방공공단체에서 우선 부담 없이 부모가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주간에 일정한 시간을 설정하여 상담기관을 방문하는 부모에 대해서만 면담하는 형태로는 다양한 상담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다. 항상 부담 없이 고민을 상담하고 필요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전화, 전자메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24 시간 자녀양육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관계기관 및 볼런티어의 협력을 통하여 구축하는 것이 요망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프리 다이얼 카드(free dial card)를 부모에게 배부하여 부담 없이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도가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상담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각 기관에서는 상담자의 욕구에 따라 보다 적절한 상담기관을 소개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각

지역에서는 상담기관간 협력회의를 보다 충실히 하고, 관계기관의 가정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수집과 사업 기획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교육지원센터”를 정비하는 것 등이 기대된다.

- 나아가서 자녀를 둔 부모와 지역의 자녀양육 유경험자와의 교류기회나 부모들이 서로 자녀양육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이 협력하여 자녀양육 지원 그룹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행정기관에서는 정보제공, 활동의 장이 되는 시설이나 전문가를 알선하는 등의 활동 외에 그와 같은 활동의 중핵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자녀양육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요망된다.

참고 10: 청소년에 대한 24 시간 상담체제

청소년에 대한 24 시간 상담체제를 정비하여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고민에 대해 조언하거나 이지메 문제 등에 정확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 분야에서 선진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민간단체 “차일드 라인”이 1976년 설립 이래 24 시간 프리 다이얼을 통해 60만명 이상의 청소년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청소년의 전화에는 약 800명에 달하는 볼런티어 상담원이 대응하고 있다.

전화 등에 의한 24 시간 상담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공공단체의 운영 예나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생명의 전화”와 같은 예가 있다. 또한 국립교육회관의 “이지메문제대책 정보센터”에서는 야간에 자동응답전화와 FAX 등에 의한 24 시간 접수체제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시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정교육 카운셀러를 배치하여 자녀양육 지원에 활용하자

자녀양육의 고민이나 불안을 품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 상담의 시간과 창구를 충실히 하고 적절하게 조언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담원의 질과 양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퇴직교사나 자녀양육을 경험한 지역 주민 등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볼런티어로서 협력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늘날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여 가정의 환경도 다양화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마음의 문제는 점점 복잡성을 더해가고 있어 지금까지의 자녀양육의 경험만으로는 적절한 조언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임상심리사나 정신과 의사 등, 임상심리학, 발달심리학, 정신의학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겸비한 인재로서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가정교육 카운셀러”로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정교육 카운셀러는 가정교육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담기관에 의뢰된 다양한 고민과 불안 중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을 일반 상담원으로 부터 인계받아 대응하는 일과, 일반 상담원이 어떻게 부모에게 조언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경우 앞으로의 대응방법에 관해서 지도·조언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상담내용을 검토하여 보다 적합한 다른 상담기관 등을 소개함으로써 관계기관간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참고 11: 가정교육 카운셀러 활용 조사연구

가정교육에 대한 고민과 불안을 안고있는 부모가 증가하고 있어 문부성은 1998 년도부터 “가정교육 카운셀러 활용 조사연구 위촉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은 종래의 가정교육 전화상담 등과 제휴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진 “가정교육 카운셀러”를 활용하여 상담체제의 충실·강화를 기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각 지자체에 위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임상심리사와 정신과 의사 등이 공민관 등 사회교육시설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카운셀링을 하

여 상담자의 심각한 고민과 불안을 완화시키고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가정교육 카운셀러의 자질 향상과 실효성 있는 상담체제의 구축방안에 관해서 연구협의를 행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가정교육 카운셀러가 유효하게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중·고교생이 유아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오늘날 청소년에 대한 애정이 결여된 부모와,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와 책임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는 부모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것은 자녀양육의 기본이지만, 자녀를 좋아하지 않는 모친이 상당수에 달하는 등 우려할 만한 상황에 있다. 그 배경의 하나로서는 부모의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유아와의 접촉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유아와 접촉하는 기회가 많았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발견된다고 한다.

현재의 청소년에게 눈을 돌려 보면, 소자화(少子化)에 의해서 형제·자매의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신생아가 탄생하여 부모가 유아를 기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나 자신이 직접 유아를 돌보거나 접촉하는 체험이 적어지고 있어, 생명의 존엄성과 아름다움, 양육의 어려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자료 49).

학교에서의 가정과(家政科) 교육을 통해 부모로서의 중요성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실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청소년들, 특히 다감한 시기인 중·고교생이 실제로 유아와 접촉하여 같이 놀고 돌봐 주는 체험을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유치원, 보육소, 보건센터, 보건소, 유아원 등에서 중·고교생이 체험학습이나 볼런티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 관계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그와 같은 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학교의 학점 단위로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자료 49: 유아와 접하는 생활체험

· “한번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1995	1984
아기의 기저귀를 갈거나 잠시중을 들었다	69.4	65.7
갓태어난 신생아를 본 경험	41.9	41.1
이웃의 아기를 돌보아 준 경험	36.4	27.3
아기를 안아본 경험	29.2	30.1

주: 초등학교 4-6년생 및 중학교 1,2년생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청소년의 자연체험·생활체험등에 관한 조사연구” 1995·청소년교육활동 연구회

가정교육의 학습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자

오늘날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기회로서는 공민관(公民館) 등 사회교육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가정교육 학급이나 비디오 교재, 텔레비전 방송 등이 있는데, 보다 폭 넓게 지역의 부모들이 학습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 대부분의 젊은 부모가 참여하는 1세 6개월, 3세 아동 건강진단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가정교육 학급이나 강연회를 개최하고 비디오나 영화 등의 시청각교재를 활용한 학습기회를 마련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가정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 사춘기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 대한 가정교육의 학습기회를 보다 충실히 한다.
- PC 통신이나 인터넷 등의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부담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 부친의 가정교육 참가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부친을 대상으로 한 여러가지 시도를 전개한다. 예를 들면 부친의 직장인 기업 내에 가정교육 학습의 장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부친의 수강을 촉구한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증

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토·일요일이나 야간 강좌를 늘려서 양친이 함께 참가할 수 있게 한다.

- 조부모 등이 손자의 교육에 관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로서, 최근의 가정과 자녀양육 환경의 변화, 청소년의 마음의 문제 등에 관하여 조부모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이상은 모두 각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따라 곧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서와의 협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시도하기를 기대한다.

기업중심 사회에서 "가족에게 따뜻한 사회"로 전환하자

일에만 치우쳐 가정의 일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 중심의 가치관이 성인 남성들 사이에서 만연되어 있고, 또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고정적인 성별 역할분담 의식이 의연히 뿌리 깊게 잔존해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의식과 가치관으로 인하여 사회 전체에 걸쳐서 기업 중심의 시스템이 구축·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마음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점차 활성화되고 남녀 공동참여 사회의 실현이 요청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중심의 사회형태에 관한 본격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자녀의 양육환경 측면에서도 기업 중심의 사회시스템 아래 부부가 시간적·정신적인 여유를 상실한 것도 한 요인이 되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만연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소자화(小子化) 현상을 심화시키는 배경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부친이 가정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모친도 사회 속에서의 자기실현을 지향할 수 있는 사회, 부부가 "여유"를 가지고 즐기면서 일치 협력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 즉 "가족에게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 육아휴업이나 장기휴가의 시행을 촉진하는 것,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의 탄력적인 노동시간 제도의 보급을 모색하는 것, 육아를

위해 퇴직한 사람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 우리나라에 특징적인 단신부임(單身赴任)을 줄이는 등의 방향으로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배려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참고 12: 단신부임(單身赴任)과 고등학교의 전입학

경제활동의 광역화와 국제화 등이 진전됨에 따라 부친의 단신부임이 증가하고 있다. 배우자를 가진 30-59 세 남성의 단독세대 수의 추이를 보면, 1975년에는 14 만 1 천 세대였지만, 1994년에는 32 만 1 천 세대로 2.3 배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택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을 명받았을 경우, 자녀가 어릴 때에는 가족을 동반하는 동반부임을 선택하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단신부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 배경의 하나로는 부친의 전근에 뒤따르는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학생 전입학이 원활하게 실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와 고등학교에서는 전입학 등의 접수기회 확대, 수험 절차의 간소화·탄력화, 특별 정원의 설정, 정보제공체제와 상담창구의 정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8 년도의 공립고등학교에 있어서의 특별정원을 보면 26 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약 2,000 개교가 그 설정을 예정하고 있다. 문부성은 전입학자 등의 접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1997 년 12 월, 특별정원을 미리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정보제공하는 등의 업무추진을 요청하는 통지를 각 지자체에 발송한 바 있다. 앞으로 자녀 전입학의 곤란성을 이유로 행해지는 단신부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고등학교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다양한 연령집단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풍부하고 다채로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자

1) 장기간의 자연체험 활동을 진흥시키자

민간의 힘을 빌어서 장기간의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자

자연체험에 의해서 청소년은 자연의 아름다움, 신비성, 엄격함을 실감하고 감동과 놀라움 속에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연령집단 속에서 행해지는 자연체험 활동을 통해 자주성, 협조성, 인내력, 사회성 등을 기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자연체험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예를 들면 “높이 1,000 미터 이상의 산을 걸어서 동반한 경험” “야외 텐트에서 잔 경험”이 한번도 없는 청소년이 과반수 이상으로서 자연 속에서 놀거나 생물과 접촉하는 등 다양한 자연체험의 기회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자료 50).

과거와는 달리 그대로 방치해 두면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풍요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부모나 사회가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의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입각하여 우리는 자연체험의 기회를 보다 폭 넓게 청소년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자연체험 프로그램의 충실을 위해서 특히 요청되는 것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이제까지 자연체험 프로그램은 학교, 지방자치체, 청소년교육시설, 민간단체 등에서 제공해 왔는데, 1박2일 정도의 짧은 일정이 대부분을 점하였다. 이처럼 일정이 빠듯한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자연체험 활동의 의의가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 앞으로는 기간의 장기화를 모색하여, 구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 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부모와 떨어져서 다

양한 연령집단의 아이들과 어울려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 요청된다.

-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인솔 중심의 자연체험 프로그램이 널리 행해지고 있지만, 장기의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학교에 의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학교를 포함한 공적인 기관에 의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민간단체나 기업의 역할이 기대된다. 청소년단체나 야외활동단체가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민간 교육사업자나 여행업자·관광업자 등 민간 기업이 운영의 주체가 되는 형태의 자연체험 프로그램이 널리 보급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공익성이 높은 활동의 경우에는 공적 기관이 거의 모든 것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폭 넓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상업 베이스의 사업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부모가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는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장기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 정비가 요청된다. 활동의 장에 관해서는 기존의 공적인 시설을 적극적·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 등은 경영체제와 조직기반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필요한 지원을 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학교 인솔 사업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와 동일한 형태의 지원이 요망된다.
- 프로그램 내용의 충실을 기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관·민이 협력하여 보다 훌륭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지도자의 확보를 위해 종래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는 다양한 지도자 양성·연수의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등교육 레벨에서의 전문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코스 등을 충실히 운영하는 것이 요망된다.
- 장기 자연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것이 자주성과 사회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지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가하여 배우는 것도 의의가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두가지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50: 청소년의 자연체험활동 상황

-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1995	1984
높이 1,000 미터 이상의 산을 걸어서 올라간 것	68.0	54.3
야외에서 텐트안에서 잠을 잔 일	60.9	58.4
스키를 탄 일	48.6	60.7
나무열매, 들꿀, 나뭇가루 등을 먹은 일	48.6	32.0
일출과 일몰을 본 일	43.0	19.7
샘물을 마신 일	42.9	37.0
낚시를 한 일(양어장 제외)	36.3	20.7
가족과 함께 바다나 산으로 간 일(1년 이내)	27.8	23.9
자기 키보다 높은 나무에 올라간 일	27.6	15.2
밖에서 불을 피운 일	24.4	10.2
바다나 강에서 수영한 일	16.6	-
나비나 잠자리를 잡은 일	14.8	4.1

주: 초등학교 4-6년생 및 중학교 1-2년생 약 2,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청소년의 자연체험·생활체험등에 관한 조사연구” 1995·청소년교육활동 연구회

참고 13: 미국의 캠프

전미 캠프협회(ACA)에서 발행한 가이드에 기초하여 미국 캠프의 전체적인 상황을 개관해 보면, 전국의 캠프장 약 1만 1천 개소 중 ACA 공인의 숙박형의 캠프장은 1,500 곳이다. 이것을 실시 주체별로 보면 보이스카우트와 YMCA 등 청소년단체가 약 4 할을 점하고 이밖에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사기업 등이 있다. 공적 기관은 1% 남짓하여 극소수이다.

캠프의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에 행해지는 섬머캠프가 압도적으로 많다. 각 캠프장은 2주간, 4주간, 6주간 등 몇가지의 코스를 개설하고 있다. 4주간의 코스를 개설하고 있는 캠프장은 전체의 약 2 할, 8주간의 코스를 개설하고

있는 캠프장도 1 할 이상에 달하여, 미국의 청소년들은 장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캠프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활동으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수영, 승마, 캠프기술, 모험활동, 카누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여름 캠프에서는 청소년의 자주성을 중시하여 부모의 동반 참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청소년들이 집단생활을 할 수 있는 “장기 자연체험촌”을 설치하자

성인·청소년 모두 휴가기간이 길고, 장기 자연체험 활동이 활발한 점에서 세계 유수의 국가인 프랑스의 예를 보면, 바캉스·여가센터(CVL)가 집단생활을 체험하는 장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예를 참고하여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1 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부모와 떨어져서 다양한 연령집단의 청소년들이 침식을 같이 하며 자연체험, 환경학습, 청소와 세탁, 영농활동 등의 근로체험,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등을 함께 하면서 지내는 “장기 자연체험촌”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 시설·설비는 가능한 한 기존의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새롭게 대규모로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의 공적인 청소년 교육시설을 보수하거나 각 지자체, 지방공공단체의 시설들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거나 낡은 민가를 임대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기업이 소유한 시설, 유스호스텔 등의 민간 숙박시설, 나아가서는 산림과 전답을 소유한 농가 등의 협력을 폭 넓게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 운영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사회교육 등의 지도자를 확보하고 또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볼런티어로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행정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조치에 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도입하여 부모에게 응분의 부담을 요청하는 것이 적당하다.
- 활동은 여름방학 등의 장기 휴업기간에 행해지게 되는데,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는 자녀의 과도한 학원과외를 자제해야 하고, 학교는 과도한 숙제를 부과하지 말아야 하며, 부활동의 운영이나 행사·동교일의 설정 등에 관해서도 배려가 필요하다.
- 이와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기관은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참고 14: 프랑스의 바캉스·여가센터

프랑스에서는 6 월말부터 9 월초순에 걸쳐서 60 일간에 이르는 휴가가 청소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부모가 일하고 있는 7 월중에는 바캉스·여가센터(CVL)에서 친구와 보내고 8 월에는 가족이 임대별장이나 바캉스촌 등에 체재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이다.

청소년들의 장기 자연체험 활동의 중심적인 거점인 CVL은 프랑스 전역에 2 만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연간 100 만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다. 4-18 세의 청소년 10 명 중 1 명이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CVL은 대상연령에 따라서 유아CVL(3-6 세 대상, 숙박기간 1 주간), 소년CVL(7-13 세 대상, 숙박기간 2-3 주간), 청소년CVL(13-17 세 대상, 숙박기간 3 주간)로 대별된다. CVL은 장기 숙박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구비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정원은 100 명 이하 이다.

CVL 자체는 침식이 중심이 되는 시설로서 구기, 수영, 카누, 등산, 자연탐구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야외활동은 CVL에서 10 킬로 주변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 활동시설에서 행해진다. 어느 시설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는 청소년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등 청소년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CVL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아니마뜨르(animateur) 등으로 불리는 지도원이 배치되어 생활면 및 활동면에서의 전문적인 지도를 행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CVL의 경영주체로서는 지자체나 관계단체 외에 일반기업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에는 “기업위원회”의 설치 의무화되어 있어 CVL의 운영을 포함하여 종업원 자녀를 위한 휴가사업의 실시를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항공회사 에어 프랑스의 위원회는 국내 외에 20개소 가량의 CVL을 운영하고 있다.

“산촌유학”(山村留學)과 “국내 홈스테이”의 기회를 증진시키자

장기간의 자연체험 활동을 활성화함에 있어, 여름방학 등의 프로그램 제공 뿐만 아니라 보다 오랜 기간에 걸친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도시의 청소년들이 부모를 떠나 산촌 등 자연환경이 풍요로운 지역에서 지내면서 그 지역의 학교에 통학하거나 자연체험이나 근로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산촌유학”(山村留學)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까지 “산촌유학”은 점진적으로 모집학교·참가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널리 확산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자료 51).

“산촌유학”의 시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학생을 받아들이는 측은 단순한 과소지(過疎地)의 영세학교 대책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사회 규모의 중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생활면의 지도자의 확보, 숙박시설의 정비와 “수양부모”(里親)의 확보, 정보제공 등이 요청된다.

“산촌유학”에서는 “수양부모”가 청소년을 보살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이한 환경의 가정 속에서 자신의 부모와는 다른 시점에서 적절한 지도를 받거나 농업이나 가사를 돕거나 하는 경험을 통해서 청소년은 가족과의 접촉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자립심을 키울 수 있다. 장래에는 “산촌유학”과는 별도로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국내의 다른 가정에서 지내는 체험을 하는 “국내 홈

스테이”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자녀를 보내는 가정과 받아들이는 가정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자료 51: “산촌유학”의 실시상황

- 초·중학생의 수

(단위: 명)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인 원	144	239	348	471	456	483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인 원	513	540	560	625	632	654

자료: “전국의 산촌유학 실시상황 조사보고서” 1996·(재) 육성회

2) 볼런티어·스포츠·문화활동, 청소년단체의 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자

자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사회공헌 의지를 함양하는 볼런티어 활동을 진흥시키자

- 청소년들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볼런티어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체험하고 자신이 가치있는 중요한 존재임을 실감한다. 또한 볼런티어 활동 속에서 청소년들은 사회와의 관계, 다양한 사람들과 접하는 체험을 하게 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규범과 규칙을 배운다. 나아가서 볼런티어 활동은 국제협력, 환경보호, 고령사회에의 대응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사회에 공헌하는 마음가짐을 기른다. 오늘날의 청소년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볼런티어 활동의 체험학습으로서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근년에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다수의 젊은이가 볼런티어 활동에

참가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은 기억에도 새롭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볼런티어 활동은 충분하게 확산되고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에서 볼런티어 활동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 할 정도에 불과하다(자료 52). 또한 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국제비교를 했을 때 볼런티어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미국이 6 할을 넘고 있음에 비해 일본은 4%에 불과하다(자료 53).

자료 52: 볼런티어 활동 참가율

(단위: %)

	현재 활동하고 있다	전에 한 적이 있다	전혀 한 적이 없다
비 율	5.3	27.9	66.9

주: 전국의 13-25 세 인구 약 2,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청소년의 볼런티어활동에 관한 조사" 1993·총무청

자료 53: 고교생 및 양친의 볼런티어 참가의 국제비교

(단위: %)

	일 본	미 국
자신이 볼런티어를 하고 있다	4.3	65.5
부친이 볼런티어를 하고 있다	4.9	42.1
모친이 볼런티어를 하고 있다	8.6	56.5

주: 양국 모두 전국 약 1,000 명의 고교생의 대상으로 조사

자료: "고교생의 라이프스타일조사" 1993·일본청소년연구소

- 현 시점에서 볼런티어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은 소수이지만,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 중 상당수가 앞으로 활동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자료 54). 앞으로는 보다 많은 청소년이 볼런티어 활동에 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가 활동의 기회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볼런티어 활동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확산시켜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불런티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학교에서의 불런티어 체험활동은 불런티어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청소년들이 장기간에 걸친 활동을 행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특별활동이나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 등을 활용하여 보다 충실하게 전개할 것이 요망된다.

자료 54: 앞으로의 불런티어활동 참가의지

(단위: %)

	반드시 하고 싶다	하고 싶은 편이다	하고 싶지 않은 편이다	하고 싶지 않다	모르겠다
1994	8.4	41.9	40.8	5.1	3.8
1997	17.8	50.4	22.6	4.8	4.3

주: 전국의 16-26 세 인구 약 2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 “불런티어 의식조사” 1997·NHK

스포츠·문화활동과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

-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대체로 체력·운동 능력이 저하하고 있다(자료 55). 스포츠활동은 건강하고 튼튼한 신체를 형성함과 동시에 규칙을 지키고 긍정성을 존중하는 정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인내심과 극기심을 함양하는 등, 청소년들의 마음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청소년들은 문화활동을 통해서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풍요로운 정서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함양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의의를 감안할 때 지역사회에서 스포츠·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그 활동을 지원하는 스포츠단체와 문화단체가 담당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스포츠·문화단체뿐만 아니라 보이с카우트나 걸스카우트, 어린이회 등의 청소년단체에서 다양한 연령집단의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풍요로운 마음을 함양할 수 있는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이들 단체는 참가자 수의 감소나 지도자 확보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지도자의 양성, 정보제공의 충실 등 단체활동의 진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단체에서도 청소년 자신이 활동내용을 고안하고 자주적으로 기획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보다 매력적인 활동의 장을 만드는 노력이 요청된다.
-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스포츠·문화활동 등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외에 스포츠·문화시설의 정비·충실을 도모하고 그들 시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하고 매력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정기적·계속적으로 스포츠에 친숙해질 수 있는 종합형 지역 스포츠클럽 등의 육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55: 청소년의 체력·운동능력

(생 략)

학교는 학교외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가를 장려하자

청소년들이 학교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교육시설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학교외 활동의 보급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 요망된다. 학교는 일반적으로 외부 기관이나 단체의 활동에 협력하거나 혹은 학교가 담당해 온 기능을 그곳에 위탁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앞으로 각 학교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시도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 요망된다.

- 학교는 학교외 활동에 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그 참가를 장려할 것
- 학교 자체가 학교외 활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

- 역교육활성화센터 등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각 학교를 지원할 것
- 각 학교에서 학교외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참가를 장려할 때 보호자(PTA)나 학교 외의 유지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면 조언을 구하는 등 협력의 방식을 연구할 것
 - 학교에서 학교외 활동 참가의 의의를 인정하고, 예를 들면 볼런티어활동, 스포츠·문화활동과 같은 체험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것. 그 일환으로서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단위인정에 관해서 각 학교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다수가 이와 같은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자료 56).
 - 학교의 부활동이 자칫하면 청소년들의 학교외 활동의 참가를 제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부활동에 관해서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이 행해지고 있고 학교에 지도자가 없는 경우 지역사회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실행하고, 운영에 있어서 학교외 활동에 참가하려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가능한 한 부활동과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배려할 것

자료 56: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볼런티어활동의 단위설정

- “볼런티어 활동을 교과의 졸업단위로 하는 방침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찬 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반 대	모르겠다. 무응답
비 율	33.2	37.3	17.0	7.4	5.1

주: 전국의 16 세 이상 인구 약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볼런티어 의식조사” 1997·NHK

자유롭게 모험에 참가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자

-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되면 부모의 말보다도 친구와 약속을 중시하는 등 친구와의 정서적인 결합이 크게 강화된다. 청소년들은 10 명 정도의 친구집단을 형성하고 자신들이 약속이나 규칙을 정하고 역할을 분담하

면서 활발하게 어울려 논다. 그리고 때로는 좋지 않은 놀이에 열중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모습이 갭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이 시기는 “갭 에이지”라고도 지칭된다. 갭 에이지의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에 있어서 고민을 서로 공감하는 등의 정신적인 관련을 중시하는 청년기와는 다른 독특한 양상을 나타낸다. 갭 에이지 시기의 친구관계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심신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면서 규칙을 지키는 마음, 역할을 다하는 책임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힘을 길러간다.

- 이 시기의 놀이는 청소년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현재의 청소년들을 보면 갭이라는 용어에 어울리는 친구집단 내에서의 활발한 놀이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 배경에는 청소년의 생활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짐과 더불어 놀이 장소를 둘러싼 문제가 있다. 오늘날 놀이 장소는 크게 감소하여 청소년들은 놀이의 “시간” “친구”(仲間) 나아가서는 “공간”이라는 “3 간(間)”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을 봐도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놀이 장소는 적어지고 공원과 같이 인공화·관리화된 스페이스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 앞으로는 자연과 접촉하면서 자신의 책임하에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잘 정비된 도시공원 뿐만 아니라 자연을 있는 그대로 활용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플레이 파크와 같은 놀이장소를 각 지역에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지역 주민이 행정기관과 협력하면서 놀이 장소의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시도의 확산도 기대할 만하다. 또한 놀이 장소에서 청소년들을 지켜주고 놀이방식을 전승해 주는 플레이 리더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3) 지역의 행사와 다양한 직업에 관한 체험의 기회를 늘려주자

지역의 행사에 청소년들을 더욱 자주 참가시키자

도시화와 과소화가 진행되어 인간관계가 희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와 규범을 공유하는 터전인 지역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진전되면 될수록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긍지와 애착을 느끼고 힘을 합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시정촌(市町村), 정내회(町内會), 청년회의소, 지방산업 등이 전통적인 축제나 마을 행사 등을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고 이는 해가 갈수록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들 마을 행사의 활력을 청소년의 풍요로운 마음의 육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지역 활동에 대한 참가에 소극적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해 낼 필요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자료 57).

자료 57: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평가

(단위: %)

	좋아한다	대체로 좋아한다	별로 좋아 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무응답
초등 4-6년생	71.9	24.5	2.3	0.3	1.1
중학생	58.0	34.6	5.2	1.6	0.7
15-17세	51.3	36.2	9.1	2.4	1.0

주: 전국의 초등학교생·중학생 각각 약 1,000명, 15-17세 인구 약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기본조사보고” 1995·총무청

지역의 성인들이 그와 같은 청소년들의 의식을 파악하여 다양한 행사를 고안하여 청소년들에게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중

시하는 마음,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마음을 청소년에게 심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을 위해 기획된 행사”가 자칫하면 “청소년을 이용한 성인의 행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역의 행사를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 그 참가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직접 행사의 기획을 담당하게 하거나 책임을 수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등의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회사나 공장에서의 청소년 견학·체험활동을 확산시키자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장래의 자기의 진로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들 사이에는 자기비하감, 장래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냉소적인 현실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일에 헌신하기 보다는 일을 단순한 생활비를 얻는 수단으로 간주하는 생각이 만연되고 있다.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것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질문한 결과, “일을 통해서 사회에서 활약하는 것이 즐겁다”고 하는 응답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한편, “생계를 위해서는 도리가 없다”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울하다”는 응답율이 상당수에 이른다(자료 58).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들이 일하는 것의 중요성, 자신의 희망과 장래의 직업에 관해서 생각하는 계기로서 지역의 교육력(教育力)을 활용하여 다양한 직업 활동을 관찰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행사, 지역의 주체적인 활동, 개별 기업에 있어서의 종업원 가족의 견학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 특히 다음과 같은 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기업 중에는 청소년들에게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사무소나 공장을 개방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곳도 적지 않다. 그와 같은 기회를 충실히 이용할 것
- 상점이나 농가 등에서 영농작업이나 상업활동 등을 청소년들이 견학·체험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

- 지방공공단체의 각 분야의 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작업 등을 견학·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
- 전문고교에서도 중학교의 진로지도의 일환으로 중학생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농업교육이나 공업교육 등 다양한 산업교육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를 마련할 것
- 행정기관에서는, 예를 들면 청소년들을 위해 문호를 열어놓고 있는 공적인 기관이나 기업 등의 시설에 관해서 학교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보제공에 노력하고 학교행사의 실천과 가족·청소년들의 참가를 장려할 것

자료 58: 사회진출에 대한 의욕

(단위: %)

	일을 통해 사회 에서 활약하는 것이 즐겁다	생계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도리가 없다	사회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우울하다	무응답
비율	46.2	35.4	17.2	1.3

주: 東京都에 거주하는 18 세 이상의 학생 약 7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젊은 세대의 생활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1994·東京都

직장견학의 기회를 확대하여 일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자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부모가 일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어 일하는 것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체험이나 생활체험이 부족한 청소년의 상당수는 가정의 정보 미디어를 통한 가상현실의 세계에서 생활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부모들은 “자신은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일하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시킬 수 없다. 부모는 청소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자녀의 마음 속에 심어주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과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각 가정에서는 우선 자녀에게 가사를 돕게 하여 가사활동을 하는 부모의 모습을 지켜보게 하거나 자녀와의 대화과정에서 자신의 회사업무에 관하여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서 자신의 일을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어떤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가를 화제로 삼는 것도 의미가 있다.
- 이와 같은 가정에서의 노력에 덧붙여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기업 등에서는 종업원의 자녀들이 직장을 견학하고 사회 속에서 일하는 부모의 모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이 요망된다. 청소년들은 그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근면하게 일한다는 것, 사회의 과제에 전향적으로 도전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접하는 부모와는 다른 일면을 엿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부모-자녀관계가 심화될 수도 있다. 특히 가정에서 존재감이 희박화하고 있는 부친의 경우 직장에서의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청소년들은 신선한 충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등에서는 이와 같은 의의를 깊이 이해하고 직장견학 기회의 충실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노력할 것이 요청된다.

4) 정보제공 시스템을 연구하여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에의 참가를 가능하게 하자

편의점이나 우체국등의 지역사회 생활거점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학교외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자

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연체험·볼런티어·스포츠·문화활동, 지역행사나 다양한 직업에 관한 체험의 기회 등과 같은 학교외 활동에 참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나 자녀가 그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입수하고 이용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모나 청소년들은 구전(口傳)을 통한 홍보를 제

외하면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사회교육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각 가정에 배달되는 지자체의 홍보지를 구석구석을 주의깊게 읽어 봐야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예를 들면 쉬는 토요일에 학원에 보내지 않고 야산을 뛰어다니는 자연체험 활동을 시키려고 생각하는 부모도 적지 않지만, 어디서 그와 같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하여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부모가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학교의 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연구·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서 학교가 보다 많은 학교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할 것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가정에 있으면서 필요할 때 지방공공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망되며, 나아가서 우리는 그와 같은 시도에 머물지 않고 주위의 일상적인 생활거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장소로는 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편의점과 전국적으로 설치된 우체국 등이 있다. 각 지역에서 청소년의 학교의 활동에 관한 정보지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이들 장소에 비치해 두면 그와 같은 활동정보가 매우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정보지의 형태를 종래의 지자체의 홍보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민간의 정보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창의적으로 오락이나 레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와 같은 민간기업의 실적을 토대로 학교의 활동에 관한 정보지의 제작에 있어서는 민간의 활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정보지를 무료로 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는 공적은 지원을 받고 적절한 가격으로 유료화하여 제작·배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다. 청소년의 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정보의 문제에 대처하자

텔레비전·비디오 등 관계자에 의한 자주규제 등의 시도를 진전시키자

유해정보에 관한 법규제에는 형법에 의한 외설물의 반포동에 대한 형사처벌과 각 지자체의 청소년보호육성조례에 의한 유해도서, 비디오 등의 판매에 관한 규제가 있다. 그러나 법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극히 일부의 도서류 등으로서,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TV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도서, 잡지 등에 관해서는 관계업계에 의한 자주적인 규제에 맡겨지고 있다.

- TV 방송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민간방송은 “(사)일본민간방송연맹”에서 방송기준을 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배려, 폭력 표현, 성 표현 등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각 방송국마다 방송 프로그램 편집기준을 정함과 아울러 방송 프로그램 심의기관을 둬으로써 자주규제를 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과격한 살인장면, 성적 묘사 등이 빈번하게 방송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상당수의 부모가 TV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자료 59).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방송을 송출하는 측의 자주규제 등 양식있는 자세가 요청된다.
- 방송제작 현장에 이르기까지 방송기준의 취지를 잘 준수함과 더불어 방송국내의 체크기능을 충실히 할 것
- PTA 등 자녀지도관련 관계자, 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단체의 방송윤리 향상을 위한 조직이나 각 방송국의 심의기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행할 것
- 비디오에 관해서는 영화화된 것은 “영륜관리위원회”에서, 그 이외는 “일본비디오윤리협회”에서 각각 작품의 심사를 실시하는 등 자주규제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협회에 참가하지 않는 제작자도 다수에 달하고 특히 호러(horror) 비디오 등 폭력, 잔학 장면이 많은 비디오에 대한 심사가 그다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미가맹 제작자의 협회 가입과 자주규제에 기초한 심사의 수검을 한층 촉진할 것
- 15 세, 21 세 등 일정한 연령구분에 따라 밀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고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청소년에게는 대출하지 않는 등의 노력을 추구할 것
- 비디오게임에 관해서는 “(사)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가 윤리규정을 두고 있는데, 폭력을 긍정하거나 인명을 경시하는 게임에 대해서 자숙을 추구하고 밀도있는 가이드 라인을 책정하는 등 심도있는 자주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인터넷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해서는 접속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으로 구성되는 “(사)텔레콤 서비스협회”가 자주적인 운용방침의 가이드 라인을 책정하고 있지만 유해정보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출판물에 관해서는 출판업계의 자주규제를 모색하는 조직으로서 “출판윤리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어 노골적인 성묘사 위주의 잡지에 관해서는 출판사의 판단으로 성인대상의 표식을 붙이고 소매서점 등에서 일반잡지와 구분해서 진열·판매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의회에 참가하는 출판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인대상의 마크를 표시한 잡지 등은 매우 적다. 앞으로 서점 등의 관계업계와 협력하면서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비디오대여점, 서점, 슈퍼나 편의점, 자동판매기, 통신판매 등과 관련된 사업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서점에서 성인대상의 잡지 등은 청소년의 눈에 띄지 않도록 매장을 구분하는 등의 배려가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배려가 불충분하여 포르노잡지나 성인비디오를 볼 수 있는 장소로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서점, 슈퍼나 편의점, 비디오점을 지적하고 있다(자료 60). 이들 점포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성인대상의 잡지나 비디오를 일반 잡지·비디오와 함께 진열하지 않도록 할 것
-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 미성년자가 성인대상의 잡지나 비디오

등을 입수할 수 없도록 할 것

- 비디오대여점 관련 단체에서는 가입 업소의 확충을 기하고 보다 조직적인 자주규제의 노력을 전개할 것

참고 15: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촉과 규범의식

청소년들은 유해정보에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가. 비디오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호러 비디오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미 약 반수가 접촉하였고, 성인비디오는 중학 1학년까지 26%(남자), 고교 2학년까지 77%(남자)가 접촉경험이 있다(자료 61).

또한 동일한 조사에 따르면, 그와 같은 비디오의 접촉경험이 있는 청소년 혹은 그 빈도가 높은 청소년은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범죄에 대한 죄악감이 결여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 약하고 공격성이 높으며, 성행동에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등의 경향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유해정보가 범람하는 상황의 문제성을 다시금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다. 물론, “성인비디오 등을 보면 규범의식이 저하된다”는 일방적인 인과관계의 존재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유해정보의 접촉과 규범의식은 서로 원인도 결과도 될 수 있는 관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연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료 59: TV에 관한 부모의 의견

A. 사회환경에 관한 부모의 의견

- “TV 나 매스컴의 정보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위: %)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무응답
비율	88.0	11.2	0.8

주: 중학교 3학년생의 보호자 약 1,8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청소년의 사회환경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결과 보고” 1997·일본 PTA 전국협의회

B. TV를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

	비 율
잔혹한 장면이 많다	30.9
말이 난폭하다	60.0
낭비가 심하다	29.0
음란한 장면이 많다	30.2
이지메와 편견을 조장하는 장면이 많다	34.7
생명을 경시하는 장면이 많다	22.5
상식과 모럴에서 극단적으로 벗어나고 있다	45.2
출연자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다	29.0
내용이 허황되다	67.7
꿈이 없다	24.6

주: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PTA 회원으로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한 약 3,000 명에게 질문한 결과
 자료: “가정교육에 있어서의 멀티미디어의 실태와 보호자의 의식조사” 1996/7·일본 PTA 전국협의회

자료 60: 포르노잡지와 성인비디오가 눈에 띄는 장소

(단위: %)

	포르노잡지	성인 비디오
서점	38.1	7.7
수퍼나 편의점	33.5	5.7
자동판매기	3.2	2.8
자동대출기	-	0.1
대여비디오점	-	56.0
비디오판매점	-	6.8
눈에 띄지 않는다	24.8	20.4

주: 秋田, 千葉, 岐阜, 静岡, 徳島の 중·고교생 약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청소년과 자동판매기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1996·총무청

자료 61: 성인비디오·호러 비디오의 접촉

A. 처음 성인비디오를 본 시기

(단위: %)

	남 자		여 자		전 체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 4년 이전	1.4	0.9	0.2	0.2	0.7
초등 5-6학년	4.8	7.9	1.2	1.4	4.1
중학 1학년	12.3	17.2	5.9	2.1	9.8
중학 2학년	6.5	21.2	2.2	6.2	9.9
중학 3학년	-	14.1	-	4.3	5.3
고교 1학년	-	12.8	-	7.3	5.6
고교 2학년	-	2.9	-	2.7	1.5
본 적이 없다	75.0	23.0	90.5	75.7	63.0

주: 北海島, 滋賀, 大分, 神奈川の 고교 2년생, 중학 2년생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청소년과 성인비디오등의 영상미디어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1994·총무청

B. 성인비디오 접촉과 범죄에 대한 죄악감

(단위: %)

	남 자				
	중 학		고 교		
	무접촉군	접촉군	무접촉군	접촉군 (10편 이내)	접촉군 (11편 이상)
자전거 타고 도망가기	8.3	7.3	8.3	7.9	6.9
가게에서 훔치기	9.0	8.1	8.4	8.4	7.7
공갈(금전)	9.2	8.6	9.2	9.2	8.7
상해(나이프)	9.6	8.9	9.3	9.6	9.6
엿보기(탈의실)	7.7	5.5	6.9	6.3	4.4
치한(전차내)	8.2	6.4	7.7	7.6	6.8
강간	9.1	7.9	9.4	9.4	9.0
매춘행위	8.6	6.3	7.2	5.9	4.9

	여 자			
	중 학		고 교	
	무접촉군	접촉군	무접촉군	접촉군
자전거 타고 도망가기	8.3	7.7	8.5	7.9
가게에서 훔치기	9.1	8.4	8.7	8.4
공갈(금전)	9.4	8.6	9.5	9.2
상해(나이프)	9.8	9.6	9.7	9.3
엿보기(탈의실)	7.8	6.3	7.5	6.6
치한(전차내)	8.3	7.0	8.5	7.7
강간	9.6	8.4	9.9	9.6
매춘행위	9.1	6.9	8.1	6.7

주: 1) 죄악감은 1-10 점의 10 단계로서 “거의 죄가 아니다”를 1 점, “최고의 죄이다”를 10 점으로 평가

2) 고교생 남자에 관해서는 연간 10 권을 기준으로 접촉군을 분류했다

C. 처음 호러 비디오를 본 시기

(단위: %)

	남 자		여 자		전 체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 4년 이전	35.1	27.8	20.8	19.2	25.8
초등 5-6 학년	25.7	26.9	26.2	21.7	25.2
중학 1 학년	4.1	8.8	7.3	11.2	8.0
중학 2 학년	0.7	4.0	1.2	7.1	3.4
중학 3 학년	-	1.5	-	5.0	1.7
고교 1 학년	-	0.5	-	2.3	0.7
고교 2 학년	-	0.4	-	0.5	0.2
본 적이 없다	34.1	29.6	44.0	31.8	34.4

업계단체와 PTA 등의 교육관계 단체와의 정기적인 협의의 장을 개설하자

앞으로 TV, 비디오 등의 관계자가 자주규제를 위해 노력함에 있어 그들 업계단체와 PTA 나 어린이회 등과 같은 자녀지도와 관련된 전국적인 교육관계 단체 사이에 폭 넓은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 청소년육성국민회의”가 중앙 레벨에서 방송관계자를 포함한 매스컴 관계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해정보에 관한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지만, PTA 등의 교육관계 단체와 업계단체 간에 정기적으로 협의를 행하는 장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협의의 장을 설치하고 충실하게 운영함과 아울러 효과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교육관계 단체에서는 회원 대상의 앙케이트 조사를 행하는 등 의견의 집약을 모색함과 아울러 담당조직을 설치하여 프로그램 모니터 활동을 전개하는 등 방송내용을 충분히 조사·연구하고 협의의 장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매스컴 관계단체에서도 그들 단체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구체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PTA 등의 교육관계 단체가 광고주 단체나, 필요에 따라서 개별 프로그램의 스폰서와 개선을 위해서 대화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요청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대응이 필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회합을 지역 레벨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서점, 편의점, 비디오대여점 등과 지역의 PTA 등의 교육관계 단체가 함께 모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도서나 비디오의 판매 및 대출에 관해서 협의를 행하는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발신·매개하는 업계 관계자의 자주적인 규제나 주민에 의한 다양한 노력도 요청되지만, 동시에 가정에서도 부모가 유해정보라고 판단되는 것을 자녀가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과 가정에서의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와 병행하여 유해정보를 선택적으로 적절하게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TV에 관해서는 폭력적인 장면이나 노골적인 성적 묘사 등이 많이 나타나 는 프로그램을 자녀가 시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장치를 고려할 수 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프로그램을 미리 화면상으로 경고하는 사전표시가 제도화되어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부모가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장치("V 칩")를 TV에 장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그 실시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부모와 자녀가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데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사례를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TV 영향의 비중을 감안하여 사전표시나 V 칩의 도입에 관해서 방송업계와 우정성(郵政省) 등의 관계기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 요망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 PTA나 자녀지도와 관련된 교육관계단체에서도 폭 넓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근년에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인터넷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해서는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설 화상의 유통에 충분한 대응이 행해지지 않는 등 간파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수신자측에서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필터링 기술)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해서 관련업계와 관계기관이 협력함과 아울러 인터넷의 특질을 고려하여 다른 외국의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 요망된다.

참고 16: 미국에 도입되는 V칩 제도

미국에서는 “1996년 전기통신법”의 제정(1996년 2월 8일)에 따라 TV에 폭력과 성적 장면이 많은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방영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른바 “V칩”)를 장착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앞으로 제조되는 13인치 이상의 텔레비전에 대해서 1999년 7월 1일까지는 절반, 2000년 1월 1일까지는 모든 제품에 V칩 기능을 장착하도록 되어 있다). V칩의 도입은 폭력 사건이 다발하는 가운데 TV 프로그램의 폭력장면이 청소년의 행동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걱정하는 국민들의 드높은 원성에서 비롯되었다.

V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기능을 발휘한다.

- 1) 방송사업자는 자주적으로 폭력과 성적 장면이 많은 프로그램의 레벨을 지정(레벨링)하고, 프로그램과 더불어 그 정보를 전파에 실어서 각 가정에 전송한다(현재, 폭력과 성묘사 등의 유형별로 시청자의 연령에 따라서 6단계로 분류하는 레벨링 작업이 시행되고 있다)
- 2) 각 가정에서 부모는 어느 단계까지의 프로그램을 자녀에게 보여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여 텔레비전을 세팅한다.
- 3) V칩은 이 부모의 선택을 토대로 자동적으로 청소년에게 보여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TV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유해정보의 문제에 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진전시키자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유해정보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와 지역의 성인에 의한 주민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어 이제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예를 들면 교사와 보호자가 중심이 되어 시작된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잡지를 사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운동”이 전 시민적인 운동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포르노 잡지의 자동판매기 철거에 성공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둔 지역도 있다.

이와 같은 유해환경 정화운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 내부의 광범위한 체제구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PTA 관계 단체, 어린이회 등 청소년단체, 부인단체, 소년보도원, 학교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통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요망된다. 예를 들면 포르노잡지, 성인비디오나 호러 비디오에 관해서 점포 등에서의 판매와 대출에 대한 자주규제를 요청하거나 나아가서 조례의 제정과 그 운용의 감시를 목표로 활동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경찰과 청소년보호육성조례의 담당부서 등 행정기관과 협력하면서 주민에 의한 환경정화 패트론티와 서명운동, 미니집회 등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지자체에서 제정된 청소년보호육성조례도 주민운동의 귀중한 성과의 하나이다. 조례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서 지사가 지정한 도서류(잡지, 비디오, CD-ROM 등) 등의 판매 금지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의 실제 지정건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그 운용이 지역에 따라 상이함과 아울러 문제시되는 도서류 등이 일반에 널리 유통된 다음에야 지정이 행해지는 등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청된다.

- 조례의 운용에 있어서 신속하게 지정이 행해지도록 교육관계 단체 등의 협력을 구할 것
- 조례에 의한 규제와 관계업계의 자주규제를 병행하고, 블록 내 각 지자체의 조례 운용담당자간의 협력과 정보교환을 긴밀하게 할 것
- 총무청 등 관계부서가 협력하여 각 지자체의 조례 운용상황 등 관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등, 각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할 것
- 조례의 내용과 운용의 문제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인 법적 규제의 방식에 관해서 관계기관에서 검토를 진행할 것

또한, 유해정보의 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응으로서는 행정기관 단독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거나 관계업계에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부성, 총무청, 경찰청, 통상산업성, 우정성 등 관계기관이 밀접하게 협력하여 노력을 진행할 것이 요청된다.

4. 마음을 함양하는 장으로서 학교를 되돌아 보자

가. 유치원·보육소의 역할을 되돌아 보자

유치원·보육소에서 도덕성의 싹을 키우자

유치원·보육소에서 유아는 가정에서의 성장을 토대로 외부세계로 나아가 친구들과의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자립을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방식을 배운다. 유치원·보육소는 “살아가는 힘”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정은 부모와의 관계를 축으로 애정과 지도를 통해 인간형성의 기반을 형성하는 장이지만, 가정에서의 지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친구들과의 집단생활의 장인 유치원·보육소가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다. 행실지도는 원래 가정에서 행해지는 것이지만, 유치원·보육소에서도 가정과 협력하여 유아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습관을 체득하게 하는 것,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의 발달단계를 토대로 하면서 교사와 보육사가 유아기의 도덕성의 싹을 키우고 적절한 지도를 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 입각해서 특히 다음의 점에 유의하여 노력해야 한다.

- 유치원·보육소의 교사·보육사는 유아의 주체적인 활동과 놀이, 많은 친구들과의 접촉 속에서 나타나는 개개인의 모습을 잘 관찰하여, 예를 들면 인내하지 못하고 폭력에 호소하는 행동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차분하게 타일러 주어야 한다.
- 유치원·보육소는 아동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양육방식이 직접적으로 발현되는 장이다. 동시에 유치원·보육소는 부모와 교사·보육사의 일상적인 접촉이 많이 이루어 지는 곳이다. 교사·보육사는 그와 같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내에서 각 아동이 나타내는 사인을 부모에게 일

려주고 가정에서 행해야 할 중요한 지도가 결여된 경우에는 그것이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일부에서 발견되는 지육(知育)에 편향된 교육은 이와 같은 집단생활에서의 지도, 혹은 유아의 주체적인 활동을 손상하는 것으로서, 유아의 마음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 놀이의 의의를 잘못 생각하여 유아가 자유롭게 놀도록 방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하거나 도덕성의 싹을 배양할 수 없고 자립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자

도시화와 핵가족화, 소자화(少子化)가 진행되고 가정에도 정보기기가 보급되는 가운데 유아의 경우에도 간접체험이 증가하는 한편 자연과의 접촉이나 야외에서의 놀이, 고령자 등 다양한 세대와의 교류와 같은 직접체험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지육 우선의 풍조가 이와 같은 경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간형성의 기초를 배양해야 할 유아기의 체험을 보다 풍부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치원·보육소에서는 자연체험과 사회체험의 기회를 충실히 하여 유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정원에서 동·식물을 사육·재배하는 활동, 지역 행사에 참가하는 활동, 고령자와 접촉하는 활동, 소년자연의 집 등의 시설과 자연공원을 이용하는 활동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유아가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는 즐거움과 충실감, 자립심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유치원·보육소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기대된다.

유아에게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자

부모와 떨어져서 친구와 칠판을 같이 하면서 자연 속에서 활동하는 체험은 아동에게 감동과 경이감을 부여하고 풍요로운 감성을 함양하며 자주성과 협조

정신, 인내력 등을 배양한다. 이와 같은 기회는 초등학생 이상의 청소년만이 아니라 육외활동이 부족한 유아의 마음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한다.

유아는 5 세경부터 외계에 대한 흥미·관심이 강화되고 행동반경도 확장되어 모친으로부터의 자립행동을 현저하게 발전시킨다. 유아캠프에 대해서는 체력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지만, 유아에게도 개인차가 있고 본인의 의욕만 있다면 참가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외국에는 유아캠프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 나라도 있어서,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연간 4 만명 정도의 6 세 이하 아동이 바캉스·여가센터(CVL) 등 자연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단체 등의 시도가 일부 있었는데, 부모가 당초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이 등산과 취사 등을 포함한 활동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고 그것을 즐기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모자관계의 과도한 밀착이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유아캠프는 유아가 건전한 “부모이탈”을 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부모 측에서는 자녀의 성장을 되돌아보고 “자녀이탈”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는 유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아캠프 등의 자연체험 프로그램의 기회를 늘리고 안전면에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자녀들을 참가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부모를 떠나서 자녀가 외지에서 숙박하는 활동은 많은 부모에게 있어서 최초의 경험으로서, 그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보육소의 도움이 큰 의미를 지닌다. 각 유치원·보육소가 직접 유아캠프를 기획·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면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유아캠프에 단체 단위로 참가시키거나 개별적으로 유아의 참가를 촉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도 각 유치원의 자주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데 머물지 않고 민간단체와의 중개역할을 하거나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의 야외 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행할 것이 요청된다.

유치원·보육소를 통한 자녀양육 지원을 발전시키자

자녀지도의 지원에 있어서는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의 자녀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지도와 일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보육소에는 저연령아 보육, 연장(延長) 보육, 일시 보육 등의 충실이 요청되고 있다. 유치원에는 통상의 교육시간 종료 후에 희망에 따라서 계속 교육을 행하는 “위탁 보육”에 대한 요망이 증가하고 있어, 보육시간의 설정과 보육실의 확보 등의 면에서 유연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유치원과 보육소는 각각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함과 아울러 지역의 실정에 따라 양 시설의 합병 등을 통한 시설의 공용화 등 탄력적인 대응이 요망된다.

최근 부모의 자녀양육 불안의 증대와 고립감의 심화를 감안하여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일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보육소에서는 부모-자녀 동원일(登園日)의 설정과 원 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외에 부모들이 서로 교류하는 자녀양육 서클 활동 지원, 자녀양육 공개강좌 등 가정교육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 카운셀러의 배치와 축탁의사와의 협력을 통해 자녀양육 상담의 충실을 기하는 것 등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다음의 세가지 점에서 각 유치원·보육소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 보호자 자신의 학습을 위해 보육 참가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보육소의 보육활동에 교사·보육사의 지도하에 참가할 수 있다면, 행실지도나 자녀양육 방법에 관한 체험적인 학습기회로서 커다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자녀만을 생각하고 과잉간섭하거나 매뉴얼만에 의존하여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적지 않은데, 보육 참가를 통해 부모의 시야를 넓히고 자녀의 개성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제까지의 자녀양육 방식을 교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부친의 적극적인 자녀양육 참가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많은 유치원에서 “아버지의 날”이나 “아버지와 함께 노는 날” 등을 설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와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그 충실을 기할 것이 요망된다.

- 미취원아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체험 입소의 기회를 마련하여 자녀가 동년배의 유아들과 활발하게 놀게 하고 부모들이 서로 친교를 나누고 자녀양육 방식에 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모자(母子) 두사람만의 폐쇄적인 보육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많은 유치원·보육소에서 이와 같은 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생활체험이 부족한 젊은 세대, 특히 다감한 시기의 중·고교생이 유아들과 접촉하고 돌봐주는 체험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장래의 부모가 되기 위한 학습의 일환으로서 유치원·보육소가 그와 같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 요망된다.

유치원·보육소의 교육·보육과 초등학교 교육과의 협력관계를 연구하자

유치원·보육소로부터 초등학교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의 충실과 교육내용의 협력이 요청된다.

유아의 부모들 중에는 예를 들면 “읽고쓰기를 가르치지 않으면 초등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다”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영어교실에 보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노는 것은 끝났다”는 등의 불안과 오해가 만연되어 있다. 초등학교는 유치원·보육소와의 협력을 기하면서 실제의 학교의 모습과 교육활동이 지향하는 방향 등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보육소에서의 활동 중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놀이와 체험활동은 초등학교 교육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도입된 생활과(生活科)의 시도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

로 보다 많은 연구·개선이 기대된다. 다른 한편, 유치원·보육소에서는 졸업할 무렵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염두에 두고 모두 함께 교사와 보육사의 설명을 듣거나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교육내용·방법에 관한 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보육사간의 교류와 공동 연수의 기회를 늘려서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고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기관에서도 유치원의 교사, 보육소의 보육사, 초등학교 교사들과의 공동 연수를 보다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유치원·보육소와 각 초등학교에서도 합동의 교내연수를 실시하거나 행사시에 서로 아동을 '초대하는 등 상호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이 요망된다.

나. 초등학교 이후의 학교교육의 역할을 되돌아 보자

1)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의 가치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미래를 개척하는 마음을 길러주자

우리나라와 향토의 전통·문화의 가치에 주목하게 하자

우리나라가 활력있는 문화국가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국가와 향토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21세기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일본인으로서의 자각하에 주체적으로 생활하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도 자기 국가와 향토의 전통·문화의 가치를 청소년들이 깊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물질적인 풍요를 성취한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의 풍요를 갈구하게 되어 국가와 향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 국가와 향토의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태도를 육성하기 위하

여 각 교과와 도덕, 특별활동 시간을 통하여 꾸준한 노력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구체적인 지도방법으로서는 국가와 향토의 유적과 문화유산, 전통공예와 예능 등에 직접 접하여 친숙해지는 체험학습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 때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 조예가 있는 지역사회 전문가의 협력을 얻는 등 지역의 교육력(教育力)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교사 자신이 우리나라와 향토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없으면 그것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없다. 교사가 우리나라와 향토의 전통·문화에 관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연수의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와 자기책임에 관해서도 충분히 지도하자

민주적인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노력하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일본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의무와 자기책임 등의 중요성을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이해시켜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둘러싼 오늘날의 사회풍조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비하하거나 자신의 선택·행동의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자신의 권리만을 소리높여 주장하고 무제한적인 자유를 추구 등의 우려할 만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풍조 속에서 앞으로는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그것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 공중도덕 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에 관해서 보다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각 학교에서는 사회과를 비롯한 각 교과, 도덕, 특별활동 등 교육 활동 전체를 통해서 책임과 의무의 중요성을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

도할 것이 요청된다.

보다 좋은 사회와 나라 만들기에 참여하게 하고 국제공헌의 중요성을 알려주자

오늘날 청소년들에게는 스스로 노력하여 사회를 개선해 가려는 적극성이 점차 결여되어 가고 있다. 한 국제비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약 반수의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해서 무언가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불만을 가졌을 때의 태도에 관해서 질문한 결과,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와 “관계하지 않는다”고 하는 비율이 증가 경향에 있고 이 두가지 응답률이 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62).

자료 62: 사회에 대한 불만의 가졌을 때의 청소년의 태도

(단위: %)

	경우에 따라서는 비합법수단	합법적 범위에서 적극적 행동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음	관계하지 않는다	무응답
일 본	3.4	20.7	50.2	19.6	6.1
한 국	4.9	52.7	20.2	21.3	0.3
미 국	3.1	52.0	35.5	3.2	6.2
프랑스	4.8	43.1	35.3	14.2	2.6
영 국	2.3	42.2	44.6	4.9	6.0

주: 각국 모두 18-24 세의 인구 약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세계청년의식조사” 1993·총무청

내일의 사회를 담당할 세대의 이와 같은 냉소적인 의식에 대해서 우리는 커다란 우려감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들이 개개인의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꿈과 이상을 향해서 노력하고 다른 사람과 힘을 합침으로써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개선과 발전을 위해 기존의 사회제도와 구조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도전 정신

을 청소년들에게 함양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마음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정의 가사활동을 분담시키고 지역에서 부모-자녀가 함께 볼런티어 활동에 참가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학교에서도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성립과 구조, 참정권의 행사 등을 통해 스스로 사회와 국가 만들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국제 공헌의 중요성 등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주자

앞으로 학교에서 중시되어야 할 학습방법의 하나로서 토론과 논쟁을 지적할 수 있다. 교사의 지도하에 특정 주제를 놓고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대화하면서 문제해결의 방향을 발견하는 체험은 청소년들의 적극성과 주체성을 함양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데 큰 효과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학습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자세,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정확한 비판정신과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 등을 익힐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의를 감안하여 앞으로 학교에서는 작은 인원의 그룹 토론, 패널 토론, 논쟁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 때 교사가 적절한 조언을 하지 않으면 참가자들이 감정에 도취되어 단순히 자신의 생각만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교사연수 등을 통하여 토론과 논쟁의 효과적인 지도방법에 대해서 교사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 요망된다.

과학에 관한 학습을 활성화하고 자연에 대한 외경심, 미래에의 꿈을 길러주자

오늘날 청소년들은 놀라움과 감동을 체험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지만, 과학에 관한 학습을 활성화함으로써 그와 같은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이과(理科) 교육에서 관찰·실험, 탐구활동 등의 문제 해결적인 학습, 체험적인 학습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자연현상에 감동을 느끼거나 의문을 품고 추론하는 등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자연 관찰과 환경을 탐구하는 학습은 과학의 원점인 자연의 신비에 대한 탐구심, 나아가서는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함양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현재 이과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관계자들의 노력이 요청된다.

-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관찰과 실험 등의 활동을 보다 많이 체험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이른바 미리 짜여진 실험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엄선하고, 오직 지식이 양만을 따지는 입학자 선발방식을 개선하여 선발 방법·척도의 다양화를 추진할 것이 요망된다.
- 과학 학습의 장으로서 학교뿐만 아니라 박물관, 청소년교육시설, 연구소, 공장 등에서의 견학·체험 학습, 과학 세미나 참가 등 다양한 학교외 학습의 기회를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 교사의 지도력 향상과 아울러 과학 기술의 제일선에 있는 연구자와 기술자 등이 청소년들에게 직접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과학교육관계 단체가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콩쿨 등을 통해 뛰어난 교육실천을 표창하고 그 보급에 노력할 것이 요망된다.

과학기술은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 등과 같은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는 지구규모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이와 같은 문명의 어두운 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포함하여 과학과 인간, 자연의 관련성에 관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과만이 아니라 기술·가정과, 사회과, 국어과 등과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지도의 충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신뢰받고 심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자

학생들로부터 경의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교사가 청소년들에게 풍요로운 인간성을 함양시켜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사에게는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 인간의 성장·발달에 관한 깊은 이해,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 교과에 관한 전문적 지식, 폭 넓고 풍부한 교양,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실천적 지도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시각에 입각하여 교사의 양성·채용·연수 등의 각 단계를 통하여 교사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 교사양성의 커리큘럼에 관해서는 교육방식의 지도와 청소년과의 접촉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발달심리, 교육상담, 도덕의 지도법, 교육실습 등을 포함한 “교직에 관한 과목”의 개선·충실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복지체험·볼런티어 체험, 자연체험 등의 체험활동을 커리큘럼 속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 요청된다.
- 채용에 있어서는 강한 사명감과 풍요로운 인간성을 구비한 지도력 있는 인재를 확보한다는 관점을 특히 중시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함양하는 교육을 행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교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필기시험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고 선발방법의 다양화를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면접의 중시는 물론 볼런티어 활동과 자연체험 활동 경험의 유무를 채용의 중요한 자료로 삼는 것, 사회교육관계 단체와 스포츠단체 등으로부터의 추천을 받아 지역에서의 실천활동을 평가하는 것, 선발과정에서 지역의 유지 등을 활용하여 인물평가를 중시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갈 것이 요망된다.
- 현직연수에 관해서는 초임자연수, 교직경험 5년차·10년차 등의 연수, 각 교과와 오늘날의 교육과제에 관한 연수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충실히 진행함과 아울러 학교외에서의 장기연수로서 대학원 레벨의 현직교육과 민간기업 등에서의 체험적인 연수를 도입할 것이 요망된다. 또한 젊은 세대의 교사를 중심으로 자연체험과 생활체험이 희박한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자연체험 활동, 복지·환경보호 볼런티어 등의 사회공헌 활동, 향토에 대한 학습 등을 연수 내용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서는 유능한 사회인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면허장 제도, 특별비상근 강사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기대한다.

2) 도덕교육을 재검토하여 더욱 발전시키자- 도덕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하자

도덕교육을 충실히 하자

학교의 도덕교육은 인간존중의 정신과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길러주고, 풍요로운 문화의 창조와 민주적인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일본인을 육성하기 위해, 그 기반으로서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덕교육은 학교의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하는데, 초·중학교에서는 특히 이것을 심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시간”으로서 “도덕시간”이 설정되어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공민과(公民科),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학교 교육 전체를 통하여 도덕교육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오늘날 각급 학교의 도덕교육은 몇몇 지역의 뛰어난 실천사례도 발견되는 한편,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도덕시간”에 관해서는 학교차와 교사에 따른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문제점으로서 우선 수업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도덕시간”의 표준 연간 수업시수는 35 시간 정도이지만, 실제 평균 수업시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여(초등학교 33 시간, 중학교 29 시간) 35 시간 정도를 확보한 학급은 초등학교에서 전체의 6 할, 중학교에서 2 할에 머물고 있다(자료 63).

수업의 내용을 보면, 청소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형식화된 지도, 단순히 덕목을 주입시키는 데 머무는 지도도 적지 않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향

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또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감에 따라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도덕시간”이 “즐겁다” 혹은 “즐거울 때도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초등학교에서는 전체를 통하여 9할 정도, 중학교에서는 1학년의 경우 7할을 넘지만, 2·3학년에 되면 5할 정도에 그치고 있다. “즐겁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학년에 올라갈수록 명확하게 감소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약 절반 가량이지만, 고학년에서는 약 2할, 중학교 3학년에서는 5%로 저하하고 있다(자료 64). 또한 즐겁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항상 똑같은 수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이기 때문에” “자료와 강의가 재미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이어서 감동하거나 생각해 볼만한 것이 적기 때문에” 등이 많이 지적되고 있고, 중학생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여 각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도덕교육의 현실을 재검토하여 충실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도덕시간”의 수업시수를 확보하는 등, 지도체제를 정비할 것
- 특별활동 등을 통한 체험적·실천적 활동과의 관련을 중시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도덕 수업을 실천할 것
- 교재 등을 연구하여 청소년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할 것
- 청소년에게 결론이나 답을 가르쳐서 “좋은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감동을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수업을 진행할 것, 그를 위해서 교사는 학급경영 등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꾸준히 연구·노력해야 한다.
- 도덕교육은 주 1시간의 “도덕시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학교교육 전체를 통하여 덕육(德育)이 중시되어야만 한다. “도덕시간”은 그 “핵심적인 시간”으로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교사가 도덕교육의 실시에 소극적이고 그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우선 교사 개개인이 도덕교육의 중요성에 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사에 따르면 도덕교육의 충실을

기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과제로서 “도덕교육에 대한 교사의 의식의 향상”을 지적하는 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장은 리더쉽을 발휘하여 교사의 계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 요청된다(자료 66).

나아가서 보호자와 지역주민이 학교의 도덕교육의 실시상황에 관해서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학교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료 63: 도덕 수업시수별 학급의 비율

(단위: %)

	35 시간 이 상	30-34 시간	25-29 시간	20-24 시간	19 시간 이 하
초등학교	58.0	27.4	10.3	3.3	1.0
중학교	24.4	34.5	21.9	11.6	7.6

주: 전국의 공·사립 초등학교 약 24,000 개교(약 29 만 학급), 중학교 약 11,000 개교(약 14 만 학급)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도덕교육추진상황조사” 1993·문부성

자료 64: 도덕 수업의 감상

(단위: %)

	초 등 학 교			중 학 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1 학년	2 학년	3 학년
즐겁다	55.2	36.5	18.9	15.7	6.0	5.2
즐거울 때도 있다	37.0	52.9	63.7	56.5	48.5	45.4
별로 즐겁지 않다	4.1	6.9	15.4	19.0	28.8	30.2
즐겁지 않다	1.8	2.7	4.6	8.4	15.2	18.0
기 타	1.1	1.5	0.4	0.9	0.9	1.0
무응답	0.8	0.0	0.0	0.0	0.6	0.1

주: 전국의 초등학생 약 2,000 명, 중학생 약 4,5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도덕수업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 1995·金井他

자료 65: 도덕 수업을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초 등 학 교	중 학 교		
		1 학년	2 학년	3 학년
친구의 의견을 들어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15.7	11.9	10.4	10.2
처음부터 알고있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감상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28.4	24.0	20.6	22.7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30.7	30.6	26.3	27.1
자신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23.4	20.2	18.2	16.2
자기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22.2	20.0	19.5	16.8
자신의 장래나 생활방식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9.1	8.1	7.2	5.4
자료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28.7	26.4	32.1	32.1
항상 같은 방식의 수업이기 때문에	42.1	49.4	54.4	53.2
기 타	6.9	9.0	7.7	6.6

주: “별로 즐겁지 않다” “즐겁지 않다”라고 응답한 초등학생 약 250 명, 중학생 약 1,800 명을 대상으로 조사(복수응답)

자료: “도덕수업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 1995·金井他

자료 66: 도덕수업의 충실을 위한 과제

- “도덕교육에 대한 교사 의식의 향상”을 지정한 학교의 비율

(단위: %)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율	59.6	68.9

주: 전국의 국·공·사립 초등학교 24,000 개교, 중학교 11,000 개교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 “도덕교육추진상황조사” 1993·문부성

보다 체험적인 도덕교육을 실시하자

도덕교육이 청소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례를 검토해 보면, 교실내에서의 이른바 좌학(座學)을 통해 단순히 덕목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지도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덕교육을 통해 도덕적인 가치가 청소년의 마음에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덕목의 내용을 청소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함과 아울러,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껴서 태도와 행동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하다.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하게 하고, 도덕교육을 통해 배운 것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도덕시간”에 예의의 중요성을 다루는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인사와 언어사용에 관한 체험을 들려주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예의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다. 또는 “도덕시간”에 인간과 자연의 관련에 관해서 다루는 경우 이과의 자연관찰 활동과 사회과에서의 공해방지 등 환경의 보전에 관한 학습을 서로 관련지우면서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을 함양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상적인 생활과 체험을 토대로 하여 다른 교과에서의 학습활동과의 관련에 유의하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도덕교육의 실천을 위해 연구·노력해야 한다. 특히 중학생에 대해서는 발달단계에 따른 적절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과제를 설정하는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서 도덕성을 기르는 체험활동으로서 볼런티어 활동, 자연체험 활동, 향토의 문화·전통을 익히는 활동 등을 학교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보다 활발하게 전개해야 한다. 이들 활동은 학교행사와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 혹은 각 교과에서도 행해질 수 있지만, “도덕시간”은 그와 같은 체험을 토대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도덕적인 가치에 눈을 뜨고 그 의미와 중요성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는 “핵심적인 시간”으로서 증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특히 삶과 죽음의 문제에 관하여 생각하는 체험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각 학교에서 연구하도록 부탁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고령사회

를 전망해 볼 때 노년과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고 생명의 중요성,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등에 관해서 생각하는 계기로서, 고령자 복지시설과 병원을 방문하여 간호활동을 자신의 눈으로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 등은 큰 의미가 있다.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호스피스 관계자,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다. 또한 신생아의 탄생을 지켜보거나 유아를 돌보는 경험이 부족한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유치원, 보육소, 보건소, 유아원등을 방문하는 것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생명의 존엄성을 배우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각 학교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도덕성의 함양에 도움이 되는 체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단순히 방문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 활동이 목표로 하는 도덕적 가치에 관해서 학습하는 사전·사후의 지도를 착실하게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재를 사용하자

도덕수업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체험적·실천적 활동과 관련된 지도를 충실히 함과 아울러 교실내에서의 수업을 개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특히 중요한 것은 교재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문제이다.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청소년이 도덕 수업이 즐겁지 않은 것으로 느끼는 이유로서 “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라고 응답하고 있어 교재의 형태가 도덕 학습에 대한 청소년들의 흥미·관심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자료 65).

현재의 교재는 이야기 형태의 작품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공허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실화를 소재로 하는 등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위인의 전기 등을 재평가하거나, 명작, 고전, 수상, 민화, 시가, 논설 등 다양한 자료를 발굴하여 활용하는 등의 시도가 요청된다. 이 때 학교도서관 등을 활용하거나 독서지도와 병행하는

등의 시도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은 국가와 지자체 단계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질 높은 교재의 연구·개발, 각 지역·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좋은 교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각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더라도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지도를 행하거나 교재를 읽고 작문을 시키는 지도에만 의존해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도덕시간”과 특별활동 등의 시간을 결합하여 “정의란 어떤 것인가”와 같은 테마를 내걸고 토론이나 논쟁 등을 통한 학습을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좋은 방송 프로그램을 교재로 유용하게 활용하자

“도덕시간”에는 다양한 교재가 사용될 수 있는데, 현재는 읽기자료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TV와 비디오에 어린 시절부터 친숙해 있는 오늘날 청소년들의 실태를 감안하면, 이른바 활자 미디어의 교재만으로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도를 하기 어렵다. TV와 비디오 등을 적극적으로 교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활용되는 TV와 비디오 등의 교재를 보면, 예를 들면 이치메, 교통사고, 약물남용의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 일상의 학교생활을 묘사하면서 도덕과 관련된 테마를 다룬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그 중 상당수는 학교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방영된 것으로서 뛰어난 작품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교육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 프로그램에도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깊은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는 드라마, 선인의 위대함과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역사 프로그램, 사회의 성립과 그 과제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미래에 대한 꿈을 부여하는 과학 프로그램, 따뜻한 가족생활을 묘사한 청소년 대상의 애니메이션 등 교재로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다. 각 학교에서는 방송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수준 높은 일반 프로그램들을 “도덕시간” 등을 통하여 적극

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들 프로그램을 각 학교가 수시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자체의 시청각 센터·도서관 등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집·정리하여 각 학교에 적극적으로 대여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이 때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어떻게 원활하게 얻어내는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 국가에서는 이용자측의 단체와 권리자측의 단체간의 저작권 처리에 관한 규칙의 제정에 관해서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제반 지원을 행해야 한다.

"히어로"·"히로인"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청소년들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한 어른들에 대해서 존경과 동경의 마음을 품고 있으며 이들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인간으로서 보다 훌륭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과 극기심, 인생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체득한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냉소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꿈과 희망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 수업을 통해 청소년이 존경과 동경의 대상이 되는 성인을 접하고 감동을 체험할 수 있다면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존경과 동경의 대상이 되는 성인, "히어로"나 "히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활약하여 국민에게 감동을 준 선수 등이 청소년들에게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의의, 규칙을 지키는 것과 예의의 중요성 등을 설명해 준다면 그 내용은 청소년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될 것이다. 인류의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우주비행사, 전인미답의 땅을 개척하는 모험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예술가 등, 다양한 "히어로"·"히로인"이 청소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회를 갖고자 해도 "히어로"·"히로인"이 학교현장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는 "히어로"·"히로인"의 모습을 TV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거나 비디오·CD-ROM 등의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각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또한 장래에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구비될 인터넷과 TV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교실에서 원격지에 있는 “히어로”·“히로인”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는 현장감 있는 쌍방향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앞으로 각 지자체의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국가에서는 지역을 초월한 전국적인 시스템의 형태와 지원방법에 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도덕시간에 청소년들이 존경하는 지역사회 인재의 힘을 빌리자

도덕교육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고 또한 그 지도에 있어서 청소년을 감동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감안할 때 교사가 혼자서 모든 지도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교사의 도덕교육 지도력의 향상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지역사회 인재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역의 스포츠활동 지도자, 전통문화의 계승자, 기업의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업의 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 혹은 외국인 유학생 등이 각자의 실제 체험을 토대로 하여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기회는 청소년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규칙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 전통문화, 지역과 국가에 대한 긍지와 애착, 이질적인 것과의 공생, 근로의 존엄성 등을 깨닫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지역 인재의 활용형태에 관해서는 특별 비상근 강사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수업의 일부분을 맡기는 형태, 혹은 학기단위 등 정해진 기간의 수업을 맡기는 형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각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 인재에 의한 지도를 대폭적으로 도입할 것이 요망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각 학교가 지역의 인재 활용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지역주민을 “학교지원 волон티어”로서 인재 뱅크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을 행할 것이 요구된다.

지역주민이나 보호자의 조언을 받아서 도덕교육을 진행하자

도덕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체험적인 학습을 도입하거나 지역의 인재를 활용하는 등의 시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가 지역주민과 보호자의 협력을 얻는 것이 불가결하다. 지역사회 내에는 학교의 도덕교육에 협력하고자 하는 주민이 적지 않다. 각 학교의 도덕교육과 관련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시도로서는, 조사에 따르면 “학급, 학년, 학교 통신 등을 이용했다” “학급, 학년 보호자회, PTA 총회 등의 회합을 이용했다”라는 응답이 많은 편이다(자료 67). 한편으로는 “전교적인 도덕수업 참관을 이용했다” “도덕성을 함양하는 학교행사에 참가를 요청했다”고 하는 학교는 2-3 할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67: 도덕교육에 있어서의 가정과 지역사회의 이해·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

(단위: %)

	초등학교	중학교
보호자회, PTA 총회등의 회합을 통해서 행했다	69.2	67.3
도덕교육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하여 행했다	7.3	10.5
학급, 학년, 학교통신등을 통해서 했다	78.0	75.5
도덕교육에 관한 특별한 자료를 작성·배포해서 했다	5.0	6.6
전교적인 도덕수업 참관을 통해서 했다	22.4	20.3
학교행사에 보호자와 지역주민들의 참가를 요청하여 행했다	29.8	32.8
기 타	2.2	2.4

주: 1) 전국의 초등학교 약 24,000 개교, 중학교 약 11,000 개교를 대상으로 조사

2) “도덕교육에 관해서 어떻게 가정과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구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위의 항목을 지정한 학교의 비율(복수응답)

자료: “도덕교육추진상황보고” 1993·문부성

나아가서 각 학교에서 도덕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것인가, 어떤 교재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에 관해서 지역과 청소년의 실정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할 것이 요청된다. 예를 들면, 인간관계가 희박한 도시부의 학교에서 예의와 동정심을 중시하는 것을 중점적인 목표로 설정하거나 혹은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의 학교에서는 주변의 산천, 동식물을 교재로 하여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도덕교육의 중점 설정과 교재의 연구 등의 측면에서 지역과 청소년의 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보호자(PTA)와 학교외의 유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조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일부 교사의 자의에 의해 도덕교육의 내용이 편중된 방향으로 흐르거나 “도덕시간”이 형해화되어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카운셀링을 충실히 하자

학교 카운셀러에게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충실히 하자

오늘날 학교에 있어서는 이지매와 교내폭력, 부등교(不登校) 등 청소년의 의식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보호자가 안고 있는 고민을 들어줄 수 있도록 지자체, 학교 등의 다양한 단계에서 교육상담을 충실히 행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개별 교사가 카운셀링 마인드를 지니고 상담에 응하고 있는가, 교직원간의 협력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상담부의 기능이 활용되고 있는가, 학교외의 상담기관과의 협력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에 관해서 교장을 중심으로 부단히 점검하고 검토해야 한다.

근년에 문부성에서는 학교에 있어서의 카운셀링 능력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임상심리사 등 정신적 문제에 관해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스쿨 카운셀러”로서 학교에 배치하는 실천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해 왔다. 학교에서 스쿨 카운셀러는 청소년과 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적절한

조언을 행하거나 보호자와 교사간의 매개역할을 행하는 등을 통해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과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교사나 친구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문제를 스쿨 카운셀러에게는 마음을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교사는 스쿨 카운셀러로부터 지도방법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을 얻거나 카운셀링 마인드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어, 그 존재는 폐쇄적인 학교의 교직원 조직 속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이와 같이 스쿨 카운셀러가 담당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여 청소년의 마음의 문제의 다양화·복잡화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모든 청소년들이 스쿨 카운셀러에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스쿨 카운셀러의 보다 효과적인 활용방법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그를 토대로 스쿨 카운셀러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관해서 검토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여유있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스쿨 카운셀러에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여유 교실 등을 이용하여 "마음의 교실"이라 할 수 있는 카운셀링 룸의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쿨 카운셀러뿐만 아니라 양호교사, 학교 영양사, 학교 의사, 퇴직 교사, 청소년단체 지도자, 볼런티어 등의 협력을 얻어서 청소년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망된다. 나아가서 PC 통신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하에 상담활동을 행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학교 카운셀러 양성의 충실을 기하자

현재 스쿨 카운셀러의 약 9 할이 임상심리사이다. 임상심리사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 지식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마음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과 발달단계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함으로써 마음의 건강회복을 돕는 "마음의 전문가"이다. 그 자격은 재단법인 "일본 임상심리사자격인정협회"가 기본적으로 심리학 등을 전공한 대학생 석사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하여 인정을 행하고 있다.

앞으로 스쿨 카운셀러 양성의 충실과 질·양의 확보를 기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육기관에서의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가의 양성에 충실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임상심리사를 양성하는 대학원에 사회인의 입학을 특별 배려하는 등 충실한 운영이 요망된다.

또한 마음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 등이 안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레벨의 전문성을 구비한 “마음의 전문가”의 확보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직업으로서 보다 높은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임상심리사의 국가자격제도 창설을 고려해 볼 만하다.

참고 17: 스쿨 카운셀러 활용 조사연구

문부성에서는 학교에 있어서의 카운셀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95 년도부터 “스쿨 카운셀러 활용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임상심리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경험을 보유한 “스쿨 카운셀러”를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하여 그 활용, 효과 등에 관한 실천적인 조사연구를 행하는 것으로서, 학교외의 전문가를 학교에 본격적으로 배치하는 첫 시도로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스쿨 카운셀러는 학생에 대한 카운셀링을 비롯하여 교직원과 보호자에 대한 지도·조언, 카운셀링 등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등을 직무로 하여 활동하게 된다. 문부성에서는 사업의 창설 이래 그 확충을 도모하고 있어 대상학교 수는 1995 년의 154 개교에서 1998 년의 1,661 개교로 크게 증가하였다.

교사는 카운셀링 마인드를 함양하자

스쿨 카운셀러의 배치가 진전되어도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청소년들과 접하는 것은 교사들이다. 교사가 교과지도 등의 역량향상에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와 더불어 청소년의 다양한 상담에 응하는 것, 문제행동의 조짐을 발견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는 것,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 주는 것 등이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교사가 카운셀링 마인드를 갖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말을 차분히 듣고 상대와 동일한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상대를 신뢰하여 자기실현을 돕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교사는 이와 같은 자세를 구비함으로써 비로소 청소년들과 공감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청소년들로부터 신뢰받는 상담상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고민이나 걱정거리의 상담상대를 물어본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2할 정도가 교사와 상담한다고 응답했지만,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여 고교생이 되면 1할에도 못미친다(자료 68). 교사는 카운셀링 마인드를 가지고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간주하고 그 의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카운셀링 마인드가 있고 교육상담에 관한 역량을 구비한 교사를 확보해야 하고 양성·연수의 각 단계를 충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교사양성의 커리큘럼에는 교육상담과 카운셀링에 관한 학습이 보다 중시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양성을 담당하는 대학에 있어서는 그 충실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요청된다. 또한 학생지도에 관한 전문적·실천적인 연수에 있어서도 교육상담과 카운셀링에 관련된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자료 68: 청소년의 고민상담 상대

(단위: %)

	초등학교 4-6년생	중학생	15-17세
1	모친 74.1	학교친구 64.3	학교친구 73.3
2	학교친구 51.0	모친 53.4	모친 42.9
3	부친 38.1	부친 24.1	부친 19.3
4	학교교사 18.6	학교교사 13.4	형제 14.5
5	형제 12.9	형제 13.1	이성친구 12.0
6	이웃친구 10.5	이성친구 7.8	학교때 친구 8.7
7	친척 8.5	이웃친구 6.0	학교선배 8.5
8	단체·서클 친구 3.0	학교선배 5.2	학교교사 7.9

주: 전국의 초등학교생·중학생 각각 약 1,000명, 15-17세 약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기본조사" 1995·총무청

"마음의 안식처"로서의 양호실의 역할을 중시하자

양호실을 찾아오는 청소년들 중에는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학습문제, 친구관계, 가정사정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또한 내적인 고민과 갈등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신체적인 문제로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청소년이 초·중·고등학교의 양호실을 방문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마음의 문제와 마음의 고민을 듣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중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이 현저하게 발견된다. 또한 양호교사가 "마음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약 절반, 중·고등학교에서 8할 수준에 달하고 있고 지속적인 증가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자료 69). 학교에 등교하더라도 수업에는 출석하지 않고 양호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양호실 동교" 청소년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청소년이 있는 학교의 비율은 중학교에서 약 4할에 달하고 있다(자료 70).

이와 같이 양호실은 이른바 “마음의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양호교사는 고민과 호소를 들어주거나 신체적 문제의 배경에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이 나타내는 다양한 조짐에 일찍 주목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약물문제, 성 일탈행동, 이지메, 부등교 등의 심신 건강에 관한 현대적 과제의 심각화를 감안해 볼 때 양호교사의 건강상담 활동(헬스 카운셀링)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각 학교는 양호교사로부터 청소년들의 모습에 관해서 일상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양호교사와 다른 교사, 스쿨 카운셀러가 협력하여 마음의 건강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해 가는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음의 건강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양호교사를 보건주사(保健主事)로 등용하는 등 그 활용을 모색함과 아울러 양호교사의 복수배치를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양호교사 양성 커리큘럼의 개선과 체계적인 현직연수의 내실화를 통해 기초적인 카운셀링 능력의 육성, 현대적인 마음의 건강문제에 대한 이해의 촉진 등 양호교사의 자질향상을 기하고 청소년들의 마음의 건강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69: 양호교사가 “마음의 문제”를 계속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학교의 비율

(단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90	46.3	72.4	70.6
1996	46.0	75.8	79.8

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1996년 각각 약 120 개교, 1990년 각각 약 300 개교)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 “양호실 이용상황에 관한 조사” 1996·일본학교보건회

자료 70: “양호실 등교”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는 학교의 비율

(단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90	7.1	23.2	8.1
1996	12.1	37.1	19.4

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1996년 각각 약 120개교, 1990년 각각 약 300개교)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 “양호실 이용상황에 관한 조사” 1996·일본학교보건회

4) 부등교(不登校) 문제에는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자

부등교는 마음의 성장의 도약기로 파악하여 여유를 갖고 대응하자

부등교(不登校) 현상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에 있어 1996년도에 “학교가 싫어서”라는 이유로 연간 30일 이상 결석한 청소년은 초·중학교 합쳐서 약 9만4천명(전년대비 15% 증가)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하는 등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자료 71). 또한 그 내역을 보면 “무기력해서 그냥 등교하지 않는” 경우와 “등교의 의지는 있지만 신체의 부조를 호소하며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자료 72).

이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우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으로서 부등교 청소년은 마음의 성장의 도약기에 있어서 주위의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빨리 등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부등교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성을 신장시키고 성장해 갈 수 있는가를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학교는 가정과 협력하여 부등교 문제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카운셀링 마인드를 가지고 상담에 응하는 것, 스쿨 카운셀러와 지자체의 교육상담원 등 학교 내외의 전문가 및 교육상담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이 문제는 학교를 통해서만 해결하려 고집해서는 안된다. “적응지도 교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지도시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개방적인 학교운동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적응지도교실과 가정에서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충지도 등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등교 청소년들이 막연한 불안과 무기력과 같은 마음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야외체험 활동 등이 큰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관계기관·단체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의 추진이 요망된다.
- 이제까지 전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중학교졸업정도 인정시험”을 부등교 청소년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 왔는데, 이들 조치를 유효하게 활용할 것이 요망된다.
- 또한 본 심의회는 고등학교의 입학자 선발시 선발자료로서 부등교 청소년들에게는 조사서에 대신하여 학생과 보호자가 그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동기와 그곳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 중학교 시절에 주체적으로 배운 사항 등을 기술한 자료를 활용할 것을 제창해 왔다. 이와 같은 방안은 이미 일부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앞으로 보다 폭넓게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

자료 71: 부등교학생의 추이

(단위: 천명)

	초등학교	중학교	전 체
1991	12,645	54,172	66,817
1992	13,710	58,421	72,131
1993	14,769	60,039	74,808
1994	15,786	61,663	77,449
1995	16,569	65,022	81,591
1996	19,498	74,853	94,351

주: “학교가 싫어서”를 이유로 30 일 이상 결석한 학생수

자료: 문부성 조사

자료 72: 부등교의 양태구분

(단위: 명, %)

구 분		설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계
A	학교생활에 기인하는 형	괴롭히는 학생의 존재나 교사 와의 인간관계등 분명하게 이 해할 수 있는 학교생활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등교하지 않 으며,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 이 지도의 중심이 되는 형	1,487 (7.6)	7,502 (10.1)	8,989 (9.6)
B	놀이· 비행형	놀이 위해서나 비행그룹에 가 입하거나 해서 등교하지 않는 형	261 (1.3)	10,345 (13.9)	10,606 (11.3)
C	무기력형	무기력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등교하지 않는 형. 등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좌약감 이 적고, 데리러 가거나 강하 게 촉구하면 등교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4,572 (23.5)	18,143 (24.4)	22,715 (24.3)
D	불안등 정신적 혼란형	등교의 의지는 있지만 신체의 부조를 호소하고 등교하지 않 거나 막연한 불안을 호소하며 등교하지 않는 등, 불안을 중 심으로 한 정신적인 혼란에 의해서 등교하지 않는 형	6,444 (33.1)	17,759 (23.9)	24,203 (25.8)
E	의도적인 거부형	학교에 가는 의미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방향을 선택하여 등교하지 않는 형	769 (4.0)	3,920 (5.3)	4,689 (5.0)
F	복합형	위의 여러 형이 복합되어 어 느것이 주된 요인인지를 결정 하기 어려운 형	4,947 (25.4)	14,324 (19.3)	19,271 (20.6)
G	기 타	위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형	965 (5.0)	2,229 (3.0)	3,194 (3.4)
계			19,445 (100.0)	74,222 (100.0)	93,667 (100.0)

주: 양태의 구분은 교육센터등 객관적인 판정(진단)을 참고하여 현재 또는 부등
교의 상태였던 기간중 가장 현재와 가까운 때의 상태에 의해서 학교가 행한
것임

자료: 문부성 조사

5) 문제행동에 의연히 대응하자

"성실성"과 "이질성"에 대한 부당한 이지메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자

이지메 문제는 학교가 도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이지메는 힘이 약한 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많지만, 여기서는 특히 "성실성"과 "이질성"에 대한 이지메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지메 문제는 이지메하는 청소년 측에 제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가짐을 우선 문제삼지 않으면 안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이지메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정의감과 규칙을 중시하는 마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희박함을 알 수 있다(자료 73). 규범의식에 초점을 둔 다른 조사결과를 봐도, 이지메한 경험이 "몇번 있다"고 한 청소년들은 절도, 흡연, 음주 등에 관해서 "매우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른 청소년에 비해 매우 적어서 규범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이지메당한 경험이 "몇번 있다"고 한 청소년들은 그 비율이 다른 청소년들을 상당히 상회하고 있다(자료 74). 이와 같은 조사결과로부터 규범의식이 낮은 청소년이 규범의식이 높은 성실한 청소년을 이지메의 표적으로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열심히 수업을 듣고자 하는 청소년,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소년,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 등 높은 모럴을 지닌 청소년들이 이지메를 당하고 부당하게 학대받고 있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성실성"에 대한 이지메가 횡행하는 배경에는 이질적인 것을 배제하고자 하는 "동질성에 대한 집착"이 있다. 특히 중·고교생들은 친구들끼리 무리를 지어 행동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소집단에서는 구성원 각자의 개성은 억압되고 "동질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신과 다

른 것은 인정할 수 없다” “혼자서만 착한 척해서는 안된다” “동료들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자세와 태도가 많이 발견된다.

자료 73: 이지메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의 사물에 관한 생각

(단위: %)

	전 체	이지메한 경험이 있다
주위의 모든 사람과 다른 의견이더라도 옳바르다고 생각되는 모두에게 말하는 편이다	44.8	44.5
어떤 일이라도 끈기있게 추진한다	54.3	49.1
자신이 잘못했다면 고치려고 하는 편이다	81.3	73.1
클라스 메이트라면 친구가 아니더라도 곤란한 처지에 있으면 돕는다	62.1	54.3
학급의 일은 싫어하는 것이라도 피하지 않고 하는 편이다	62.8	54.3
손해보는 일이 많더라도 옳바르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	69.1	61.6
친구의 일에는 너무 참견하지 않는 것이 좋다	55.6	52.7
마음에 들지 않는 클라스 메이트라도 가능한한 사귀 고자 노력한다	55.6	48.2
납득할 수 없는 규칙이라도 규칙은 지켜야만 한다	59.9	49.4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서 상처를 주지않도록 조심한다	78.3	69.8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면 나쁜 일을 해도 허용될 수 있다	14.6	21.8

주: 1) 각 항목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2) 전국의 중학생 약 4,700 명에 대해서 조사

자료: “학생의 이지메등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결과” 1994/5·문부성

청소년들 사이에서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어울리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거나 이지메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행동으로 친구들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는 향상의 의욕을 지닌 성실한

청소년을 비롯하여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청소년, 주위에 부화뇌동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이질”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이지메의 표적이 되어 버린다.

학교는 이와 같은 부당한 행위인 이지메를 허용하지 않도록 지도에 임할 것이 강하게 요청된다. 그리고 정의감과 윤리관,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 서로 개성을 중시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청소년들이 체득하여 전향적인 인간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74: 학생의 규범의식과 이지메 체험

(단위: %)

	이지메당한 경험	이지메한 경험	전 체
물건을 훔친다	82.7	65.4	82.3
학교에서 담배를 피운다	79.8	55.8	76.7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한다	79.8	51.9	71.4
집에서 담배를 피운다	66.3	40.4	65.2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신다	71.3	51.0	62.1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몰래 탄다	58.7	30.8	53.0
다른 사람의 우산을 몰래 사용한다	58.7	46.2	51.8
집에서 술을 마신다	45.3	21.2	38.1

주: 1) 각 항목에 관해서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이지메당한 경험” “이지메한 경험”은 각각의 경험이 “몇번 있다”고 응답한 사람

2) 東京, 埼玉, 神奈川の 중학생 약 2,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규범의식과 이지메” 1996·베넷세교육연구소

교사의 노력으로 이지메를 근절시키자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지도, 지역에서의 스포츠활동과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윤리관과 동정심과 같은 풍요로운 인간성을 함양시켜 주는 등 가정과 지역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학교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에 관해서 강조하고자 한다.

이지메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은 담임교사에게 이를 알림으로써 이지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위구심을 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교사측에서도 과연 자신이 관여·개입함으로써 이지메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지메를 당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담임이 개입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질문한 결과, 상당수가 “이지메가 사라졌다”고 회답하고 있고(초등학교 48%, 중학교 44%, 고등학교 37%), 사태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불과 2% 남짓하다(자료 75).

우리는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교사에만 의존해서는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교사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다시금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교사가 “어떤 이유에서든 이지메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자신의 영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임하기를 바란다.

한편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클라스에서 이지메를 보고나 들은 청소년에 대해서 다른 청소년에 대한 이지메에 어떻게 관여했는가 질문한 결과, “가능한 한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는 응답이 과반수에 달한 것은 유감이지만, 다른 한편 “그만 두도록 말했다”는 응답과 “뒤에 선생님께 이지메에 대하여 말씀드렸다”는 응답도 상당수에 달했다(각각 초등학교 약 3할, 중학교 1-2 할)(자료 76). 이와 같이 정의감이 풍부한 용기 있는 청소년도 결코 적지 않다. 용기를 가지고 대응하는 이와 같은 청소년들을 응원하여 이지메를 용납하지 않는 친구관계를 확산시킴으로써 학교로부터 이지메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 18: 이지메와 가정

이지메문제에 대해서는 그 조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부모가 어느 정도 이지메를 알고 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자신의 자녀가 이지메당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부모가 많았다. 그리고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의 자녀가 이지메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부모가 대단히 적다는 사실이다(자료 77). 또한 담임과

의 관계에서, 이지메 사실을 알고 있는 보호자도 상담하는 사람은 3-4 할 정도로 그다지 많지 않다.

이지메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가정환경을 보면 가정생활이 즐겁지 않고 느끼고 있는 청소년이 비교적 많고 가정에서의 대화가 부족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부모측도 “자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비교적 많았다.

앞으로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부모-자녀간 혹은 담임과 부모 사이의 의사소통이 한층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19: 이지메 문제의 대응

가정·지역사회·학교에 있어서 각각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과 그 지침에 관해서는 근년에 문부성등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들을 참조하여 각각의 입장에서 노력할 것이 요청된다.

- “이지메문제에 관해서 당면긴급히 대응해야 할 점에 관해서” [초등중등교육국장 통지] (1994. 12)
- “이지메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당면 취해야 할 방책에 관해서” [초등중등교육국장 통지] (1995. 3)
- “이지메문제에의 대응의 철저등에 관해서” [초등중등교육국장 통지] (1995. 12)
- 문부대신 “긴급 어필 - 바꿀 수 없는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1996. 1)
- “이지메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에 관하여” [초등중등교육국장·생애학습국장 통지] (1996. 7)
- 학생의 문제행동등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 보고 “이지메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에 관하여” (1996. 7)

자료 75: 학급 담임교사의 이지메 대응에 의한 결과

(단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지메가 없어졌다	47.6	43.9	37.3
이지메가 더 심해졌다	1.7	2.6	2.0
전과 동일하게 계속된다	23.2	25.6	21.6
몰래 이지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6.0	14.7	17.6
무응답	11.5	13.2	21.6

주: "이지메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4-6년생) 약 450명, 중학생 약 600명, 고교생 약 100명에 대해서 "담임의 이지메에 대한 대응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자료: "학생의 이지메등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결과" 1994/5·문부성

자료 76: 이지메에 대한 청소년의 관련방식

(단위: %)

	초등학생	중학생	고교생
가능한한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	43.4	50.9	47.5
이지메당했다	22.8	13.2	9.6
중심이 되어 이지메했다	2.0	2.3	4.3
함께 이지메하자고 해서 이지메에 가담했다	6.3	4.7	1.2
자신이 스스로 이지메에 가담했다	4.2	4.4	4.9
이지메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주위에서 이지메를 응원했다	6.2	9.1	6.3
그만두도록 말했다	29.4	17.5	8.3
뒤에 이지메당한 아이를 위로했다	35.7	19.1	10.2
뒤에 선생님께 이지메에 관해서 말씀드렸다	26.1	10.5	2.8
뒤에 부모님께 이지메에 관해서 말씀드렸다	24.3	16.6	7.6
기 타	18.4	19.4	26.9

주: 전국의 "이지메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4-6년생) 약 1,000명, 중학생 약 2,400명, 고교생 약 650명에게 질문한 결과(복수응답)

자료: "학생의 이지메등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결과" 1994/5·문부성

자료 77: 이지메에 관한 부모의 인지도

A. 자녀의 이지메 피해체험과 보호자의 인지상황

- “이지메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보호자에 대해서 “자녀가 이지메당한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단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지메당했다	37.0	33.9	17.7
이지메당하지 않았다	45.5	48.6	57.8
모르겠다	14.3	12.3	19.6
무응답	3.1	5.2	4.9

자료: “학생의 이지메등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결과” 1994/5·문부성

B. 자녀의 이지메 가해체험과 보호자의 인지상황

- “이지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보호자에 대해서 “자녀가 이지메한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단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지메한 경험이 있다	3.4	3.6	1.9
이지메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10.5	10.0	4.4
없다고 생각한다	78.1	74.0	71.9
모르겠다	5.2	7.6	13.8
무응답	2.8	4.0	8.0

자료: “학생의 이지메등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결과” 1994/5·문부성

악물남용 등의 위험성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자

중·고교생의 각성제 남용에 의한 보도(補導) 인원이 근년에 최고수준에 달하는 등 청소년들의 악물남용의 문제는 극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자료 78). 그 배경에는 각성제 등의 악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상황변화와 더불어 악물남용에 대한 죄악감이 희박화하여 청소년 사이에서 이것을 패션감

각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풍조까지 등장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초·중·고교생의 각성제 등 약물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우선 약물에 대한 인상에 관해서는 “마음과 몸이 나뉘게진다” “한번만 사용해도 중지할 수 없게 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상이 많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분이 좋아진다” “다이어트나 잠을 쫓는 데 효과가 있다”는 등의 긍정적인 인상도 증가하고 있다(자료 79). 또한 약물의 남용과 소지가 “법률에 의해서 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지만, 고교 3학년의 경우에도 1할 정도가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서 약물의 남용에 관해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허용되어서도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간접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용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자료 80).

각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이 약물을 입수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주의할 것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해서 체육·보건체육 등의 교과, 도덕, 특별활동 등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서 약물남용의 위험성·유해성과 위법성에 관해서 올바르게 이해시켜서, “약물남용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 허용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학교의 교사가 지도자료 등을 토대로 강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게 이해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약물남용 방지교실의 개최를 추진하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학교외의 전문가(예를 들면 경찰직원, 마약담당관 OB, 의사, 약제사 등), 약물의존증 환자의 갱생에 종사하는 관계자 등으로부터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이 스스로 생생한 체험을 토대로 약물의존이 심신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고 본인과 주위의 사람들의 고뇌를 심화시킨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청소년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자기규제를 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약물남용의 문제가 저연령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 문제를 접해오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각 지역과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면서 초등학교 단계부터 시작할 것이 요망

된다.

자료 78: 각성제 남용의 추이

(단위: 명)

	1993	1994	1995	1996	1997
소년전체	980	827	1,079	1,436	1,596
중학생	17	13	19	21	43
고교생	38	41	92	214	219

주: 각성제 남용으로 보도된 소년의 수

자료: 경찰청 조사

자료 79: 각성제에 대한 인상

(단위: %)

	몸과 마음이 나른해진다	한번이라도 사용하면 중지할 수 없게 된다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	다이어트나 잠을 쫓는 데 효과가 있다
초등 5	47.9	29.1	4.4	1.6
초등 6	59.8	40.9	6.6	1.7
중학 1	66.3	54.7	10.8	3.1
중학 2	72.1	65.0	15.7	4.3
중학 3	77.2	70.0	18.4	5.2
고교 1	77.8	71.1	17.3	4.9
고교 2	78.8	71.4	21.2	6.1
고교 3	79.1	70.8	21.3	7.1

주: 전국의 초·중·고교생 약 8 만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학생의 각성제등 약물에 대한 의식 조사연구보고서" 1997·문부성

자료 80: 약물에 대한 시각

(단위: %)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허용되어서도 안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다
초등 5	89.2	2.3
초등 6	90.9	3.0
중학 1	88.1	4.9
중학 2	82.9	8.3
중학 3	81.3	9.0
고교 1	78.5	10.8
고교 2	74.9	11.9
고교 3	75.2	12.0

주: 전국의 초·중·고교생 약 8 만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학생의 각성제 등 약물에 대한 의식 조사연구보고서" 1997·문부성

성을 유희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시각을 고쳐주자

소년비행 중에서 여자를 중심으로 한 "유희비 마련"을 위한 성의 일탈행동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고 근년에는 보도인원이 연간 2 천명을 상회하고 있다(자료 81).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테레쿠라·전언(傳言) 다이얼·투쇼트 다이얼을 이용하거나 성인 이성과의 교제를 통해서 금전을 얻는(이른바 "원조 교제") 등의 행동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 이 문제의 배경의 하나로서 청소년들의 규범의식의 저하를 들 수 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교생은 "매춘 등 성을 판매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무방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등 성 문제에 관용적인 경향을 엿볼 수 있다(자료 20). 우리는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감안하여, 정면에서 다루지 않아왔던 성의 문제에 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성은 동경, 공포

와 불안, 수치 등 다양한 감정의 대상으로서 정신적 통제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성은 청소년의 자립을 향한 중요한 과정이지만 때로는 정신적 갈등과 유희에 치우친 나머지 성적 일탈행동으로서 나타나기도 한다. 교사와 부모는 일탈적인 행동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등 의연히 대응하면서 그와 같은 행동의 배후에 있는 무규율적인 생활방식, 목적의식 및 자존심의 회박성, 내면의 스트레스와 갈등에 눈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떻게 성의 문제를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해서 청소년들과 대화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성행동의 본질을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료 81: “유홍비 마련”을 위한 성의 일탈행동 추이

(단위: 명)

	1988	1989	1990	1991	1992
인 원	1,480	1,064	939	967	1,135
	1993	1994	1995	1996	1997
인 원	818	1,508	2,145	2,517	2,309

주: “유홍비 마련”을 위한 성의 일탈행동으로 보도·보호된 여자소년의 수

자료: 경찰청 조사

- 이와 같은 접근방식에 유념하면서 동시에 현재 확산되고 있는 구체적인 성의 일탈행동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원조교제”에 관해서는 토론 등의 방법을 통해,
 -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금전을 취득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매춘이며 인간으로서 수치스러운 행위라는 것
 - 약물남용에 빠지게 되면 폭력단에 이용당하는 등 다양한 범죄에 말려들 위험이 있다는 것
 - 원하지 않는 임신과 성감염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
 - 장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커다란 정신적 부담이 되리라는 것
- 등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인간관계의 방식을

깊이 생각하도록 촉구하고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하려 할 때, 이를 본인의 자유로 간주하여 무관심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다.

- 나아가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청소년들보다도 오히려 성인들이 크게 반성해야 한다. 매춘 등 성의 일탈행동을 일삼는 청소년의 모습은 금전욕과 성적인 욕망을 조장하는 성인사회의 풍조 그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 서는 청소년보호육성조례의 음란행위 처벌규정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매춘과 관련된 성인을 처벌하는 등 경찰의 보다 많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학교·교사를 지원하자

최근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지메·부등교와 더불어 다양한 교내폭력이 급증하고 있어 1996 년도는 약 1 만여건에 달하여 조사 개시 이래 가장 많은 사건 수를 기록하고 있다(자료 82). 그 내역을 보면 학생간 폭력, 대교사 폭력, 기물파손 등 모두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자료 83). 학교에서는 이들 행동에 대한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실이 발견되는 등 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학교와 교사들은 학생들의 정신적 고민과 갈등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마음의 성장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고 수업과 학급운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도가 불충분한 학교와 교사에 대해서 그 개선을 요청할 필요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정열을 가지고 의연한 자세로 노력하고 있는 학교와 교사를 뒷받침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구체적인 사정이나 경위와는 무관하게 우선 학교와 교사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사죄를 받아내야만 한다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가 위축되어 문제행동에 대한 의연한 대응을 회피하고 말썽의 소지가 없는 무난한 대응을 택하거나, 성의껏 문제에 도전하는 교사가 주위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이

와 같은 학교와 교사의 약점을 이용하여 폭언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학교와 교사가 위축됨이 없이 폭력적인 행동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처해 있는 상황과 학교측의 개선노력에 대해서 보호자 전체에게 잘 설명하고 그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장은 평소부터 보호자·PTA와 학교외의 유지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면서 학교의 학생지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침, 경찰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침 등을 확고하게 수립해 놓고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학교, 그리고 각 교사는 이와 같은 보호자와 지역의 뒷받침에 의해서 확립된 방침을 토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료 82: 교내폭력의 발생건수 추이

(단위: 천건)

	합 계	중학교	고등학교
1983	4,315	3,547	768
1984	3,165	2,518	647
1985	3,083	2,441	642
1986	2,801	2,148	653
1987	3,071	2,297	774
1988	3,913	2,858	1,055
1989	4,416	3,222	1,194
1990	4,509	3,090	1,419
1991	4,890	3,217	1,673
1992	5,260	3,666	1,594
1993	5,545	3,820	1,725
1994	6,484	4,693	1,791
1995	8,031	5,954	2,077
1996	10,576	8,169	2,406

자료: 문부성 조사

자료 83: 교내폭력의 내역(1996)

(단위: 건, %)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전 체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대교사 폭력	1,316 (48.2)	16.1	234 (3.0)	9.7	1,550 (39.0)	14.7
학생간 폭력	4,682 (32.6)	57.3	1,971 (14.5)	81.9	6,653 (26.7)	62.9
기물파손	2,171 (41.3)	26.6	201 (55.8)	8.4	2,327 (42.5)	22.4
합 계	8,169 (37.2)	100.0	2,406 (15.8)	100.0	10,575 (31.7)	100.0

주: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문부성 조사

경찰이나 아동상담소 등의 관계기관과 자발적으로 협력하자

-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관해서 학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나이프를 가지고 다니는 것, 다른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위협하는 것, 폭력을 행사하는 것, 약물을 사용하는 것 등이 잘못된 위법행위라는 것을 우선 각 가정이 책임있게 청소년들에게 인식시켜야 하지만, 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활동의 장을 통해서 이해를 촉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나이프 혹은 각성제 등의 약물을 교내에 갖고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혹은 폭력행위가 목격되었을 때 학교는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청소년들에게도 허용될 수 없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학교 전체 차원에서 의연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교장의 판단하에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은 학교에서의 대응은 충분한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드물다. 학교에서는 평소부터 경찰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에서의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교와 경찰의 협력에 관해서는 평소부터 학교내외의 문제행동에 관해서 정보교환을 하거나 경찰의 소년상담 전문직원·소년보호 직원 등과 의견교환을 행하고 또한 규범의식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약물남용방지교실의 개최 등)이 중요하다.
- 또한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다른 학생의 학습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심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저지르는 학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교사가 의연한 태도로 지도하려 해도 오히려 심신에 위협을 느끼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와 같은 경우 교장의 판단하에 경찰의 소년부문과 상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의 정기적 혹은 수시 학교방문을 요청하고 필요한 때에는 신속하게 경찰에 대해서 연락·협력요청을 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청소년들 전체가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학교에 부과된 책무이다. 학교밖의 반응에 신경을 써서 조치에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교장의 정확한 판단이 요청된다.
- 또한 구체적인 경찰과의 연락·협력에 있어서는 학교가 교육의 장임을 배려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학교와 경찰이 충분한 의사소통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가정환경이 다양화·복잡화하고 있는 오늘날, 문제행동의 배경에 가정에서의 양육의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어 전문적인 케어가 요청되는 청소년이 적지 않다. 아동상담소는 아동복지사, 수퍼바이저, 상담원, 심리판정원, 치료사, 의사 등의 직원을 확보한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비행상담에 대한 대응, 가정계판소로부터 송치된 소년에 관한 조사와 지도 등을 행하고 있어, 학교가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방식에 관해서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교가 경찰과 아동상담소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기관과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협력하여 대처해 갈 것인가에 관한 방침에 대하여 미리 보호자와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학교가 과감한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교장이 평소부터 보호자(PTA)와 학교 외의 유지와 충분한 정보교환·의견교환을 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공통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여유있는 학교생활로 청소년의 자기실현을 도모하자

교육내용을 엄선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교육을 발전시키자

학교는 공부하는 장소이지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목표를 가지고 공부와 스포츠에 몰두하고 친구와 사귀는 것이 가능하다면 청소년들의 생활은 활력있고 충실해질 것이다. 청소년들이 친구·교사 더불어 같이 배우고 활동하는 가운데 존재감과 자기실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학교만들기를 지향하여 노력하는 것은 마음의 교육의 충실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일이다.

- 이를 위해서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에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지향하여 교육내용을 엄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내용의 엄선 그리고 학교 주 5 일제의 추진에 의해서 형성되는 여유시간 속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시행착오와 체험적 학습을 축적함으로써 “살아가는 힘”을 함양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시각에 입각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본심의회의 “21 세기를 전망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형태에 관하여”의 제 1 차답신을 토대로 교육과정 기준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기준의 개정과 더불어 각 학교에서도 자기학교의 교육과정을 끊임없이 재검토하고 지도내용의 정선을 기하면서 가능한 분야부터 교육활동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오늘날 청소년들 사이에서 적극성의 결핍, 자존감과 자기유용감의 결여 등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의 장점을 평가하고 그 능력·적성, 흥미·관심에 따라서 개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전개하여 청소년들이 성취감과 달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서 각 학교에서는 개별지도와 보충학습 등 개인에 적합한 지도를 추진함과 더불어 팀 티칭 등 지도방법의 개선, 교재의 연구, 학습진도가 뒤떨어진 학생과 지진아로 판단되는 학생들을 위한 반복학습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 흥미·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청소년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관점에 입각하여 학교 교육활동의 형태를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흥미·관심에 따라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충분한가, 체험적인 학습이 충분히 도입되어 있는가, 부활동에 있어서 참가를 강제하거나 승리 지상주의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와 같은 점을 재검토할 것이 요청된다.
- 청소년들의 학습을 위한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교사와 청소년이 서로 대화하기 위한 여유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양한 행사나 회의 혹은 연구 등으로 교사가 자주 학교밖으로 외출하는 등 교사와 청소년이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학교로부터의 보고를 요구할 때 혹은 학교에 대한 전달을 행할 때 지역과 학교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요구사항을 엄선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학교측에서도 행사나 회의의 운영, 연구와 연수의 형태에 관해서 필요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음미하는 등 재검토가 요청된다.

시행착오가 가능하고 다양한 노력을 평가하는 입시개혁을 실시하자

- 학교에서 교육내용의 업선을 추진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수험경쟁의 완화를 위하여 대학·고등학교의 입학자 선발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결하다. 이제까지 입학자 선발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어 왔지만, 아직도 오직 지식량의 많고 적음을 묻는 페이퍼 테스트에 의한 학력시험에 편중되는 등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에 대한 평가와 다양한 개성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시행착오와 체험을 축적함으로써 “살아가는 힘”을 기르고 풍요로운 인간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선의 노력이 요청된다.
- 이 문제에 관해서 작년, 본심의회에서는 “21 세기를 전망한 우리나라의 교육의 형태에 관하여”의 제 2 차답신에서 개성존중의 기본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선발방법·척도의 다양화를 진전시킨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구체적인 제언을 행했다. 예를 들면 대학입학자 선발에 관해서는 조사서·소논문·면접등을 활용한 신중한 선발의 실시, 이수과목 등 지정제의 도입, 볼런티어 활동 등 다양한 활동경험의 평가, 각 대학·학부에 있어서의 복수 선발기준의 도입, 추계 입학의 확대, 고교 조사서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 대학입시센터 사업의 개선들을 제언했다.
- 또한 고등학교 입학자 선발에 관해서는 학력시험 실시 교과목의 다양화, 동일고교에서의 복수의 선발기준 도입, 청소년과 보호자의 자기신고서 활용, 추천입학의 추진 등을 제언했다. 청소년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들 제언에 기초하여 대학·고등학교의 입학자 선발의 개선이 시도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을 비롯한 관계자의 노력이 요망된다.
- 과도한 수험경쟁의 문제는 학(교)력편중사회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기업과 관공서가 채용 등에 있어서 형식적인 학(교)력을 존중해 온 것, 많은 부모가 “좋은 학교 = 좋은 회사 = 행복한 인생”이라는 도식을 믿고 있는 것 등이 수험경쟁의 과열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변화

가 격심한 시대에서는 18 세 시점에서의 시험의 합격여부는 이전 만큼 커다란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그 뒤의 인생에서 어떻게 배우고 진정한 실력을 쌓아가는가가 중시되게 된다. 현실적으로 기업과 학교도 “살아가는 힘”을 중시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다. 각 학교에서는 진로지도의 기회 등을 통하여 부모가 현실사회의 변화에 주목하여 비교의식, 동질지향, 과도하게 연령에 구애받는 가치관 등을 변화시켜갈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와 같은 가치관과 형식적인 평등주의를 시정하여 진정한 생애학습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앞으로 우리는 소자화(小子化)에 의한 18 세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입학의 문호가 넓어지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를 맞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지식을 주입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하여 확실하게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리라는 점을 강조해 둔다.

청소년들의 독서를 촉진하는 연구를 하자

독서는 풍요로운 감성과 정서, 그리고 사려깊은 마음을 함양하는 데 있어 중요한 활동이다. 그러나 오늘날 초·중·고교생의 독서상황을 보면, 독서량이 감소하여 전혀 책을 읽지 않는 청소년(不讀者)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자료 84). 이와 같은 “책으로부터의 이탈”의 배경에는 청소년을 둘러싼 정보환경의 변화와 생활에서의 여유상실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가정에서 유아기부터 독서를 즐기는 체험을 청소년에게 제공함과 아울러 학교에서도 독서를 촉진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학교에서는, 우선 첫째로 청소년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동이야말로 독서습관을 기르는 핵심적인 체험이다. 그를 위해서 예를 들면 사서교사를 비롯한 학교의 교사 자신이 청소년에게 좋은 책의 정보를 입수하고 청소년의 독서욕구의 파악을 위해 노력하며, 공공도

서관 등과의 협력을 기할 것이 요망된다.

- 또한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10 분 독서시간”을 설정하여 자유롭게 책을 읽게 하는 시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교가 독자적인 독서시간을 설정하거나 독서회를 행하는 것, 사서교사와 학급담임 등 교사가 자신이 읽은 책을 소개하거나 그 일부를 들려주는 것 등도 이러한 시도의 하나이다. 각 교과 등에서 책을 활용하여 “조사하는 학습”을 중시하는 것도 독서와의 만남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교사들에게는 독서를 즐기는 청소년의 마음에 공감하는 태도가 요청된다. 독서를 통해서 청소년이 느낀 것, 생각한 것에 관해서 교사가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는 것은 독서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독서체험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독서로 얻어진 감동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요망된다. 예를 들면, 널리 행해지고 있는 독서감상문 등의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읽은 책을 토대로 한 이야기의 창작, 유희 등의 다양한 기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책과 만나는 기회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의 여유 공간을 확대하여 담화실을 설치하는 등, 학교도서관을 “마음의 오아시스”로서 활성화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이 휴식을 취하고 스스로 독서를 즐기기 위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상시 개관하여 청소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 도서구입 예산을 확보하여 매력있는 도서자료를 충실히 하는 등의 노력이 요청된다. 또한 도서관의 선택에 있어서 보호자와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청소년의 독서를 촉진할 때에는 학교의 노력과 가정의 지도가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에서는 특히 부모-자녀의 대화를 늘리고 심화시키는 계기로써 독서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가 학교지원 불런티어로서 학교도서관의 활동에 참가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참고 20: 자연과 공생하는, 여유와 넉넉함이 있는 학교환경 만들기

학교는 청소년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의 장소로서 학교환경은 청소년들의 마음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학교환경의 정비에 있어서는 특히 자연과의 접촉에 배려하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친구나 교사와 대화할 수 있는 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지방공공단체에서는 녹지 내에 학교를 세우고 교정에 작은 시내를 흐르게 하거나 돌산·잔디의 광장, 나무타기를 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 등 자연환경과의 접촉을 고려한 학교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목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따뜻한 분위기의 학교시설의 정비, 혹은 청소년의 대화의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의 정비도 추진되고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각급학교가 자연체험 학습 등을 행할 수 있도록 교정에 나무, 잔디를 심거나 여유포실을 개조하여 따뜻한 분위기의 나무 방이나 플레이 룸을 정비하고 교사(校舍)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정비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 공공단체가 재정지원하는 곳도 있다. 또한 환경을 고려한 학교시설(에코스쿨)의 정비에 관해서 옥상의 녹화나 바이오톰(생물의 성장공간)의 학교부지내의 설치 등 선도적인 시도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여유와 넉넉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연과 공생하는 학교환경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각 지방 공공단체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기대된다.

자료 84: 청소년의 독서 상황

A. 부독자(不讀者)의 추이

- “1 개월간 1 권도 책을 읽지 않은 학생의 비율”

(단위: %)

	초등학생	중학생	고교생
1988	7.1	45.3	59.6
1989	10.5	41.9	57.0
1990	10.3	41.9	54.5
1991	10.7	50.4	59.9
1992	11.7	45.8	59.6
1993	12.1	51.4	60.8
1994	13.5	49.9	63.2
1995	15.5	46.7	61.3
1996	12.6	51.9	66.2
1997	15.0	55.3	69.8

주: 전국의 초등학교(4-6년생), 중학생, 고교생 각 약 4,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6 월 시점)

자료: “학교독서조사”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毎日신문사

B. 1 개월의 평균 독서량

(단위: 권)

	초등학생	중학생	고교생
1988	6.8	1.9	1.3
1989	6.3	2.1	1.3
1990	7.1	2.1	1.5
1991	5.8	1.9	1.4
1992	6.5	2.1	1.3
1993	6.4	1.7	1.3
1994	6.7	1.7	1.3
1995	5.4	1.8	1.2
1996	6.4	1.9	1.1
1997	6.3	1.6	1.0

주: 1) 교과서, 자습서, 만화책은 제외

2) 전국의 초등학교(4-6년생), 중학생, 고교생 각 약 4,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6월 시점)

자료: "학교독서조사"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毎日신문사

참 고 자 료

자 문 문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별지이유를 첨부하여 자문합니다.

유아기부터의 마음의 교육 방안에 관하여

1997년 8월 4일

문부대신 高杉隆

(이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여유”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함양하는 것을 지향하여 개성존중을 기본적인 시각으로 하여 교육을 전개해 갈 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청소년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조화로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는 것, 특히 “살아가는 힘”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사회성, 윤리관과 정의감, 아름다움과 자연에 감동하는 마음 등 풍요로운 인간성의 육성을 목표로 마음의 교육의 충실을 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눈을 돌려 보면 건강하고 활발하게 자라고 학교 내외에서의 학습과 문화·스포츠활동에 친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유연하고 풍요로운 감성과 국제성을 보유하고 있거나 볼런티어 활동에의 참가 등 사회공헌에 대한 의욕을 가진 청소년, 혹은 정의감과 유연성을 가지고 이지메에 맞서고자 하는 청소년도 결코 적지 않다. 청소년들이 유아기부터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균형잡힌 마음의 성장을 이루고 이와 같은 장점을 더욱 신장시키고 스포츠와 예술에 친숙해지고 장래에 밝은 희망을 가진 개성있는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와 향토를 사랑하고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

과 아울러 나아가서 평화적인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마음을 지닌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유아기부터의 마음의 성장을 고찰할 경우 많은 우려할 만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소자화와 핵가족화 등을 배경으로 형제자매가 함께 어울리거나 조부모로부터 배우는 등의 생활체험의 기회가 감소하고 있다. 부모의 자녀 지도방식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방임과 과보호·과잉간섭과 같은 경향이 이전부터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자연적인 연대가 약화되어 인간관계의 희박화가 진행됨과 아울러 청소년들의 마음의 성장의 자양이 되는 생활체험과 자연체험 등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학교에서도 과도한 수험경쟁 등을 배경으로 학교생활에 “여유”가 없어져서 친구들과의 교류를 심화하거나 자기실현의 즐거움을 실감하기 어렵게 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회성과 자기책임의 관념이 부족하고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청소년에게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생활에 정보기기가 보급·침투되면서 그에 수반하여 간접체험·의사체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 정보화의 어두운 부분에 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생활방식은 크게 변화하여 유아기부터의 마음의 성장에 다양한 영향을 주기에 이르렀다.

청소년의 마음의 문제는 반면 성인들의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다. 성인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찰나적인 행동과 폭력, 성적인 정보가 범람하는 풍조가 유아기부터 청소년들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리고 성인사회에 있어서 규범의식이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부모를 비롯한 성인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청소년의 마음의 육성에 임하는 자세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우려할만한 문제를 직시하고 폭넓은 관점에서 마음의 교육 방안을 재검토하여 사회 전체가 일체가 되어 필요·적절한 대책을 진전시켜 가는 것이 오늘날 시급한 과제이다. 성인들 사이에서는 청소년의 마음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환경에 관해서 유아기 단계부터 다시금 재검토하여 풍요로운 인간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도를 신중하게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움직임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토대로 유아기부터의 마음의 교육 방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 청소년의 마음의 성장을 둘러싼 상황과 앞으로 중시해야 할 마음의 교육의 시점
- (2) 유아기부터의 발달단계를 토대로 한 마음의 교육 방안
- (3) 가정, 지역사회, 학교, 관계기관이 제휴·협력하여 대응하는 마음의 교육 방안

문부대신 지문이유 설명

1997년 8월 4일

다망하신 가운데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중앙교육심의회는 우리나라의 교육, 학술, 문화에 관한 기본적인 중요시책에 관해서 심의하는 가장 중요한 심의회로서 1983년에 발족된 이래 지금까지 31회에 걸쳐서 귀중한 답신을 제출해 왔습니다. 특히 "21세기를 전망한 우리나라 교육의 방안에 관하여"의 2차에 걸친 답신에서는 "여유"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함양하는 것을 지향하여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다양한 제언을 해 주신 바 있어 현재 문부성에서는 동 답신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시책의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함양하려 할 때 우리가 다루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살아가는 힘"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사회성, 윤리관과 정의감, 아름다움과 자연에 감동하는 마음 등의 풍요로운 인간성의 육성을 목표로 마음의 교육의 충실을 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눈을 돌려 보면 건강하고 활발하게 자라면서 학교 내외에서의 학습과 문화·스포츠활동에 친구들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다수 존재하는 등 적극적인 면과 장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유아기부터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균형잡힌 마음의 성장을 이루고 자신의 장점을 더욱 신장시키고 스포츠와 예술에 친숙해져서 장래 밝은 희망을 지닌 개성있는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와 향

토를 사랑하고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나아가서 평화적인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마음을 지닌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유아기부터의 마음의 성장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많은 우려할만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소자화와 핵가족화를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생활체험 기회의 감소, 부모의 무책임한 방임과 역으로 과보호·과잉간섭과 같은 경향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자연적인 연대가 약화되어 인간관계의 회박화가 진전됨과 아울러 생활체험과 자연체험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과도한 수험경쟁 등을 배경으로 학교생활의 “여유”가 없어져서 친구들과 교류를 심화하거나 자기실현의 즐거움을 실감하기 어렵게 되는 등의 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오늘날의 청소년에 대해서 사회성과 자기책임의 관념,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힘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생활에 정보기기가 보급·침투되면서 간접체험·의사체험의 현저한 증가 등 정보화의 어두운 부분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수반하여 청소년들의 생활방식은 크게 변용을 겪고 있어 유아기부터의 마음의 성장에 다양한 영향을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성인사회에서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자주 나타나거나 폭력과 성적인 정보가 범람하는 풍조가 유아기부터 청소년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지메, 약물남용, 성의 일탈행위, 나아가서는 청소년비행의 흉악화 등과 같은 우려할 만한 상황도, 청소년의 마음의 존재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이고 또한 우리 성인자신이 진지하게 자신에 대해서 반성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마음의 교육 방안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神戸市須磨구

의 아동살해사건에서는 중학생이 용의자로서 체포되어 우리와 같이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큰 충격을 받음과 아울러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통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토대로 또한 청소년의 풍요로운 인간성을 함양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려는 사회의 움직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이제 유아기부터의 마음의 교육 방안에 관해서 자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는 자문에 관해서 특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점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청소년의 마음의 성장을 둘러싼 상황과 앞으로 중시해야 할 마음의 교육의 시점에 관해서입니다. 현대의 청소년들의 적극성과 장점을 적절하게 평가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가정과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교육력의 저하, “여유” 없는 학교생활, 정보기기의 보급·침투에 수반하는 간접체험의 증가, 성인사회에 있어서의 모럴의 저하 등과 같은 문제가 청소년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창조적이고 활력이 있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21 세기의 우리 국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어떠한 시점에 비중을 두고 마음의 교육을 진행해 갈 것인가에 관해서 폭넓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유아기부터의 발달단계를 토대로 한 마음의 교육 방안에 관해서입니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청소년들은 탄생 이래 각각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체험과 학습을 경험함으로써 풍요로운 인간성을 기르고 마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과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마음의 교육을 구체적으로 전개해 갈 것인가에 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가정, 지역사회, 학교, 관계기관이 제휴·협력하여 추진할 마음의 교육 방안에 관해서입니다. 이미 제1차 답신에서도 제언해 주신대로 앞으로 가정, 지역사회, 학교, 관계기관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마음의 교육에 관해서는 다양한 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환경과 그 생활실태의 변화를 토대로 하면서 사회전체가 일치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교육의 충실을 기한다는 관점에서 가정에서의 육아와 지도,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활동, 학교에 있어서의 도덕교육 등의 방안, 관계기관의 대책 등을 새롭게 재검토하고 그것들이 여하히 협력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검토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국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심의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도 기탄 없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의의 진행에 있어서는 마음의 교육 문제가 국민 개개인의 마음의 존재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과 교육관계자의 과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자세 등을 포함하여 널리 국민에게 직접 당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여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장, 부회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취지를 잘 이해하여 충분히 심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중간보고 머리말

중앙교육심의회는 1997년 8월에 문부대신으로부터 “유아기부터의 마음의 교육 방안에 관하여” 자문요청을 받은 이래 많은 전문가와 단체로부터의 의견을 듣고 아동·학생의 보호자와 교원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의 의견에 귀기울이면서 폭 넓은 관점에서 심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청소년의 마음을 둘러싼 문제가 광범위함을 감안하여 사회 전체, 가정, 지역 사회, 학교 각각에 관해서 그 현상을 재검토하여 청소년의 보다 원활한 성장을 목표로 하여 어떤 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언하기로 하였다.

특히 과보호와 과잉간섭, 육아불안의 확산과 자녀지도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 등 오늘날 가정에 있어서의 교육의 문제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정의 현상에 관해서 구체적인 제언을 행하기로 하였다. 그 제언의 내용은 어느 가정에서나 자녀지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당연한 사실들이다. 그러나 이들 각각을 실행하는 데에는 지대한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우리는 전체적으로 완전무결한 가정을 요망하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 한사람의 부모가 가정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 제언을 실마리로 하여 가능한 것부터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마음의 교육(心の教育)의 충실을 위해서는 국민 각계의 폭 넓은 이해와 협력이 불가결하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교육관계자는 물론 국민 개개인, 기업과 미디어 등 관계자의 노력이 요청된다. 이 답신을 계기로 국민 각계에서 폭 넓게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 개혁의 움직임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당 심의회는 본 보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보다 충실한 내용의 답신을 완성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은 제언된 시책들을 착실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답신의 취지가 널리 전파되어 논의의 범위가 확

산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부탁 드린다.

중간보고 요약

1. 미래를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 보자

가. "살아가는 힘"을 체득하여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함양하자

-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 성실성과 근면성, "화(和)의 정신", 자연에 대한 외경심, 종교적인 정서 등에 긍지를 지니면서, 새로운 시대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일본인을 육성해야 한다.
-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고 창조적이고 활력에 가득 찬 풍요로운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여, 지구규모의 과제에 적극·과감하게 도전하여 세계 속에 신뢰받는 일본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사회 전체가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힘"(자신이 과제를 찾아내고,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는 힘, 정의감과 윤리관 등 풍요로운 인간성, 건강과 체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정의감·윤리관과 사려 깊은 마음 등 풍요로운 인간성을 배양하자

청소년들이 익혀야 할 "살아가는 힘"의 핵심이 되는 풍요로운 인간성은,

- 아름다움과 자연에 감동하는 마음 등 유연한 감성
- 정의감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마음
- 생명을 소중히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 등의 기본적인 윤리관
-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사회공헌의 정신
- 자립심, 자기억제력, 책임감
- 타인과의 공생 및 이질적인 것에 대한 관용

등의 감성과 마음이다. 이와 같은 감성과 마음이 청소년들에게 확고하게

함양될 수 있도록, 우리 성인들은 현실을 직시하여 고쳐야 할 것은 고쳐가면서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사회 전체의 모럴 저하를 되돌아 보자

청소년들에게 풍요로운 인간성을 함양시켜 주기 위해서는 성인 사회 전체의 모럴의 저하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게 전해야 할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한 성인, 행실지도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노력을 회피하는 성인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의 마음을 육성해야 할 성인사회가 이와 같은 "다음 세대를 육성하는 마음을 상실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이다. 앞으로 우리 성인들이 솔선하여 모럴의 저하를 시정하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한다.

라. 지금 해야 할 것을 하나하나 실행하자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함양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다.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야 한다.

또한 각 지역에서 교육개혁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교환 및 학습의 장, 포럼 등의 기회가 마련되고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축적해 가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다시 한번 가정을 되돌아 보자

1) 가정의 모습을 되돌아 보자

(a) 서로 배려하는 밝고 원활한 가정을 만들자 - 청소년들이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정에 바라는 것으로서 "가족이 모두 함께 즐겁게 보내는 것"을 지적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희망에 대응하여 그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는 밝고 원만한 가정을 만드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b) 부부가 일치협력하여 자녀를 기르자

국제비교에 의하면 일본의 부친이 자녀와 함께 보내는시간이 대상국중에서 가장 적다. 또한 부친이 담당하는 역할·노력도 미흡하다. 부친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할 것이 요망된다.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행실 지도의 방침 등 부부간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 협력하여 대화하면서 자녀양육에 임해야 한다.

(c) 대화를 늘리고 가족의 유대를 심화시키자

가족간에 풍요로운 대화가 오고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자간의 대화가 적고, 자녀가 성장해 감에 따라 부모-자녀간의 대화빈도가 줄어드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 가능한 한 가족이 얼굴을 마주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
- 아침인사를 나누거나 자녀에게 가사의 역할을 맡기는 등 대화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d) 과잉간섭을 하지 말자

가정의 교육력이 저하하고 있는 이유로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이 "과보호, 응석을 받아주는 부모의 증가"이다.

- 자녀가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익히는 것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자녀가 생각하기 앞서 미리 개입해 버리는 것
- 부모가 자신의 페이스를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
- 모자의 과도한 밀착은, 자녀의 자주성과 개성의 신장을 방해한다.

(e) 부친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부친의 존재가 희박화하여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모친의 눈치를 살피고 모친에게 있어서 "좋은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친구같은 부친"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선악의 규칙 등에 관한 지도가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국제비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친은 행실지도나 고민 등의 상담상대로서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 부친이 모친과는 다른 시각과 방식으로 자녀양육에 관여하는 등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f) 편부모 가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자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반드시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 고민을 혼자만 품고 있지 말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나쁜 것은 나쁘다고 분명하게 가르치자

(a) 해서는 안되는 것과 잘못된 행동은 분명하게 고쳐주자

- 청소년들의 규범의식의 저하가 현저하다.

일본의 고교생은 "학교 무단결석" "매춘 등 성을 판매하는 것"을 "본인의 자유이므로 무방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다. 공갈, 절도, 마약의 사용에 관해서도 약 1 할이 "본인의 자유이므로 무방하다"고 응답하였다..

- 부모 자신이 "자신만 좋으면 모든 것이 무방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규칙에 위반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와 같이 당연한 사실을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
- 선악과 울고그림의 구별 등에 관해서 어린 시절부터 지도할 것
- 잘못된 행동을 하면 즉시 시정해 줄 것
-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꾸짖을 것
-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일관성있게 꾸짖을 것
- 타인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면 필요 이상으로 마음이 상하거나 맞대응하려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는데, 차분하게 꾸짖을 당한 경험의 결여가 그 원인의 하나로 생각된다.

(b)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청소년들의 자기중심적인 행동과 자립이 지체되는 현상의 배경에는 "자기 책임감의 결여"가 존재한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하게 하고 책임감을 가지도록 지도하는 가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 뒷정돈을 확실하게 하게 하고
- 가사를 분담시키고
- 다양한 연령집단 속에서의 놀이와 지역 활동을 체험케 하는 등 주위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c) 자기 자녀만 괜찮으면 모든 것이 무방하다는 생각을 버리자

"자기 자녀만 괜찮으면 모든 것이 무방하다"는 이른바 자자주의(自子主義)의 경향이 과잉간섭과 과보호의 배후에 있다. 이와 같은 부모의 태도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정의감과 사회 규칙을 준수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데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된다.

(d) 사춘기의 청소년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하자

부모는 사춘기의 자녀에 대해서 흔히 지나치게 조심하는 태도를 나타내곤

한다. 자립을 촉진함과 아울러 자신의 책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e) "보통아이들"의 "돌발형" 비행을 예고하는 조짐을 간과하지 말자

"보통아이들"의 "돌발형" 비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언뜻 "보통아이"처럼 보여도 반드시 그에 앞서 조짐을 나타내게 된다.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심하게 공격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중요한 조짐이다. 부모가 이를 간과하거나 발견은 했지만 외면해 버리는 데에 문제가 있다.

조짐을 발견했을 때에는 부부간에 상의하여 자녀와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기를 놓치지 말고 상담기관이나 학교 교사·카운셀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 주변의 작은 것부터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기르자

환경을 소중히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물건을 아껴 써서 쓰레기를 줄이고 바다나 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 주위의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한다.

3) 사려 깊은 청소년을 육성하자

(a) 조부모를 존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자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배려하는 마음은 널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의 토대가 된다. 부모가 숭선해서 조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국제비교 조사에서 일본의 고교생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응답율이 현저하게 적은 편이다.

(b)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배려하도록 하자

초·중학생 중에서 "버스·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응답율이 7 할 정도에 이른다. 부모가 출선해서 모범을 보여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c) 차별과 편견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자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이지매에 가담하거나 타인을 차별하고 괴롭히는 언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에는 인간으로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한다.

(d) 생명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생명의 중요성을 실감시켜주자

오늘날 청소년들은 근친자의 죽음을 목격하는 경우가 감소하는 한편,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허구의 "죽음"에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감성이 희박해 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놀게 하고, 동물이나 화초를 정성들여 기르게 하는 등 다양한 생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생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화초를 함부로 다룰 때에는 적극적으로 생명의 의미를 일깨워 줘야 한다.

(e) 유아에게는 부모가 책을 읽어주자

청소년이 독서를 즐거움을 깨닫고 친숙해지는 데에는 유소년기의 체험이 중요하다. 유아기부터 매일 책을 읽게 하거나 "독서의 시간"을 마련하고 잠자리에서 책일 읽어 주는 것은 마음의 성장에 커다란 효과가 있다.

4) 청소년의 개성을 존중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하자

(a) 유아기부터 청소년에게 평균치와 상대적인 순위를 매기는 것을 그만두자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일본의 부모는 자녀의 성장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고, 자녀들도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자녀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평균치와의 비교, 편차치 등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순위에 집착하지 말고 자녀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b) 청소년의 좋은 점을 칭찬하여 키워주자

자녀 개개인의 좋은 점과 개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것을 찾아 내어 제대로 칭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꾸짖어야 할 것은 엄격하게 꾸짖고 칭찬해야 할 것은 진지하게 칭찬해 줘야 한다.

(c) 인간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앞으로의 사회에 관해서 청소년에게 얘기해 주고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들어보자

오늘날의 청소년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는 단념해 버리는 매우 현실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 국제비교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지금보다는 장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 부모는 자기자신의 경험과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 등을 화제로 하면서,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녀의 꿈과 희망에 귀기울이고 격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가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자

(a) 각 가정에서 생활의 규칙과 룰을 만들자

청소년들은 가정의 규칙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사회의 규칙의 중요성을 배운다. 생활상의 규칙과 도덕상의 규칙을 각 가정에서 정해 둘 필요가 있다.

(b) 유아기부터 작은 일이라도 가사를 분담시켜 책임감과 자립심을 길러주자

일본의 청소년들은 해마다 가사를 돕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가사를 분담시키는 것은 책임감과 자립심을 함양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갖고 있다. 유아기부터 가사를 돕는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확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c) 아침 인사부터 시작해서 예의를 몸에 익히도록 하자

아침인사부터 시작해서 매일 부모와 주위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인사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부모 자신이 자녀에게 먼저 말을 걸고 인사해 주는 습관을 익히도록 하자.

(d) 자녀에게 인내심을 길러주자 - 원하는 대로 물품을 사주게 되면 자녀의 마음의 왜곡시킨다

"자녀를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언제나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는 말이 있다. 자녀에게 물품을 안이하게 사주게 되면 자원은 노력이나 인내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욕구를 제어하는 힘을 상실해 버린다. 너무 많은 물품이나 고가의 물품을 사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g) 가정내의 연중행사나 가족모임을 되돌아 보자

가정내의 연중행사나 모임은 가족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가정에서 지역사회로 시각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전통적인 가정내 행사는 종교적인 정서를 함양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어 왔다. 다양한 가정내 행사를 재평가해야 한다.

(h) 자녀의 방이 단정있지 않도록 하자

자녀가 자기방에만 틀여박혀 지내면 부모는 주의가 미치지 못하게 되고 부모-자녀의 대화가 감소한다. 부모가 자녀방의 상태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자신의 방을 잠귀 놓아서는 안된다"는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 바람직하다.

(g) 무제한 텔레비전이나 텔레비전 게임에 몰두하지 않도록 하자

텔레비전, 텔레비전 게임이나 비디오에 대한 과도한 몰입은 인간관계의 회박화, 직접체험의 부족을 야기하여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등이 충분히 함양되기 어렵다. 또한 공상과 현실의 혼동, 삶과 죽음에 관한 현실감각의 회박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각 가정에서는 텔레비전 시청시간 등에 관한 규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h) 폭력과 성에 관한 텔레비전·비디오 시청에 부모가 개입·관여하자

부모는 폭력이나 성에 관한 정보 등 유해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접하지 않도록 접촉을 금지시켜야 한다. 특히 과도하게 폭력적인 장면, 노골적인 성적 표마나 인권을 경시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비디오 등은 부모의 판단하에 자녀가 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을 가정의 규칙으로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놀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자

(a) "놀이"가 특히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단계에서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자

특히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단계의 청소년에게 있어서 친구와의 놀이의 의의는 매우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놀이 기회의 감소, 실내에서의 "고립형 놀이"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상상력이 요구되는 놀이를 할 수 없는 "놀지 않는 아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놀게 하지 않는 부모" "자녀와 잘 놀아주지 않는 부모"의 존재를 시사해 준다.

부모는 지육(知育) 우선의 사고에서 벗어나 자녀가 어릴 때에는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놀게해 줘야 한다.

(b) 자연 속에서 마음껏 놀게 하자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자연 속에서의 놀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부모는

자녀를 자연 속으로 데리고 가서 마음껏 놀면서 동·식물 등 자연과 접촉하게 하고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자연체험 활동에 가족 단위로 참가하거나 때로는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자녀 혼자서 참가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c) 마음의 성장을 왜곡하는 지육(知育)에 편중된 조기교육을 재검토하자
 어린 시기부터 자녀를 학원에 다니기 하거나 통신교육을 받게 하는 등 지육에 몰두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그 결과 유아의 놀이와 체험활동의 기회는 감소경향에 있다. 또한 부모가 다른 아이들과의 상대적인 비교에 사로잡혀 빠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녀의 마음의 풍요로운 성장을 왜곡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조기교육적 분위기"에 물들지 않도록 되돌아 보 필요가 있다.

(d) 청소년의 생활에 시간과 여유를 주자

청소년들은 여유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마음껏 놀이를 즐기고 놀이방식을 고안해 내어 개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시간과 여유를 주어야 한다.

7) 다양한 연령집단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자

주변 지역사회의 볼런티어·스포츠·문화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지역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시켜야 한다.

주변 지역사회의 볼런티어·스포츠·문화활동, 청소년단체의 활동은 다양한 연령집단 속에서 청소년의 마음의 성장을 촉진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참가는 부진한 실정이다. 부모는 적극적으로 자녀가 참가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3. 지역의 힘을 되살리자

가. 지역에서 자녀양육을 지원하자

(a) 모든 부모가 거치게 되는 모자보건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모든 부모가 거치게 되는 모자보건수첩의 교부시나 1세 6개월, 3세 유아 등의 건강진단, 초등학교 입학전의 건강진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모가 자녀양육과 행실지도의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자.

- 가정에서의 자녀지도 방식이나 마음의 성장에 관해서 배려해야 할 사항을 수록한 간단한 책자(예를 들면, "부모-자녀수첩" "가정교육수첩" "자녀지도수첩")을 작성하여 부모들에게 제공할 것
- 집단검진시에 가정교육학급 등(강연이나 비디오 등의 활용)을 개설하거나 가정교육상담 코너를 설치할 것
- 다양한 가정교육 학습기회의 참가를 권고할 것
- 교육상담기관의 존재를 카드 등의 형태로 안내할 것
- 부친의 자녀양육 참가에 관한 소개자료(예를 들면 "부자수첩")을 작성·배포할 것
-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은 문부성과 후생성, 지방 공공단체, 특히 시정촌(市町村)의 모자보건 담당부서와 교육위원회가 밀접히 협력하여 진행할 것

(b) 24 시간 부모가 부담 없이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각 지역에서 자녀양육에 불안을 느끼는 부모나 사춘기의 자녀를 둔 부모가 부담없이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자.

-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24 시간 자녀양육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 공적인 기관이나 다양한 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창구의 연락처 등 정보를 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할 것

- 각 상담기관에서는 상담자의 필요성에 따라 보다 적절한 상담기관을 소개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다른 기관에게 제공하는 등 협력을 긴밀히 할 것
-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관하여 같이 학습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그룹을 육성할 것

(c) 가정교육 카운셀러를 배치하여 자녀양육 지원에 활용하자

각 상담기관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카운셀링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임상심리사나 정신과 의사 등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구비한 인재를 "가정교육 카운셀러"로서 활용하자

(d) 중·고교생이 유아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청소년들이 유아와 접촉할 수 있는 체험이 줄어들면서 생명의 존엄성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고 있다. 중·고교생이 실제로 유아와 접촉하면서 시중을 들어주는 체험을 의도적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유치원, 보육소, 유아원 등에서 중·고교생이 체험학습이나 볼런티어 활동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

(e) 가정교육의 학습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자

지역의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기회를 연구하자.

- 1 세 6 개월, 3 세 아동의 건강진단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가정교육학급 등을 개최하거나 시청각교재를 활용한 학습기회를 마련할 것
-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가정에서도 부담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것
- 기업내에 가정교육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부친의 수강을 촉진할 것

(f) 기업중심 사회에서 "가족에게 따뜻한 사회"로 전환하자

부친의 가정교육 참가를 보다 촉진하고 모친도 사회 속에서의 자기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남녀 공동참여 사회, 부부가 "여유"를 가지기 자녀양육을 할 수 있는 사회, "가족에게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

- 노동시간의 축소, 육아휴업·장기휴가의 제도화 촉진, 유연성있는 근무시간 제도 등 탄력적인 노동시간제도의 보급
- 육아를 위해 퇴직한 사람의 재취업 지원
- 우리나라에 특징적인 단신부임을 감소시킬 것

나. 다양한 연령집단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풍부하고 다채로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자

1) 장기간의 자연체험 활동을 진흥시키자

(a) 민간의 힘을 빌어서 장기간의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자

장기간에 걸쳐서 부모와 떨어져서 다양한 연령집단의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공동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자. 이 때 공적인 기관뿐만 아니라 청소년단체가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민간교육사업자 등이 운영 주체가 되는 민간의 활력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b)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청소년들이 집단생활을 할 수 있는 “장기 자연체험촌”을 설치하자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부모와 떨어져서 다양한 연령집단의 청소년들이 침식을 같이 하면서 자연체험, 환경학습 등을 행하는 “장기 자연체험촌”을 설치하자. 이를 위해서 기존의 공적인 청소년교육시설이나 각 지자체, 지방 공공단체의 시설을 효율적·탄력적으로 활용하거나 민간업자가 소유한 시설이나 숙박시설, 농가 등의 협력을 구하는 등의 폭넓은 시도가 요청된다.

(c) “산촌유학”(山村留學)과 “국내 홈스테이”의 기회를 증진시키자

도시의 청소년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서 지내면서 그 지역의 학교에 통학하는 “산촌유학”을 확산시키자. 또한 앞으로는 국내에

서 서로 다른 가정의 생활을 체험하는 "국내 홈스테이" 제도를 도입하자.

2) 볼런티어 ·스포츠 ·문화활동, 청소년단체의 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자

(a) 자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사회공헌 의지를 함양하는 볼런티어 활동을 진흥시키자

볼런티어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아직 적은 편이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볼런티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가 활동의 기회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도록 하자.

(b) 스포츠·문화활동과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

다른 연령집단의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 스포츠단체나 문화단체, 청소년단체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참가자 수의 감소와 지도자 확보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 행정기관은 지도자의 양성, 정보제공의 충실 등을 통해 단체활동의 진흥을 지원해야 한다.
- 각 단체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활동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요망된다.

(c) 학교는 학교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가를 장려하자

- 학교는 학교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참가를 장려하자
- 학교에서는 볼런티어 활동 등의 체험활동을 고등학교의 학점 단위로 인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평가할 것이 요망된다.

(d) 자유롭게 모험에 참가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자

초등학생이 되면 "갭 에이지"로서의 친구관계를 통해서 규칙을 준수하는

마음, 책임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힘 등을 익히게 된다. 그러나 갭 에이지에 적합한 놀이의 장이 감소하고 있다. 자연과 접촉하면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자.

3) 지역의 행사와 다양한 직업에 관한 체험의 기회를 늘려주자

(a) 지역의 행사에 청소년들을 더욱 자주 참가시키자

시정촌(市町村), 정내회(町内會), 상점가, 청년회의소, 지역산업 등의 전통적인 축제나 행사의 활력을 청소년들의 마음의 육성에 활용하기를 바란다. 지역행사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가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청소년과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하거나 청소년들이 책임있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회사나 공장에서의 청소년 견학·체험활동을 확산시키자

노동의 중요성, 자신의 희망과 장래 직업에 관해서 생각하는 계기로서 다양한 직업의 활동을 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자. 적극적으로 사무소나 공장을 개방하고 있는 기업도 많이 있다. 행정기관은 청소년들을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공공 기관이나 기업 등의 시설에 대해서 학교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단위나 가족·청소년 그룹 단위의 견학·체험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c) 직장견학의 기회를 확대하여 일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자

오늘날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모가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드물게 되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 심어주기 위한 의욕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기업에서는 종업원의 자녀가 직장을 견학하여 사회 속에서 일하는 부모의 모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자.

4) 정보제공 시스템을 연구하여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에의 참가를 가능하게 하자

(a) 편의점이나 우체국등의 지역사회 생활거점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학교 외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자

많은 청소년들이 자연체험이나 볼런티어 활동 등의 학교외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동에 관한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학교외 활동에 관한 정보지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편의점이나 우체국 등 친숙한 생활거점에 비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지의 작성에는 민간의 협력을 얻어서 공적인 지원하에 유료화하여 작성·배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다. 청소년의 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정보의 문제에 대처하자

(a) 텔레비전 ·비디오 등 관계자에 의한 자주규제 등의 시도를 진전시키자
다음과 같은 노력을 전개하자

- 텔레비전 방송에 관해서는 많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 방송국 내에서의 체크기능의 충실과 PTA 등 관계자의 의견 반영 등 방송을 제작하는 측의 적극적인 자주규제 노력의 충실
- 비디오에 관해서는 자주규제를 행하는 단체에의 가맹의 촉진, 연령구분에 의한 세밀한 심사의 실시 등 노력의 촉진
- 텔레비전 게임, 인터넷에 관해서는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는 등 자주규제의 강화
- 출판물에 관해서는 성인 대상의 마크 표시 등의 제도의 시행
- 비디오 대여점, 서점, 편의점에서는 성인 대상의 잡지나 비디오를 다른 것과 구분되게 진열하여 미성년자가 입수할 수 없도록 할 것

(b) 업계단체와 PTA 등의 교육관계 단체와의 정기적인 협의의 장을 개설하

자

다음과 같은 노력을 전개하자.

- 텔레비전, 비디오 등의 업계단체와 PTA 등 자녀양육과 관련된 교육관계단체 간의 정기적인 협의의 장을 마련할 것. 이 때 교육관계단체는 충분한 조사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것.
- 교육관계단체가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의 스폰서와 대화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요청하는 등의 시도
- 각 지역에서 서점, 편의점, 비디오 대여점 등과 지역의 교육관계단체가 유해도서와 비디오의 판매 및 대출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

(c)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노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텔레비전전에 관해서는 외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사전표시제도나 V 칩제도의 시행사례를 참고하여 방송업계와 우정성 등에서는 이들 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망한다.

인터넷에 관해서는 수신자측에서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필터링 기술)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해 관련업계와 행정부처가 외국의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노력할 것이 요망된다.

(d) 유해정보의 문제에 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진전시키자

각 지역에서 PTA 관계단체, 청소년단체, 소년보도원, 학교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한 잡지나 비디오 등의 판매·대출의 자주 규제를 요청하고 조례의 제정과 그 운용의 개선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보다 적합한 법적 규제의 방안, 유해정보 대처방안에 관해서 관계부처가 밀접하게 협력하여 노력을 전개할 것을 요청한다.

4. 마음을 함양하는 장으로서 학교를 되돌아 보자

가. 유치원·보육소의 역할을 되돌아 보자

(a) 유치원·보육소에서 도덕성의 싹을 키우자

- 유치원, 보육소에서는 가정과 협력하여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것,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도해야 한다.
- 아동 개개인의 모습을 부모에게 상세하게 전달해 주고, 가정의 지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모를 설득해야 한다.

(b) 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자

자연체험이나 사회체험, 예를 들면 동·식물의 사육·재배, 지역 행사 참여, 고령자와의 접촉, 소년자연의 집 등을 이용한 활동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유아에게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자

부모와 떨어져서 친구들과 침식을 함께하는 유아캠프 등의 자연체험 프로그램에 유치원 단위로 참가하거나 아동들의 개별적인 참가를 촉진하자.

(d) 유치원·보육소를 통한 자녀양육 지원을 발전시키자

유치원·보육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도를 전개하자.

- 부모가 서로 교류하는 자녀양육 서클 활동의 지원
- 자녀양육 공개강좌의 개설이나 촉탁의사의 협력에 의한 자녀양육 상담의 충실
- 부모가 유치원·보육소의 보육활동에 참가하는 기회의 확대
- 미취원아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체험 입학 기회의 설치

- 중·고등학생이 유아들과 접촉하면서 돌봐 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
- 유치원의 교원, 보육소의 보육자, 초등학교 교원들의 합동 연수의 실시

나. 초등학교 이후의 학교교육의 역할을 되돌아 보자

1)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의 가치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미래를 개척하는 마음을 길러주자

(a) 우리나라와 향토의 전통·문화의 가치에 주목하게 하자

국가와 향토의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존중하는 태도의 육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 각 교과와 도덕·특별활동에 이를 반영할 것
- 국가와 향토의 유적이나 문화유산, 전통 공예와 예능의 직접 접촉, 체험 학습의 적극적인 도입
- 지역 인재의 협력을 얻을 것
- 교원 각자가 국가와 향토의 전통·문화에 관한 에 학습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연수 등에서 배려할 것

(b)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와 자기책임에 관해서도 충분히 지도하자

학교의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동시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행동에는 책임이 수반한다는 것, 의무를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지도를 앞으로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c) 보다 좋은 사회와 나라 만들기에 참여하게 하고 국제공헌의 중요성을 알려주자

발달단계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성립, 구조, 참정권의 행사 등을 통해서 스스로 사회와 국가 형성에 참가하는 것의 중요성, 우리나라와 세계가 직면하

고 있는 과제와 국제공헌의 중요성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d)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주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토론과 논쟁의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e) 과학에 관한 학습을 활성화하고 자연에 대한 외경심, 미래에의 꿈을 길러주자

과학에 관한 학습, 특히 관찰·실험, 탐구활동을 통해서 자연의 신비에 대한 경이감과 감동의 체험을 부여하여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 관찰과 시행착오를 통한 실험 등의 활동을 보다 많이 활용할 것. 이를 위해서 교육내용을 엄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
- 박물관 등 다양한 학교외에서의 학습 기회를 활용할 것
- 일선의 연구자나 기술자 등이 청소년들에게 직접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f) 청소년들에게 신뢰받고 심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자

청소년들에게 신뢰받고 마음을 육성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도가 요망된다.

- 교수방식의 지도와 청소년과의 접촉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교원양성 커리큘럼의 개선·충실을 기할 것
- 채용에 있어서는 면접의 중시, 볼런티어 활동이나 자연체험활동 경험을 채용의 중요한 자료로 삼을 것, 지역에서의 실천활동의 평가, 선발에 있어서는 지역 유지 등의 기용
- 현직연수에 관해서는 대학원 레벨의 현직교육과 민간기업 등에서의 체험적 연수를 충실히 할 것

2) 도덕교육을 재검토하여 더욱 발전시키자- 도덕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하자

(a) 도덕교육을 충실히 하자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도덕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도덕시간"의 수업시수를 확보하는 등 지도체제를 정비할 것
- 교원 각자가 도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 교장은 교원의 계발에 노력할 것
- 특별활동 등에 있어서의 체험적·실천적 활동과의 관련을 중시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중시하는 도덕 수업을 실천할 것
- "도덕시간"을 학교교육 전체를 통해서 실천하는 "핵심적인 시간"으로 활용할 것
- 교재 등을 연구하여 청소년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수업을 행할 것
- 보호자나 지역주점이 학교의 도덕교육 실시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b) 보다 체험적인 도덕교육을 실시하자

- 도덕교육에서 배운 것이 실천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체험을 토대로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는 도덕교육을 실천할 것
- 볼런티어 활동, 자연체험 활동, 향토의 문화·전통을 익힐 수 있는 활동과 연계하면서 지도의 충실을 기할 것

(c) 청소년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재를 사용하자

-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인의 전기 등을 재평가하거나 명작, 고전, 수상, 민화, 시가, 논설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행정기관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우수한 교재를 연구·개발하여 각 지역·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교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추진하여

각 학교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 "정의란 무엇인가"와 같은 테마를 내걸고 토론 등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d) 좋은 방송 프로그램을 교재로 유용하게 활용하자 .

- 역사, 다큐멘터리, 과학 프로그램 중에는 도덕교육의 교재로서 가치있는 것들이 많으므로 이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 이들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청각센터·도서관의 충실을 기할 것

(e) "히어로"·"히로인"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히어로"나 "히로인"이 청소년들에게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것의 의의, 규칙의 준수와 예의의 중요성 등에 관해서 얘기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자. 이를 위해서,

- 청소년들에게 얘기하는 "히어로" 등의 모습을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비디오로 제작하여 각 학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이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요망된다.

(f) 도덕시간에 청소년들이 존경하는 지역사회 인재의 힘을 빌리자

- 청소년들이 존경하는 지역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예를 들면, 지역 스포츠 지도자, 전통문화의 계승자, 기업의 전문가, 외국인 유학생)
- 행정기관은 협력이 가능한 인재를 "학교지원 볼런티어"로서 인재뱅크화하여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g) 지역주민이나 보호자의 조언을 받아서 도덕교육을 진행하자

도덕교육의 중점과 교재의 개발 등에 관해서 교장이 리더쉽을 발휘하여 보호자(PTA)나 학교외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에 따라 조언을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카운셀링을 충실히 하자

(a) 학교 카운셀러에게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충실히 하자

-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 카운셀러에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학교 카운셀러와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카운셀링 룸의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 학교 카운셀러뿐만 아니라 양호교사, 학교 영양직원, 학교의사, 퇴직교원, 청소년단체 지도자, 볼런티어 등의 협력을 얻어서 청소년 상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학교 카운셀러 양성의 충실을 기하자

학교 카운셀러의 질·양의 확보를 위해서는 임상심리사 등 "마음의 전문가"의 양성의 충실, 특히 사회인도 입할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대학원의 충실을 기하는 것이 요망된다.

(c) 교사는 카운셀링 마인드를 함양하자

교사는 교과지도의 실력과 아울러 카운셀링 마인드를 함양하여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기관은 양성·연수의 각 단계마다 교원의 카운셀링 마인드의 함양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d) "마음의 안식처"로서의 양호실의 역할을 중시하자

"양호실 등교"가 증가하여 양호실은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가고 있다. 각 학교는 양호교사의 역할을 중시하여 마음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호교사 복수배치의 추진, 양호교사 양성 커리큘럼의 개선과

체계적인 현직연수의 충실 등이 요망된다.

4) 부등교(不登校) 문제에는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자

(a) 부등교는 마음의 성장의 도약기로 파악하여 여유를 갖고 대응하자

부등교는 마음의 성장의 도약기로 파악하여 주위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빨리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머물지 않고 청소년이 부등교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성을 신장시키고 성장해 가는가를 중시하는 시점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전개하자.

- 학교내외의 전문가 및 교육상담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적응지도교실의 적극적인 활용,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보충지도의 실시
- 부등교 청소년을 위한 야외체험 활동 프로그램의 실천 연구의 추진
- "중학교 졸업정도 인정시험"을 부등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
- 고교 입시의 선발자료로서 조사서에 대신하여 부등교 학생과 보호자가 그 학교의 진학동기, 그곳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 등을 기술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5) 문제행동에 의연히 대응하자

(a) "성실성"과 "이질성"에 대한 부당한 이지매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자

- 힘이 약한 청소년뿐 아니라 규범의식이 높은 성실한 청소년과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청소년, 주위에 부화뇌동하지 않는 청소년 등이 "이질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이지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당한 이지매가 허용되지 않도록 학교 전체가 강하게 대처할 것이 요망된다.
- 정의감,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 서로의 개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청소년들이 내면화하여 친구들과 사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b) 교사의 노력으로 이지매를 근절시키자

- 교사의 노력에 의해서 이지메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교사가 "어떤 이유에서든 이지메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도전하기 바란다.
- 이지메를 없애기 위해 행동하는 정의롭고 용기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이지메를 허용하지 않는 친구관계를 확산시킴으로써 학교로부터 이지메를 철폐할 수 있다.

(c) 약물남용 등의 위험성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자

-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약물남용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고 허용될 수도 없다"는 인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단계부터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 이 때 학교외의 전문가(예를 들면 경찰직원, 전직 마약수사관, 의사, 약제사 등)들이 직접 청소년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

(d) 성을 유흥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시각을 고쳐주자

- "원조교제"는, 토론 등의 방법을 통해,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금전을 취득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된 매춘으로서 인간적으로 수치스러운 행위이며, 다양한 범죄로 연결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 장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커다란 마음의 부담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성인층에서도 많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각 지자체 조례의 음란행위처벌 규정 등의 엄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은 한층 노력해야 한다.

(e) 성실하게 노력하는 학교·교사를 지원하자

- 정열을 가지고 외연한 자세로 학생간 폭력과 대교사 폭력 등의 문제에 노력을 기울이는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
- 학교와 교사가 위축되지 않고 폭력적인 행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지역의 지원이 중요하다.

교장은 평상시부터 보호자(PTA)와 학교외의 유지들로부터의 조언을 구하고 학생지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식,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침 등을 확고히 하여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 (f) 경찰이나 아동상담소 등의 관계기관과 자발적으로 협력하자
학교의 지도만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평소부터 관계기관과 정보교환을 행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할 것
- 다른 학생의 학습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심신의 안전을 위협할 때에는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의 정기적 혹은 수시 학교 방문을 요청할 것. 신속하게 경찰에 연락·협력 요청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 것
- "청소년들 전체가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학교에 부과된 책무로서 학교외의 반응을 의식하여 뒤늦게 조치를 내리지 않도록 교장은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 전문적인 케어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등에 관해서 아동상담소 등과의 협력을 추진할 것
- 경찰 등과의 협력방침에 관해서 평상시부터 보호자(PTA)와 학교외 유지들과 의견교환을 행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것

6) 여유있는 학교생활로 청소년의 자기실현을 도모하자

- (a) 교육내용을 엄선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교육을 발전시키자
- 청소년이 존재감과 자기실현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학교만들기를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도가 요망된다.
-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지향하여 교육내용을 엄선할 것

- 청소년들의 장점을 평가하고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전개하여 청소년들이 성취감과 달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
- 청소년들의 의사가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게 할 것
- 교사와 청소년이 대화할 수 있는 여유의 확보를 위해 행정기관과 학교에서는 행사와 회의의 운영, 연구·연수의 형태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

(b) 시행착오가 가능하고 다양한 노력을 평가하는 입시개혁을 실시하자

- 본 심의회는 제 2 차 답신에서 개성존중의 기본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선발 방법·척도의 다양화에 관해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제언을 행한 바 있다. 이들 제언에 기초하여 대학·고등학교의 입학자 선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 오늘날과 같이 변화가 격심한 시대에서는 18 세 시점에서의 시험의 합격 여부가 예전처럼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앞으로 얼마나 더 배우고 진정한 실력을 쌓는가가 더 중요하다. 기업이나 학교에서도 "살아가는 힘"을 중시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부모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는 진로지도의 기회 등을 통해 노력하기 바란다.

(c) 청소년들의 독서를 촉진하는 연구를 하자

청소년들의 독서량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여 전혀 책을 읽지 않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전개하기를 기대한다.

-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 예를 들면 매일 아침 "10 분 독서시간"이나 학교 독자적인 독서주간을 설정할 것
- 독서를 통해 얻은 감동을 청소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연구
- 학교도서관을 "마음의 오아시스"로서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독서를 즐기기 위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ABSTRACT**The current situation of adolescents education in
Japan and the countermeasures**

- The responsive document from the Central Council for
Education -

This document is a full translation of the report issued by the Central Council for Education (CCE). The report was written in an effort to cope with the issu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Japan at the request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CCE is an organization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Japan. To prepare for the report, the CCE held a series of hearings to listen to the public suggestions, and also held general meetings and discussions on many occasions. Based on the outcome, the CCE issued this final report in Aug. 1998.

The purposes of this report are as follows. It first intends to review the reality of Japan regarding the issue of adolescents-nurturing. In fact, this report takes a look at the Japanese situation which is characterized by problems such as the over-protection of and over-interference with adolescents, the parents' loss of confidence in upbringing their children. Then, it suggests the specific roles of families, schools, local communities and administrative bodies should play to help adolescents to grow up stronger

to actively cope with the new era.

Given the fact that Japan's issue of adolescence has many similarities with that of Korea in many aspects, this report will be able to provide a great deal of useful information that will help us to come up with proper adolescence-related policies.